

#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umber 8 | 2023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A scholarly journal of the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consisting of articles, translations, book reviews and other forms of writing that illuminate and raise questions about global issues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generate discussion and debate on topics across these broad subject areas and related fields.

---

**The Editorial Committee\***

*Dr Todd Squires*, Professor of Japanese Literature (Editor-in-chief)

*Dr Yoonok Lee*, Professor of Cognitive Linguistics

*Dr Yudai Fukuda*, Associate Professor of Modern French Literature and  
Media History

\*All members listed above are full-time faculty members of the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

The journal is available online at  
<http://int-studies.kindai.ac.jp/curriculum/journal/>

ISSN: 2432-292X (Print)

ISSN: 2432-2938 (Online)

Published in July 2023

by the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3-4-1 Kowakae, Higashi-Osaka City, 577-8502 Japan

E-mail: [journal@intl.kindai.ac.jp](mailto:journal@intl.kindai.ac.jp)

© 2023 The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Printed in Japan by AP Ryubun Co., Ltd.

---

#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umber 8 | 2023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

## Contents

### Research Articles

- A Contrastive Linguistic Study of Terms of Address in the Japanese Film  
*Let Me Eat Your Pancreas* and the Corresponding Korean Subtitles  
*Yoonok Lee* 1
- The Potential of Refugee-led Organizations in Promoting Resilience  
A Case Study from Uganda  
*Kuwana Megumi* 25
- The Experience and Effectiveness of Elite Families' Education for Children in  
the Middle and Late Qing Dynasties: Focusing on Qian Yiji and Qian Taiji  
*Yandan QU* 41
- Development of the Shipping Management System in the Yuan Dynasty  
*Tomoyuki Yazawa* 61
- Translation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Using Audiovisual Translation to Deepen Language and Cultural  
Understanding  
*Lisa K. Honda* 87

### Author Guidelines

---



한·일 자막 번역에 나타나는 호칭어의  
대조언어학적 연구  
—일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대상으로—

A Contrastive Linguistic Study of Terms of Address in the Japanese Film  
*Let Me Eat Your Pancreas* and the Corresponding Korean Subtitles

이윤옥 (Yoonok Lee) \*

ABSTRACT: This paper is the continuation of research by Lee (2022), and is a contrastive linguistic analysis of the terms of address in the Japanese film *Let Me Eat Your Pancreas* and the Korean terms chosen to correspond with them in the subtitles. Terms of address include many elements, and through them we can not only see the so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but we also can apprehend the psychological state of the speaker with regards to the listener. The terms of address used in film lines not only express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in the film, but also have the function of conveying narrative information. Considering this, we can see that it is important to translate such terms of address in subtitles. In this paper I follow the categorization of terms of address previously laid out in earlier research and analyzed the terms of address that appear in Japanese film lines and the terms applied to Korean subtitles. From the results I conclude with a confirmation that there is a limit to what can be translated in subtitles due to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both Japanese and Korean.

KEYWORDS: terms of address, subtitle translation, Japanese lines, Korean subtitle

## 1. 들어가기

말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음성 기호(voice symbols)로 정의되지만, 그 말을 사용하는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그 사회에서 운용되는 말이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말을 평면적인 통번역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대건축물과 같다는 비유 표현이 성립되는 것도 말의 배후에 있는 사회와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 Professor of Cognitive Linguistics,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E-mail: leigh@intl.kindai.ac.jp

Lee, Y. (2023). A Contrastive Linguistic Study of Terms of Address in the Japanese Film *Let Me Eat Your Pancreas* and the Corresponding Korean Subtitle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8, 1-23.  
©2023 Yoonok Lee

때문일 것이다. 일상의 대인 관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호칭어(terms of address) 역시 단순한 결집체가 아니다.

호칭어는 화자가 청자를 일컫는 표현인 동시에 화자가 어떤 특정 호칭어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화자 자신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호칭어로 인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호간에 서로를 어떤 호칭어로 부르느냐에 따라 서로의 개인적·사회적 관계는 물론,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까지도 가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본 영화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의 일본어 대사에 출현한 호칭어와 그 호칭어에 적용된 한국어 자막을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sup>1</sup>. 먼저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호칭어의 기능과 유형 등에 대해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밝힌 호칭어 유형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 자료에서 추출한 호칭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있어서는 일본어 대사의 호칭어와 그에 대한 한국어 자막을 정량 및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한일 양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포함한 호칭어의 다양한 양상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물이 한일 양국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자료가 되고 한일 영상번역의 실무에도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 2. 선행 연구

한일 양국어의 호칭어<sup>2</sup>가 어떤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sup>1</sup> 이윤옥(2020)·(2021)·(2022)에 이은 후속 연구이다.

<sup>2</sup> 이 용어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東出朋(2019:104)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呼びかけ語は、基本的にはヒト名詞である。日本語のヒト名詞で一際興味深いのは、「わたし」「おれ」「あなた」「おまえ」など、多数のバリエーションを持つ「人称代名詞」である。「一/二/三人称」と「自/対/他称」、また、「呼称」「呼びかけ語」「対称詞」という、類似した対象を意味する用語も用いられている。対称詞に関しては「呼びかけ用法/言及用法」という語も用いられる。このような用語の乱立にともなって、「呼びかけ語」の明示的な定義は、管見の限り存在していない。(부름어는 기본적으로는 인명사이다. 일본어의 인명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watashi’ ‘ore’ ‘anata’ ‘omae’ 등 다수의 바리에이션을 가지는 ‘인칭대명사’이다. ‘1/2/3 인칭’과 ‘자/대/타칭’ 그리고 ‘호칭’ ‘호칭어’ ‘대칭사’라는 유사한 대상을 의미하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대칭사에 관해서는 ‘부름용법/언급용법’이라는 말도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가 난립함에 따라 ‘부름어’의 명시적 정의는 관견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호칭어의 명칭이 (1)에서는 ‘호격’ (2)에서는 ‘yobikake 문 (필자는 부름어로 썼음)’ (3)에서는 ‘호칭’ (4)에서는 ‘대칭사’로 각각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통사적이나 문법적인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호칭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 2.1. 일본어의 호칭어

일본어 호칭어 연구의 효시가 山田孝雄(1908) 임을 李紫娟(2012)으로 알 수 있다. 또한 李紫娟(2012)는 山田孝雄(1908・1936)를 빌어 일본어 호격<sup>3</sup>의 문법적 성분과 정의에 대해 다음 (1)과 같이 제시하였다.

- (1) 山田 (1908・1936) は最も早い段階で日本語の呼格を取り扱った研究である。そこで、山田 (1908:806) は、日本語の呼格について「呼格とは文中にありて他の語の何等の形式的関係なしに立てるものをいふ。これを呼格と称するはその対象又は対象を呼びかけて指定するによりてなり。」と述べている。(야마다(1908・1936)는 가장 빠른 시기에 일본어의 호격을 다룬 연구이다. 山田(1908:806)는 일본어 호격에 대해 ‘호격이란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와 하등의 형식적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호격이라 칭하는 것은 그 대상 또는 대상자를 불러 지정하기 때문이다’<sup>4</sup>라고 논하였다.)

— 李紫娟 (2012:185)

호격은 문법적으로 ‘문장 안에서 독립적’이며, 기능적으로는 ‘부르고 대답하는데 쓰인다’고 한다. 한편 笹井香(2015)는 호칭어의 기능을 다음 (2)로 정의하고 있다.

- (2) 呼び掛け文の機能は、呼び掛けた対象に働きかけ、その注意を喚起することである。そのため、その言語場には、呼び掛けた対象が聞き手として存在している。(中略) 呼び掛け文として適用される名詞は、呼び掛けた対象の注意を喚起しう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ず、それが発話される言語場においては、話し手から見た関係性において、特定の個人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特徴を持っている。

(부름어<sup>5</sup>의 기능은 부르는 대상에게 작용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언어장<sup>6</sup>에는 부르는 대상이 청자로서 존재한다. (중략) 부름어로서 적용되는 명사는 부르는 대상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발화되는 언어장에서는 화자가 본 관계성에서

<sup>3</sup> 일본어에서 호격은 ‘~や[ya]・~よ[yo]’ 등으로 실현되나 구어에서는 그다지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아/야’ 등으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sup>4</sup> 본고의 인용문에 대한 (한국어 대역)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sup>5</sup> 직역을 하면 호소문이 되겠지만 문맥에 맞추어 부름어(呼びかけ語)로 의역하였다.

<sup>6</sup> 언어가 행해지는 장소, 즉 linguistic field를 말한다.

특정의 개인을 지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笹井香 (2015:17)

즉 화자에 의한 부름이 청자에게 작용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그 언어장에는 화자와 청자의 존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林炫情(2003)에서도 호칭어의 기능을 다음 (3)과 같이 제시하였다.

(3) 一般に呼称には、次のような機能がある。その一つは、発話文中で語られていることが、自己についてか、相手についてか、または第三者についてかを指示する働きである。また、それが呼格的位置で用いられるときには、相互交渉場面で、相手を引き込むための注意喚起機能を持つ。

(일반적으로 호칭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발화문에서 말하는 것이 자기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또는 제 3 자에 대해서인지를 지시하는 작용이다. 그리고 호격 위치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상 장면에서 상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주의 환기 기능을 가진다.)

— 林炫情 (2003:20)

林炫情(2003)에서 정의하는 호칭의 기능은, 자기와 상대방, 그리고 제삼자를 지시하는 작용과 상대에 대한 주의 환기이다. 그러면서 호칭은 각 문화나 사회에 따라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이나 연령, 친소관계 등의 대인적 요인이나 공식·비공식 등과 같은 장면적 요인 등에 의해 부르는 방법과 불리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鈴木孝夫(2021)는 우리가 말을 사용하여 대화를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호칭어에 대한 정의와 용법을 다음 (4)와 같이 제시하였다.

(4) 対称詞とは話の相手に言及する言葉の総称であるが、これにはやや性質の異なった二種の用法が含まれる。第一は呼格的用法(vocative use)と呼ばれるもので、相手の注意を引きたいときや相手に感情的に訴えたい場合などに用いられる。(中略) 第二のタイプは、欧米の一部の人類学者によって代名詞的用法(pronominal use)と呼ばれているもので、ある文の主語または目的語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ことばだが、内容的には相手を指している場合をいう。



(대칭사<sup>7</sup>는 대화의 상대를 언급하는 말의 총칭이다. 여기에는 성질이 약간 다른 두 종류의 용법이 포함된다. 첫째는 호격적 용법(vocative use)이라 불리는 것으로, 상대의 주의를 끌고 싶을 때나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싶은 경우 등에 사용된다. (중략) 둘째 유형은 구미의 일부 인류학자들에 의해 대명사적 용법(pronominal use)이라 불리는 것으로, 어떤 문장의 주어 또는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대를 가리키는 경우를 말한다.)

—鈴木孝夫(2021:146)

호칭이란 화자의 상대, 즉 청자를 가리키는 말의 총칭이며, 용법에는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호격적 용법이고, 또 하나는 대명사적 용법이다.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싶을 때나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호격적 용법이고, 어떤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된 말이 내용적으로 상대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 대명사적 용법이다.

## 2.2. 한국어의 호칭어

호칭어에 대해 사전에서는 다음 (5)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5) 호칭어에는 두 갈래가 있어서, 엄격하게 구별하면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 명호(名號)를 칭호(稱號, 또는 指稱語)라 하고,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부름말을 호칭(呼稱, 또는 呼稱語)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쓰이기도 하고 겹쳐서 쓰이기도 하며, 칭호만 있고 호칭으로는 쓰이지 않는 것도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호칭이라는 말은 호칭어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아우르고 있으며, 호칭어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법과 사람을 부르는 용법이 있는데, 이 둘은 따로 쓰이기도 하고 함께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왕한석(2005)은 Braun(1988:7) 등을 빌어 다음 (6)과 같이 제시하였다.

- (6) 호칭 또는 호칭어(terms of address 또는 forms of address)는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과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words), ‘어구’(phrases), 또는 ‘표현들’(expressions)을 일반적으로

<sup>7</sup>鈴木(1973)의 対称詞(대칭사)는 한국어 호칭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의미한다.

— 왕한석 (2005:17)

즉 호칭어란 ‘화자가 대화 중에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하면서 ‘화자가 대화 중에 가리켜 일컫는 대상을 지시하는 지칭어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춘섭(2010)은 현대국어의 호칭어에 대해 다음 (7)과 같이 정의하였다.

(7) 호칭어는 비교적 단순한 언어 표현이지만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모든 언어 공동체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social interaction)의 핵심적 구성 성분으로 기능한다. 흔히 사용하는 개인의 이름이나 2 인칭 대명사, 친족어 등이 그 대표적인 형태이다.

— 손춘섭 (2010:96)

호칭어는 사회적 관계가 언어적으로 명시되는 수단의 하나로, 언어 공동체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의 핵심적 구성 성분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 (1)-(7)에서 (6)을 제외하면 한일 양국어의 호칭어는 대화에서 화자가 상대방을 부르는 말인 호칭어와 대화에서 자신과 상대방 또는 제 3 자를 가리키는 말인 지칭어를 포함하는 개념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학적 범주가 호격(vocative case)인 점에서도 일치한다. 호격은 문장의 다른 성분들과는 독립적이어서 독립 성분으로 분류되며 호격조사가 붙을 수 있다.

### 2.3. 호칭어의 유형

선행연구에서 호칭어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본고에서도 선행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2.3.1. 일본어 호칭어의 유형 분류

東出朋(2019)는 호칭어에 해당하는 표현을 열거한 세 연구를 들어 어휘 관점에서 호칭어를 분류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호칭어의 의미 분류

<p>今村 (1996)</p>	<p>① 대명사: anata(あなた) kimi(きみ) omae(おまえ)                  ② 동사: oide(おいで) koi(こい) irasshai(いらっしゃい)                  ③ 명사                  a) 개인명                  b) 친족용어명                  c) 경칭: san(さん) sama(さま) kun(くん) chan(ちゃん)                  d) 칭호                  e) 직업명                  f) 애칭                  g)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otonarisan(お隣さん) 선배(先輩)</p>
<p>日向 (1983)</p>	<p>a) 인칭대명사                  b) 이름                  c) 친족호칭                  d) 직위명칭                  e) 직업명칭 등</p>
<p>田窪 (1997)</p>	<p>a) 고유명사: jiro(次郎) jiro-san(次郎さん) tanaka-kun(田中君)                  b) 친족명칭: 아버지(お父さん) 형/오빠(お兄さん)                  c) 직위를 나타내는 말: 과장(課長)                  d) 인칭명사: anata(あなた) kimi(君) omae(おまえ)                  e) 임시적 기술: 거기 노란모자 쓴 사람(その黄色の帽子の人)</p>

— 東出朋(2019:113)

<표 1>의 공통분모로 제시한 유형은 고유명사·친족명칭·직업명사·지위명사·대칭인칭사였다. 본고에서는 田窪(1997)를 빌어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 분류에 접목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 2.3.2.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 분류

陳京愛(2016)에 의한 호칭어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호칭어의 유형 분류

대명사 유형	1인칭	나, 저, 우리 등
	2인칭	너, 저희, 당신 등
	3인칭	그, 그녀, 자기 등
이름 유형	성명, 성, 이름, 애칭 등	
직업 유형	직위, 직책 등	
친족 유형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 호칭	
통칭 유형	기타 일반화하여 사용하는 어휘로 지시대명사를 포함하며, 대명사, 이름, 직업, 친족, 회피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회피 유형	호칭을 피하여 부르거나 가리키는 호칭으로 대명사, 이름, 직업, 친족, 통칭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일본어 호칭어의 유형 분류에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 분류를 접목시켜 보면, ‘고유 명사=이름 유형’ ‘친족 명칭=친족 유형’ ‘직업·직위 명사=직업 유형’ ‘대칭인칭사=대명사 유형’이 된다. 한국어의 통칭 유형과 회피 유형은 〈표 1〉의 공통분모에 들어가지 않은 田窪(1997)의 ‘임시적 기술’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본고에서는 〈표 2〉에 준하여 분석할 것이다.

### 3. 호칭어의 분석 및 고찰

윤미선(2021)은 영화 대사에서 담당하는 호칭어의 역할을 Sarah Kozloff(2000:35-37)와 Pavesi(2008:80)를 빌어 다음 (8)과 같이 제시하였다.

- (8) 영화 대사에서 호칭어는 다양한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그 역할을 부여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인물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호칭어의 역할이 단순히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호칭어는 극중의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잘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서사적인 정보까지 전달하는 서사적 압축(narrative condensation)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윤미선(2021:9)

영화 대사에 사용되는 호칭어는 관객들에게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등장인물에 의한 사건의 진행을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스토리의 정보까지도 전달한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선행연구로 김홍매 외(2002)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음 (9)와 같이 제시하였다.

- (9) 호칭어에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직업, 연령, 교육, 거주지, 문화수준, 상하 관계 및 친소 관계 등이 함축되어 있으며, 대인 관계 형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이 바로 호칭어이다.

— 김홍매 외 (2002:144-145) (필자 일부 변경)

호칭어에는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요소가 함축되어 있는 동시에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언어 표현의 시작이 호칭어라는 것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나이, 신분, 계층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수직적인 상하 관계와 수평적인 친소 관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호칭어가 영화 대사에서 사용된다면, 그것을 자막으로 번역할 때도 호칭어에 함축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의 영화 대사에 출현한 호칭어와 그에 적용된 한국어 자막을 대조·분석하여 한일 양국어의 언어적 특성과 호칭어의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에서 호칭어를 추출하는 기준은 ①일본어 대사에 출현한 호칭어가 복수로 나타날 경우에는 자막에서 다르게 표현된 경우에만 복수로 추출한다. ②대명사 유형에서는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어인 2 인칭 대명사와 화자에 의해 말해지는 대상을 화자가 가리키는 지칭어인 1 인칭과 3 인칭 대명사를 포함시킨다. 그 이유는 일본어 대사에 출현한 인칭대명사가 한국어 자막에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 3.1. 대명사 유형

대명사형 호칭어란 상대방을 부르는 말로 쓰이는 2 인칭 대명사를 말한다. 한일 양국어의 2 인칭 대명사는 청자가 뉘사람일 경우에는 호칭어로 사용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료 안의 **붉은 글씨**는 일본어 대사와 그에 적용된 한국어 자막을 표시한 것이다.

【분석 자료 1】 1인칭 대명사의 분석 자료<sup>8</sup>

No	S	ST	TT
①	보쿠 <sup>9</sup>	<p>それ、秘密を知った  <b>僕</b>への嫌がらせ?                  ……                  そっか…  <b>僕ら</b>仲良くしてるのか…                  ……                  僕は誰とも関わらないことで  <b>自分</b>の領域を守ってきたから。</p>	<p>비밀을 알아버렸다고  <b>넌</b> 괴롭히는 거야?                  ……                  사이 좋게…?  <b>우리</b>가 사이 좋게 지내는 건가                  ……                  남과 관계를 안 맺는 걸로  <b>내</b> 영역을 지켜왔거든</p>
②	사쿠라	<p>じゃあ<b>私</b>、お風呂はいろ〜と。                  お風呂お風呂〜。                  ……  <b>うち</b>のクラスでだれが一番                  かわいいと思う?                  ……                  ひなが一番として  <b>あたし</b>は何番目?                  ……                  君がしてきた選択と、私がしてきた                  選択が<b>私たち</b>を合わせたの。</p>	<p>그럼 <b>넌</b> 목욕할래                  목욕! 목욕!                  ……  <b>우리</b> 반에서 누가 제일                  예쁜 거 같아?                  ……                  히나가 제일 예쁘다면  <b>내</b>는 몇 번째야?                  ……                  네가 해 온 선택과 내가 해 온                  선택이 <b>우릴</b> 만나게 한 거야.</p>
③	쿄쿄	<p>桜良がいなかったら  <b>私</b>は一人だった。</p>	<p>사쿠라가 없었으면  <b>넌</b> 외톨이었을 거야</p>

【분석 결과 1】

영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을 ‘I’라고 하고 상대방을 ‘you’라고 칭한다. 한국어 역시 말하는 사람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상대로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 하나로 매우 제한적이다. 자막에 나타나는 ‘우리’는 ‘나’의 복수형이다.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그 양상이 많이 다르다. 이윤옥(2022:42-4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sup>8</sup> S는 발화자(Speaker)를, ST는 일본어 대사(Source Text)를, TT는 한국어 자막(Target Text)을 나타낸다.

<sup>9</sup> 본고의 분석 자료인 영화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에서는 남자 주인공 이름이 마지막 장면에서야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주인공은 남성어로서의 1인칭 대명사인 보쿠(僕[boku])로 등장한다. 이에 따라 남주인공인 발화자를 ‘보쿠’라 하였다. 1인칭 대명사 보쿠(僕[boku])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윤옥(2022:41-45)을 참조하기 바란다.

일본어의 1 인칭 대명사는 성별은 물론 때와 장소에 따라 용법이 달라진다. 동일한 문법의 1 인칭을 나타내면서 다른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인물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①에서 알 수 있듯이 남주인공 ‘보쿠’는 자신을 가리키는 지칭사로 ‘boku(僕)’와 ‘jibun(自分)’을 사용했다. ‘boku(僕)’는 상대방과 친할 때 사용하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 남자들이 쓰는 표현이다. ‘jibun(自分)’은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되지만 극중에서 남주인공은 성격이 겸허하고 예의바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어 자막에 적용된 ‘나’로는 일본어 특유의 이미지가 희석되긴 하지만 언어적 특성상의 한계로 간주된다.

②와 ③의 두 인물은 극중의 여주인공 ‘사쿠라’와 그의 절친 ‘쿄코’로 여학생이다. 이들이 사용한 지칭사도 ‘watashi(私)’ ‘uchi(うち)’ ‘atashi(あたし)’ ‘watahidachi(私たち)’ 등으로 다양하다. 물론 ‘watahidachi(私たち)’는 ‘watashi(私)’의 복수형이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atashi(あたし)’이다. 이 표현은 여성어로서의 1 인칭 대명사로 ‘watashi(私)’보다 소탈한 말로 정의된다(ibid:43). 또한 ‘atashi(あたし)’는 주로 관동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등, 호칭어에 함축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①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특성상의 이유로 자막에서는 차이를 두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분석 자료 2】 2인칭 대명사의 분석 자료

No	S	ST	TT
①	보쿠	<b>君</b> さ、そういう冗談言ってさ、僕が困ると思わないわけ?	<b>너</b> , 그런 얘길 농담으로 하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②	사쿠라	<b>君</b> 、先生になりなよ。だって教えるのうまいし。	<b>너</b> , 나중에 선생님 해라 가르치는 소질이 있어
③	미야타	よう、志賀。あのさ、 <b>お前</b> なんで上履き捨ててんの。	야, 시가, <b>너</b> 실내화 왜 갖다버렸냐?
④	사쿠라 어머니	<b>あなた</b> だったのね… 自分が死んだら、この日記をある人に渡してほしい	<b>너</b> 였구나 자기가 죽으면 이 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 달라고 했어
⑤	쿄코	あつ… <b>あんた</b> 、なんでいるのよ。	∅ <b>너</b> 왜 여기 있어?

## 【분석 결과 2】

鈴木孝夫(2021:132)는 상대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대화의 상대를 가리키는 말도 언제나 ‘anata(あなた)’ ‘kimi(きみ)’와 같은 인칭대명사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면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현재의 일본어에는 윗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anata-sama(あなたさま)’ 등은 단순한 윗사람이라기보다 그 사람과 친한 교제가 없는 타인을 존중하고 멀리하려는 성격이 짙은 말이며, 자신의 윗사람이라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대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고 지적하였다.

위의 ①-④는 상대를 부르는 호칭어가 아닌 상대를 가리키는 지칭어로서 2 인칭대명사가 사용되었다. 이 경우에도 ‘kimi(きみ)’ ‘omae(お前)’ ‘anata(あなた)’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어의 2 인칭 대명사는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sup>10</sup> 일반적으로 ‘너, 자네, 당신’이다. ‘너’는 청자가 친구이거나 이랫사람일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2 인칭 대명사이고, ‘자네’는 청자가 친구이거나 아랫사람일 경우 그 사람을 대우하여 이르는 2 인칭 대명사이다. 그리고 ‘당신’은 청자를 가리키는 2 인칭 대명사로 하오<sup>11</sup> 할 자리에 사용된다.

①, ②, ③, ⑤의 청자는 모두 친구이므로 ‘너’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지만, ④의 경우는 딸의 남자친구를 대우하여 이르는 말인 ‘자네’를 선택해 친구 관계와 차이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위의 분석 자료에서 유일하게 상대를 부르는 호칭어가 ⑤이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은 ‘anata(あなた)’가 아닌 ‘anta(あんた)’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a(あんた)’는 ‘anata(あなた)’보다 덜 높여 부르는 말로 아주 친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지역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일본의 동쪽 지역에서는 ‘anata(あなた)’보다 ‘거친 말투’로 취급되고, 서쪽 지역에서는 ‘친절한 호칭’으로 취급된다. 교코가 사용한 ‘anta(あんた)’에서는 ‘덜 높여 부르는 말’과 ‘거친 말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anta(あんた)’ 라는 호칭어에서 교코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보쿠’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자막에서는 언어적 특성상의 한계로 호칭어로 알 수 있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관객들은 화자가 청자에게 주는 언어 정보 (억양, 리듬, 포즈, 성질과 같은 언어적 측면)로 교코의 보쿠에 대한 감정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sup>10</sup> 박정운(2005:214-215)에 의하면, Hwang(1975)은 ‘너, 자네, 당신’을, Paic(1974)와 Cho(1982)는 ‘너, 자네, 당신, 그대, 자기, 임자, 닥, 어른, 어르신’을, 박정운(1997)은 ‘너, 자네, 자기, 당신’을 각각 2 인칭 대명사로 인정하고 있다.

<sup>11</sup> 주로 친밀한 관계의 윗어른에게 존대를 할 때 쓰는 말투를 말한다.



【분석 자료 3】 3 인칭 대명사의 분석 자료

No	S	ST	TT
①	보쿠	彼女、しつこい人間は嫌いらしいよ。前の彼氏がそうだったって。 …… 彼女は以前から世間を騒がせていた通り魔事件に巻き込まれていた	개는 치근덕거리는 인간 싫어한대 전 남친이 그랬다지 …… 사쿠라 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묻지마 살인’의 희생이 되었지만
②	사쿠라	もっと彼のことを知りたい。 彼の顔を見たらほっとして。	그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 그 애 얼굴을 보니 마음이 풀리고
③	미야타	あいつもずーっと騒ぎっぱなしだし。 恋人取られたみたいにさ。	쿄쿄도 뽀루통하고 말야  애인 빼앗긴 사람처럼
④	쿄쿄	は?! 何言ってるの? 博多? あいつと?	뭐라고? 뭘 소리야? 하카타? 그놈하고?

【분석 결과 3】

3 인칭 대명사로는 ‘kanojo(彼女), kareshi(彼氏), kare(彼), aitsu(あいつ)’가 출현되었다. ‘kanojo(彼女), kare(彼)’의 자막으로는 ‘개, 그 아이, 그애’가 적용되었다. ‘개·그애’는 ‘그 아이’의 준말이므로 같은 표현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또래의 반 친구라는 관계를 감안하면 ‘그녀’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이라 하겠다. ‘kareshi(彼氏)’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의 준말이기도 하지만 연인 관계를 나타내는 ‘남친’이라는 단어를 적용시켜 극중의 이미지를 살렸다고 하겠다. ‘aitsu(あいつ)’에 대해서는 ‘쿄쿄’라는 고유명사와 ‘그 아이’를 비속하게 이르는 3 인칭 대명사 ‘그놈’이 각각 적용되어 있다. 남학생 미야타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반 친구 여학생을 이르는 장면에서는 쿄쿄의 이름을 선택했고, 같은 반 친구지만 ‘보쿠’에 대한 쿄쿄의 개인적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비속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3.2. 이름 유형

일본에서는 성(姓)이 이름(名)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호칭에서는 ‘성-san(さん)’을 사용한다. 이 ‘-san(さん)’이 한국어 매체로 들어올 때 ‘-씨’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른 번역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물론 ‘-san(さん)’과 ‘-씨’의 기능이 비슷한 영역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두 의미는 많이 다르다. ‘-san(さん)’은 한국어의 ‘-씨’보다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가지는 점에서

다르다. 두 호칭 모두 화자와 청자 사이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용도가 일정 부분 있긴 하지만 한국어의 ‘-씨’는 존경보다는 거리감에 무게가 실리고, 일본어의 ‘-san(さん)’은 거리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존경과 존중의 의미가 거리감보다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성+씨’로 부르는 건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닐 경우에는 상당히 실례가 되는 용법이다.

한일 호칭어 접미사 ‘-san(さん)’ 과 ‘-씨’ 그리고 ‘-sama(さま)’와 ‘-님’의 기능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san(さん)/-씨’ 와 ‘-sama(さま)/-님’의 기능

기능	-san(さん)	-씨	-sama(さま)	-님
상대방을 높인다	○	○	○	○
상대방과 동등하다	○	○	φ	φ
상대방을 낮춘다	φ	○	φ	φ
상대방을 조금 높인다	φ	φ	φ	○

φ:기능이 없음을 나타낸다.

일본어와 달리 한국어는 호칭어로 ‘이름’이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름’에 호격조사 ‘-아/야’나 접미사 ‘-씨, -군/양’ 등을 붙여 사용한다. 일본어에서 일반적인 ‘성-님(苗字+様)’의 유형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성명-님(氏名+様)’의 유형도 편지와 같은 문어체에서 사용될 뿐, 일상의 대화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석 자료 4】 이름 호칭어의 분석 자료

No	S	ST	TT
①	사쿠라	いつかきつと説明する。 だから納得できなくても今は許してほしいの。お願い、 <b>恭子</b> 。	언젠가는 다 설명할게.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용서해 줘 부탁이야, <b>쿄코</b>
②	미야타	よう、 <b>志賀!</b> お前 <b>山内桜良</b> と付き合ってるの?	야, <b>시가!</b> 너 <b>사쿠라</b> 하고 사귀냐?
③	쿄코	<b>桜良</b> 、今どこにいのよ。	<b>사쿠라</b> 、너 지금 어디야?
④	반장	あれ、 <b>山内さん</b> は? プリント渡そうと思って。 .....	<b>사쿠라</b> 는 어딴어? 프린트한 거 주려고 왔는데 .....

		<b>桜良</b> 、 どうしてそんな奴…。	<b>사쿠라</b> 너 왜 저런 놈을 …
⑤	여성	<b>恭子ちゃん</b> 、もうすぐ結婚式でしょ。	<b>쿄코</b> 결혼식 얼마 안 남았지?
⑥	학생	だって、 <b>桜良さん</b> が悲しむよ。	그만두시면 <b>사쿠라 씨</b> 가 슬퍼할 거예요.
⑦	뉴스	桐岡市の歩道で市内の高校生 <b>山内桜良さん</b> が何者かに包丁のような刃物で刺されて死亡しました。 血を流して倒れている <b>山内さん</b> を発見。	키리오카시 거리에서 여고생 <b>아마우치 사쿠라 양</b> 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아마우치 양</b> 을 발견
⑧	편지	<b>恭子</b> 、これは私の遺書です。 …… 拝啓 <b>志賀春樹くん</b> 。ようやくこれを見つめましたね。遅い遅い!	<b>쿄코</b> 이걸 내 유서란다. …… ∅ <b>시가 하루키 님</b> 。드디어 편지를 발견했구나 늦어, 너무 늦어!

**【분석 결과 4】**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어의 호칭어에서 ‘이름’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름’에 호격조사 ‘-아/야’나 접미사 ‘-씨, -군/양’ 등을 붙여 사용한다. 그러나 ①의 ‘恭子 vs 쿄코’와 ③-④ ‘桜良 vs 사쿠라’의 자막에서는 이름이 단독으로 적용되어 있다. 조사나 접미사를 붙이지 않고 번역한 자막은 원작의 간접으로 볼 수 있지만, 일본인들 사이에 상대방을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친한 사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관객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번역이라 하겠다. ②의 ‘志賀 vs 시가’는 원작의 간접이라기 보다는 원작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극중에서는 의도적으로 남주인공 ‘보쿠’의 이름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성’만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없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서 ‘성’이 갖고 있는 기능이 다르기도 하지만, 특정의 다섯 성씨(김, 이, 박, 최, 정)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는 10 만 이상의 성씨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에서 ‘성’으로 호칭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과 같은 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②의 ‘山内桜良 vs 사쿠라’는 호칭어로 알 수 있는 둘의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반 친구를 풀 네임으로 부르거나 지칭할 때는 친한 사이가 아님을

엇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런데 자막에서는 이름만을 적용해 ‘같은 반 친구라도 친한 사이가 아니면 이름만으로 부르지 않는 일본의 문화를 관객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④의 ‘山内さん vs 사쿠라’에서는 ‘-san (さん)’을 사용함으로써 사쿠라에 대한 반장의 개인적 심리, 즉 존중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살리는 동시에 호칭어에 함축되어 있는 요소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막 표현에 차이를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⑤의 ‘恭子ちゃん vs 료코’는 호칭어에 이름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번역이라 하겠다. 등장인물의 친분 관계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호격조사나 접미사를 붙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⑥의 ‘桜良さん vs 사쿠라 씨’는 일본어의 ‘-san (さん)’이 한국어 매체로 들어올 때 ‘-씨’로 번역되는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san (さん)’과 ‘-씨’의 기능이 비슷한 개념으로 쓰여질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존칭에서 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의 반 친구였던 윗사람을 칭하는 장면에서는 ‘-님’이라는 경칭의 접미사를 붙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⑦의 뉴스에 대한 자막에서는 일대일 대응으로 한일 양국어의 이미지가 맞아떨어진 경우라 하겠다.

⑧의 ‘恭子 vs 료코’와 ‘志賀春樹くん vs 시가 하루키 님’은 편지 서두에 사용된 표현이다. 전자의 경우는 격조사 ‘에게’를 붙여 ‘료코에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후자의 경우는 적절한 한국어의 경칭이 적용되었다고 본다.

### 3.2. 직업 유형

한국에서 직함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존칭의 접미사 ‘-님’이 직함에 붙어 호칭어를 형성한다. 박정운(왕한석 외 2005:79)은 ‘직함-님’은 청자를 높이는 호칭형으로 전형적으로 윗사람에게만 사용하며, 동급청자에게 사용될 때도 상대방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반면에, 아랫사람에게 사용한다면 청자를 대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일본어 ‘sensei(先生)’와 한국어 ‘선생님’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9)-(10)과 같다.

#### (9) せん・せい【先生】

②学徳のすぐれた人。自分が師事する人。また、その人に対する敬称。

(학덕이 뛰어난 사람. 자기가 사사하는 사람. 또 그 사람에 대한 경칭.)

— 『広辞苑』 (밑줄 필자)

(10) 선생님

1. ‘선생’을 높여 이르는 말

— 『표준국어대사전』

일본어 ‘sensei(先生)’에는 한국어의 높임 접미사 ‘-님’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자료 5】 직함 호칭어의 분석 자료

No	S	ST	TT
①	교사	志賀先生、ちょっといいですか？ ..... 手伝いの図書委員もいますから大丈夫ですよ、ね？	시가 선생님! 잠시만요 ..... 도서위원 학생들도 도울 거니 괜찮아요
②	반장	もしなんかあったら言ってよ。 これでも一応クラス委員長だし。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이래 봐도 내가 반장이잖아
③	학생	先生、おはようございます。	선생님, 안녕하세요

【분석 결과 5】

①과 ③의 ‘先生 vs 선생님’은 (9)-(10)의 사전적 정의에 준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성’만으로 호칭어가 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성+ 직함’은 일반적으로 일본어와 같다. 그리고 ‘図書委員 vs 도서위원’은 원작의 간섭을 피하지 못한 번역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한국 고등학교의 동아리는 크게 일반 동아리와 상설 동아리, 그리고 교과 동아리로 나누어진다. 동아리의 대부분은 이름만 다른 자습부로 통일된 모습을 보였으나 수시의 비중이 커지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하며 폐부의 위험이 없는 방송부, 도서부, 학생부가 대표적인 상설 동아리이고, 그 외에도 학교에 따라 밴드부나 신문부 등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도서위원’이 아닌 ‘도서부원’이 적절한 자막이 될 것이다.

②의 ‘クラス委員長 vs 반장’은 적절한 자막으로 간주된다. 동시에 관객들은 한국과 일본의 학교 용어의 차이를 서브컬처라는 매체를 통해 배우게 된다.

3.3. 친족 유형

陳京愛(2016:143)는 ‘친족 유형이란, 한일 양국 모두 민법에 의한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 호칭으로 친족 관계의 친족을 ‘친족’, 친족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사용하는 친족 명칭을 ‘친족화’, 친족이거나 아니거나 모두 자녀의 이름으로 호칭되는 것은 ‘종자명’이라 하였다. 이에 따르면 본고의 분석 자료에 출현한 친족 호칭어는 친족화에 해당한다.

【분석 자료 6】 친족 호칭어 분석 자료

No	S	ST	TT
①	쿄코	桜良、今どこにいのよ。私んちに泊まるって嘘ついたでしょ。 <b>お母さん</b> から電話があったんだからね。	사쿠라, 너 지금 어디야? 우리 집에서 잔다고 뺏겼지? <b>네 엄마</b> 전화 왔었어
②	보쿠	<b>お母さん</b> 、お門間違いなことはわかっています。でも…	<b>어머니</b> 이러면 안 되는 거 압니다만…

【분석 결과 6】

본고의 분석 자료에는 친족 호칭어는 두 번 출현하였다. ①은 친구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이고, ②는 친구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어이다. 여기서 ‘お母さん’을 ‘엄마’와 ‘어머니’로 자막에 차이를 둔 것은 등장인물 간의 친소관계를 고려한 결과라고 하겠다. 사쿠라의 절친인 쿄코의 표현에 ‘엄마’를 선택한 것은 ‘어머니’보다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이르는 말이 ‘엄마’이기 때문이다.

3.4. 통칭 유형

<표 2> 호칭어 유형 분류에서 대명사, 이름, 직업, 친족, 회피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호칭을 통칭 유형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분석 자료 7】 통칭 호칭어의 분석 자료

No	S	ST	TT
①	사쿠라	そう思ってるからそうなるんだよ。 <b>地味なクラスメイト君!</b> …… <b>そっち</b> こそやりたいことしなくていいの? ……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b>따분한 클래스메이트</b> …… <b>너</b> 야말로 하고 싶은 일 안 해도 돼? ……

		ねえ、 <b>仲良し君</b> 、洗顔クリームと って！ …… <b>そっち</b> のミスだからって予約して た部屋より断然いい部屋用意して	야, <b>친한 사이 소년!</b> 세안제 좀 갖다 줘 …… <b>자기들</b> 실수라고 예약한 방보다 훨씬 좋은 방으로 준비해 준대
②	보쿠	え？ <b>そっち</b> こそどうなの？	뭐？ <b>너</b> 는 어떤데？
③	쿄코	ちよっと、 <b>そこの疫病神!</b> 桜良、盲腸で入院だって。 …… なんてこんなタイミングに… もう、 <b>バカ</b>	야, 너! <b>재수 없는 놈!</b> 사쿠라는 맹장으로 입원했대 …… 왜 이런 타이밍에… <b>바보</b>
④	반장	桜良、 どうして <b>そんな奴</b> …	사쿠라 너 왜 <b>저런 놈</b> 을…

【분석 결과 7】

①의 ‘地味なクラスメート君’과 ‘仲良し君’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다. 영화에서 여주인공 사쿠라는 남주인공 ‘보쿠’에게 ‘또래나 아랫사람의 성이나 이름에 붙여 친근감이나 가벼운 경의를 표하는 접미사 ‘-kun(君)’을 붙여 부른다. 한국어 자막 또한 ‘따분한 친구야’라든가 ‘친한 친구야’로 번역할 수 있었겠지만 원작의 의도와 내막을 파악한 번역가의 선택 또는 재량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전개는 남주인공 ‘보쿠’의 실명을 끝까지 감추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이름이 스토리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sup>12</sup>.

①에서 사쿠라가 사용한 ‘そっち vs 너’와 ‘そっち vs 자기들’, 그리고 ②에서 보쿠가 사용한 ‘そっち vs 너’를 살펴보면 일본어 대사에서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는데 비해 한국어 자막에서는 인칭대명사를 적용시킨 점이 특이하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일본어 호칭어의 사회·문화적 요소는 ‘옛부터 일본인들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예들러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한국어 자막에서는 애매한(ambiguous) 표현을 적용시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과 ④에서 사용한 ‘そこの疫病神 vs 재수 없는 놈’ ‘바카 vs 바보’ ‘そんな奴 vs 저런 놈’은 비칭을 사용한 자막이다. 陳京愛(2006:146)에 의하면 ‘통칭 유형의

<sup>12</sup> 주인공의 이름이 스토리의 열쇠가 된다는 것은, 두 주인공의 이름이 하나라는 것이다. 남주인공 ‘보쿠’의 실제 이름 Haruki(春樹)를 풀이하면 ‘봄의 나무’가 되는데, 여주인공 Sakura(桜(良))는 일본의 봄을 상징하는 ‘벚나무’이기 때문이다.

특징으로 비칭의 사용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윤옥(2020:37)에서는 '자막 번역에서 적절하게 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관객들에게 유머와 즐거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 3.5. 회피 유형

<표 2> 호칭어의 유형 분류에서 대명사, 이름, 직업, 친족, 통칭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호칭을 회피 유형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안면은 있지만 이름을 모를 때, 또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호칭어 선택을 망설이거나 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호의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호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회피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분석 자료 8】 회피 호칭어의 분석 자료

No	S	ST	TT
①	료코	<b>ねえ</b> 、今誰に手振ってたの？ …… <b>ちよっと</b> 、そこの疫病神！ 桜良、盲腸で入院だって。	<b>0</b> 지금 누구한테 손 흔들었어？ …… <b>아, 너!</b> 재수없는 놈! 사쿠라는 맹장으로 입원했대
②	사쿠라	<b>ほら</b> 、最近このあたりで通り魔事件もあるし。 …… どうせいつかは皆死ぬんだし。 <b>ほら</b> 、天国で会おうよ！ …… <b>あのさ</b> 、ちょっと手違いがあったみたいでさ、 …… <b>ねえ</b> 、仲良し君、洗顔クリームとって！ <b>ねえ</b> 、今から病院抜け出して、旅行に行かない？	<b>0</b> 요즘 ‘묻지마 폭행’도 많고 말야 …… 어차피 언젠가는 다들 죽어 <b>우리</b> 친국에서 만나자 …… <b>있잖아</b> 약간 실수가 있었나 봐 …… <b>아</b> ‘친한 사이 소년’! 세안제 좀 갖다 줘 <b>0</b> 지금 병원 도망쳐서 여행 갈까?
③	보쿠	<b>ねえ</b> わざとやってない？ ……	<b>너</b> 일부러 그런 거 아냐？ ……



		<b>あの</b> …お話があるんです。	<b>어머니</b>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p><b>㉠</b>는 자막이 생략되어 있음을 나타낸다.</p>			

**【분석 결과 8】**

①의 ‘ねえ’와 ‘ちょっと’는 ‘상대를 불러 주의를 기울이게 할 때나 가볍게 부를 때 쓰는 말’이다<sup>13</sup>. ‘ねえ’에 대한 자막은 생략되었지만, ‘ちょっと’에 적용된 자막은 ‘보쿠’에 대한 비호감적인 교묘의 심리를 살린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②의 ‘ほら’는 ‘갑자기 주의를 제촉할 때 쓰는 말’인데 자막에서는 생략을 하거나 문맥에 맞추어 ‘우리’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 ‘あのさ’는 ‘친한 상대에게 말을 걸 때 주의를 기울이게 하거나 말의 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말의 틈을 만들고 싶어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적용된 자막도 ‘있잖아’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ねえ’에 대해서는 화자의 심적 태도를 표명하는 ‘야’를 선택한 것은 사쿠라의 어색하고 축스러운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간주된다.

③의 ‘ねえ vs 너’와 ‘あの vs 어머니’는 ‘통칭 유형’에서 살펴본 한일 양국어의 호칭어에 함축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는 일본어의 특성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한국어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4. 나오기**

한일 양국어의 호칭어는 상대방을 부르는 말인 호칭어와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인 지칭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같은 개념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언어학적 범주도 호격(vocative case)인 점에서 일치하였다. 또한 호칭어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 유형이 다양하고 선택에도 많은 요소가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호칭어는 대인 관계의 형성에 있어 기본적인 언어 표현인 동시에 어떤 호칭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친밀함과 소원함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영상작품을 감상할 때 등장인물 간의 사회적 관계나 개인적 친분 관계를 파악하려면 호칭어와 그 호칭어의 변화에 대해서도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호칭어에는 사회·문화적인 다양한 요소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번역으로 인해 작품에

<sup>13</sup> 이윤옥 (2021) 참조

대한 해석을 그르치게 하거나 관객들에게 작품의 의도를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 영화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의 일본어 대사에 출현한 호칭어와 그에 적용된 한국어 자막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호칭어의 정의와 기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호칭어 유형의 분류기준에 준하여 대명사, 이름, 직업, 친족, 통칭, 회피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일본어 대사와 한국어 자막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서 ‘대명사 유형’에서는 언어적 특성상의 한계로 인해 일본어 특유의 이미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많았다. ‘이름 유형’에서는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원작의 의도로 인해 ‘성’만으로 호칭할 수 없는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자막을 원작의 간접으로 분석하였다. ‘직업 유형’에서는 한일 양국어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학교 용어의 차이를 서브컬처라는 매체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친족 유형’에서는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어가 출현했는데, 등장인물 간의 친소관계를 고려한 자막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칭 유형’에서 특이한 점은 일본어 대사에 출현한 지시대명사가 한국어 자막에서는 인칭대명사를 적용시킨 것과 비칭을 사용한 것이었다. ‘회피 유형’에서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었으며 한일 양국어의 특성도 잘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윤옥(2020, 2021, 2022)의 시리즈 연구의 마지막임을 밝히는 동시에 분석 대상이 일본 영화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라는 한정된 텍스트라는 제한성이 있었다. 그러나 영화 대사와 그에 적용된 자막을 대조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문화 요소’ ‘필러’ ‘역할어’ ‘호칭어’에 대해 개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鈴木孝夫 (2021) 『ことばと文化』 岩波新書。  
 松本克己 (2011) 『世界言語の人称代名詞とその系薄—人類言語史5万年の足跡—』 三省堂。  
 왕한석 외 (2005) 『한국 사회와 호칭어』 역락。  
 이익섭 (2016) 『국어학 개설』 학연사。  
 笹井香 (2015) 「呼び掛け文」 関西学院大学リポジトリ 『日本文藝研究』 第66巻2号 (pp. 3-29)。  
 杉井潤子・林逸歩 (2018) 「京都市立小学校における「さんさん付け」呼称の導入実態 京都教育大学教育実践研究『紀要』 第18号 (pp. 223-232)。

- 宋有宰 (2003) 「日本語と韓国語の呼称表現の対照研究」 金沢大学大学院社会環境科学研究科博士論文要旨 (pp. 16-22).
- 橘広司 (2010) 「日本人における「苗字の重視」と英語教科書に見る呼称の問題—「初対面」の場を中心に—」 『言語教育研究』 創刊号 (pp. 67-78).
- 東出朋 (2019) 「呼びかけ語をめぐる諸問題の検討と定義の提案」 『日本文化學報』 第 82 輯 (pp. 103-121).
- 李紫娟 (2012) 「一語文としての呼びかけ語」 岡山大学大学院社会研究科 『紀要』 第 33 号 (pp. 185-204).
- 林炫情 (2003) 「非親族への呼称使用に関する日韓対称研究」 『社会言語科学』 第 5 卷第 2 号 (pp. 20-32).
- 陳京愛 (2016) 「한국과 일본의 소설 및 그 번역에서 나타난 呼稱 비교 연구」 『日本語教育研究』 第 34 輯 (pp. 131-150).
- 김홍매 · 김광수 (2022)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교재의 호칭어 사용 실태—본문 대화문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 12 권 1 호 (pp. 143-167).
- 박정운 (1997) 「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제 5 권 2 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 507-521).
- 박철우 (2020) 「한국어 호칭어 체계와 호칭의 전략적 사용에 대하여」 『사회적 맥락에서의 언어학 연구』 2020 년 여름학술대회 발표집 (pp. 99-120).
- 손춘섭 (2010) 「현대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33 (pp. 95-129).
- 윤미선 (2021) 「한국 영화 영어 더빙본의 호칭어 번역 연구」 『국어어문』 제 91 집 (pp. 7-28).
- 이윤옥 (2020) 「일본 영화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의 한국어 자막에 나타나는 이문화 요소」 近畿大学国際学部紀要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o 5 (pp. 19-41).
- (2021) 「한·일 자막 번역에 나타나는 필러의 대조언어학적 연구—일본 영화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를 대상으로—」 近畿大学国際学部紀要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o 6 (pp. 35-57).
- (2022) 「한·일 자막 번역에 나타나는 역할어의 대조언어학적 연구—일본 영화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를 대상으로—」 近畿大学国際学部紀要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o 7 (pp. 33-49).
- 新村出 (1998) 『広辞苑』 第 5 版、岩波書店.
- 국어국립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웅진출판.



難民主導組織（Refuge-led Organization）が  
レジリエンス促進にもたらす可能性：  
ウガンダの事例から

The Potential of Refugee-led Organizations in Promoting Resilience  
A Case Study from Uganda

桑 名 恵（Megumi Kuwana）\*

**ABSTRACT:** In East Africa, Refugee-led Organizations（RLOs） play a crucial role in addressing the needs of their communities. In recent years, the strateg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supporting refugees have shifted from humanitarian aid based on "care and management" to a focus on "self-reliance and resilience."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emphasizing refugees' self-help as agents may expose individuals to excessive risks and mak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unclear.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RLOs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resilience" and the potential they may have to mitigate the challenges of "resilience humanitarianism." Using Uganda as a case study, I analyze the relevant literature and interviews. As a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it became clear that RLOs have the potential to address some of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resilience paradigm" by fostering community-based support, building informal networks, and advocating for the needs and rights of refugees. In the process of funding and policymak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clearly position RLOs within the humanitarian aid system and ensur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protection and assistance.

**KEYWORDS:** 難民政策、Refugee-led Organization（RLO）、人道支援、ウガンダ

## はじめに

東アフリカにおいて、難民主導組織（Refugee-led Organization：RLO）はコミュニティのニーズの充足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Getachew *et.al.*, 2022: 2）。RLOとは、「強制移住の経験を持つ人々が主要なリーダーシップを担い、その目的と

\* Professor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E-mail: kuwana@intl.kindai.ac.jp

活動が難民や関連コミュニティのニーズの対応に焦点を当てた組織やグループ<sup>1</sup>を指す (UNHCR, 2023a: 1)。ケニアとウガンダの2カ国で、RLOの調査を行ったピンコック等 (Pincock *et.al.*, 2020a) は、難民は受動的な援助の受け手であるだけでなく、自らの問題について様々な働きかけができること、また RLO が公式な組織や非公式なネットワークを通じて、国連や NGO などが供給できないサービスを補完し、脆弱性の高い難民に対する保護と支援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担っ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特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パンデミック時に、外部者による現地の出入りが制限されたため、RLO は保健衛生や教育、保護に関わるサービスなどを提供し、その存在感を高めた (Alberghini, 2020)。

近年の国際社会の難民支援戦略は、「ケアと管理」に基づく人道支援から、「自立とレジリエンス型」の難民支援へと移行している。Ilcan と Rygiel (2015: 347) は、この動向を「レジリエンス人道主義 (Resilience Humanitarianism)」と表現し、難民を一時的な場所で暮らす援助の受け手という認識から、長期的な居住者として新しいコミュニティを形成しながら、将来に対して責任を持ちながら自立した起業家としての主体に再定義するという新自由主義的な傾向を指摘している。そして、主体としての難民の自助を強調することで、個人にリスクを過剰に負わせることや、保護と庇護に関する国際社会の責任の所在が不明確になることにも言及している (Oliver and Boyle, 2020: 1122)。

本論文では、RLO が「レジリエンス」の促進にどのような貢献ができるのか、「レジリエンス人道主義」が持つ課題をどのように軽減する可能性を持っているのかについて考察する。事例には、長年難民を受け入れ、国際政策の変容とともにその対応を行ってきたウガンダを取り上げ、関連する文献及び現地でのインタビュー調査を基に分析を行う。

## 第2節 ウガンダの難民受け入れ政策と国際的動向

ウガンダでは、2023年4月末時点で、約150万人の難民が居住している<sup>2</sup>。南スーダン (57%)、コンゴ民主主義共和国 (32%)、ソマリア (4%)、ブルンジ、エリトリア、ルワンダなどの隣国から避難してきた難民がウガンダで暮らしている (UNHCR, 2023b: 4)。2021年末時点では、世界で5番目、アフリカでは最大の難民受け入れ国となっている (UNHCR 2022: 2)。特に2016年末から2018年中頃にかけて、南スー

<sup>1</sup> 本定義は、難民、国内避難民や無国籍者、NGO、学者を含む30以上の組織が参加しているカールトン大学主催の Local Engagement Refugee Response Network (LERRN) によってまとめられた (UNHCR, 2023a: 1)。

<sup>2</sup> Uganda Comprehensive Refugee Portal, available at <https://data.unhcr.org/en/country/uga> (Accessed 20/04/2023)

ダン、コンゴ民主共和国、ソマリアから 95 万を超えるウガンダ史上最多の難民が流入した (UNHCR 2018a: 2)。

現在のウガンダの難民政策は寛容で知られ、世界的にも高く評価されている。ウガンダでは、難民の多くは難民キャンプではなく、難民居住地 (Refugee Settlement) で受け入れられている。ウガンダ政府は、難民に土地や教育・就労サービスなどを提供し、移動や就労の権利を認めている (UNHCR, 2018a: 3)。しかし、ウガンダの難民政策は、最初から開放的であったわけではない。1960 年当初に制定された難民取締法のもとでは、難民を管理し、取り締まる方針が施行されていた。次第に、1990 年代以降、「ケアと管理」に焦点を当てた政策から、「難民の自立促進」と国家開発計画への統合の方針へと移行してきた。このようなウガンダの難民政策の変容は、国際的な動向の影響を受けてきた。

冷戦終了後、内戦が複雑化、長期化し、難民発生国での緊急事態に終わりが見えず、ホスト国の長期滞在難民を受け入れる負担を軽減する議論が活発化した。ウガンダ政府は、1999 年、国連難民高等弁務官事務所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とともに、西ナイル地方を対象に、難民およびホスト社会の自立化、サービスの一体化を目的とした自立戦略 (Self-Reliance Strategy for Refugee Hosting Areas of Moyo, Adjumani and Arua Districts of Northern Uganda :SRS) を策定した。4 年間のプログラムで、2 年後には難民が食糧支援に依存せず、4 年後には難民サービスをウガンダ人向けの公共サービスに一元化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た (Government of Uganda and UNHCR, 2004: 3)。SRS はホスト社会における雇用拡大とインフラ拡充などの一定の効果をもたらした (Government of Uganda and UNHCR, 2004: vi, v)。一方で、Ilican 等 (2015) のナキバレ難民居住地でのフィールドワークに基づいた研究によると、農村部・遠隔地での移動の制限により、実際には難民が主要な経済活動や政治活動から遠ざかり、自立が妨げられた。また、ウガンダ政府や国際社会からの支援が限られた中で、難民個人に責任が重くのしかかる傾向も生まれた。村橋 (2021: 159) は、様々な研究結果を分析し、SRS が、難民を開発プログラムの一員として参加を促したものの、難民の声を抑圧したまま、集合体として難民の存在を外部に示すことで、ドナーや国連機関からの資金と資源を集めた実態とその弊害を指摘している。

2005 年以降、SRS は、ウガンダ全域に拡大された「難民への開発支援 (Development Assistance for Refugees: DAR)」に継承されることになった。DAR (第 1 期 2005-2008 年、第 2 期 2009-2014 年) は、難民支援を開発の文脈に位置付け、難民居住地への公共サービス提供を地方政府の開発計画に含めることを目指した (Government of Uganda and UNHCR, 2004: 36)。また、この間、課題とされていた難民に関わる国内法が改訂された。2006 年に現行の難民法、及び 2010 年にその運用規則である難民規則が制定され、移動の自由、就労の権利、土地へのアクセス、財産所有権、ウガンダ国

民向けの公共サービスへのアクセスなどが認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

その後、難民政策を国家的な法的枠組の中で位置付ける動きが進んだ。2015年にウガンダ政府が新たに導入した「難民居住地改革政策（Settlement Transformation Agenda: STA）」は、ウガンダの国家開発計画 II（NDPII：2015-2020年）に組み込まれ、難民を国家開発計画に統合し、ホスト社会に住む難民とウガンダの国民の両方のニーズに対応するという包括的な対応策の実現を目指した。このような政策に応じて、国連機関や世界銀行も、難民とホスト社会の支援枠組み（Refugee and Host Population Empowerment: ReHoPE）を立ち上げ、関連機関による数々のプロジェクトが施行された（UNHCR, 2018a: 4）。

さらに、ウガンダの難民政策は、2015年から始まったシリア等から近隣国やヨーロッパ諸国への大規模な難民流出の動向による国際社会の対応方針の影響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国連は、2016年、「難民と移民の大規模な移動に関する国連サミット」を開催し、国連加盟国は「難民と移民のためのニューヨーク宣言」を採択した。同宣言では、難民の保護と受け入れ国の支援は世界各国で協力して対応すべき責任であることなどが確認された。また、同宣言の付属書として制定された「包括的難民対応枠組み（Comprehensive Refugee Response Framework: CRRF）」は、受け入れ国の負担軽減、難民の自立の促進、第三国定住を含めた恒久的解決方法の拡大、自発的帰還に向けた環境整備の4つの目標を掲げた。その実践においては、多様なステイクホルダーが関わる体制や、人道支援と開発支援の連携などが強調された（UNHCR, 2018a）。

UNHCRは、先駆的な難民支援を進めている十数か国をCRRFのパイロット国に選び、アフリカでは、ウガンダを含む7か国が同意した（UNHCR, 2018a）。その具体的な行動計画は、2018年12月に「難民に関するグローバル・コンパクト」として国連総会で採択された（United Nations, 2018）。こうした動向を受けて、ウガンダのSTAとReHoPEは、ウガンダで実践されるCRRFと連携することになった。折しも、この時期、ウガンダでは、南スーダンやコンゴ民主共和国の武力衝突等により大規模な難民が流入し、ウガンダの難民対応モデルが試されることにもなった。

ウガンダにおけるCRRFのレビュー報告書（UNHCR, 2018a）によると、ウガンダの難民対応モデルは、緊急的な大規模な難民流入の対応にも機能した。CRRFは国内外の関係者の連携を強化し、人道支援と開発分野の協力を促進することに貢献した。また、難民を国家開発計画に組み込み、各分野の包括的な対応計画策定を促し、国民と難民双方に利益をもたらした。さらに、国際社会の難民受け入れ地域への関心を高めるというインパクトをもたらし、多くの国が難民対応に追加資金を拠出するという成果をあげた。課題としては、長期的なレジリエンスを高めるための方策である。透明な資金追跡システムやコミュニティ参加の促進、また保護と持続可能な解決策をもたらすために、社会全体のアプローチで貧困や脆弱性の根本原因に働きかける必



要性が挙げられている。特に、ウガンダの開放的な難民政策と開発志向モデルの維持は挑戦であり、継続的な国際支援が必要不可欠であることが明言されている。

ウガンダ政府における、難民の自立と保護を促進する方針は、NDPII、STA の次期の方針である NDPIII (2020-2024)、STAI (2022-2027) でも継続されている<sup>3</sup>。

### 第3節 「レジリエンス」へのパラダイム転換

第2節で挙げた STA や CRRF の核の概念となっているのは、「レジリエンス」に基づく考え方である。2010 年以降、難民支援戦略では、「自立」に加え、「レジリエンス」の概念が頻繁に取り入れられるようになった(村橋, 2021: 160)。「レジリエンス」とは、国連の定義によると、「個人、世帯、コミュニティ、都市、機関、システム、社会が、予防、抵抗、吸収、適応、対応、回復を積極的、効率的に行う能力」とされる(United Nations, 2020: 11)。2004 年の兵庫行動枠組みなど、いち早く災害支援の分野で、強調されるようになった。

人道支援の文脈においても、危機の長期化の傾向が強まる中、Hilhorst (2018) が、「レジリエンス」を重視するパラダイムへの転換を分析している。従来の人道支援の形として重視されたのは、人道原則を基盤とし、平時とは違う危機対応として、迅速に人命救助や人々の苦痛を和らげるための特別な支援である。社会のネットワークから隔離された難民キャンプでの支援に見られるように、国連や NGO を中心とした外部からの支援が一時的なつなぎとして、平時とは別の対応システムの中で支援が行われ、その結果、現地アクターがその仕組みの外に置かれる傾向が生まれた。一方、「レジリエンス・パラダイム」は、人道危機を平時の社会構造から引き起こされる「新しい日常(ニューノーマル)」と捉え、危機の中にある人々や社会は、危機や災害をばねにして立ち直り、困難に適合できる能力があるという考えに基づいている(Hilhorst, 2018: 3-5)。

上記の「レジリエンス」論では、第一に、自由主義的なパラダイムで適用された、外部主導のある処方箋に沿った方策ではなく、現地社会の自律的な社会のあり方、問題解決能力が強調されている(Chandler, 2015: 2)。第二に、社会システム全体を意識することを重視している。複雑なシステムにおいて、組織や社会の一部分の「レジリエンス」だけを強化しても有効ではない。逆に、統合された全体を意識すれば、システムの一部に対する働きかけが、他の「レジリエンス」も向上させる(ゾッリ等, 2013)。マルチセクター、人道・開発・平和構築の連携などの統合的なアプローチも、「レジリエンス」論に基づく事例といえる。

---

<sup>3</sup> 2023 年 3 月、カンバラで実施したウガンダ首相府難民局へのインタビューによる。

このような新しい人道支援の方向性については、人道支援全体のシステム改革を促す政策にも反映されている。特に、2016年の世界人道支援サミットで合意された国際約束である「グランドバーゲン」では、10の柱となる政策のうち、「人道支援の現地化」や「開発と人道のネクサス」などが「レジリエンス」に関係する重点政策に掲げられている<sup>4</sup>。また、難民支援の領域においても、2018年の「難民に関するグローバルコンパクト」などで、現地の組織、民間企業や多様なアクターの関与を高める政策や、人道支援と開発とを結びつける政策が取り入れられている（United Nations, 2018）。

一方で「レジリエンス・パラダイム」に基づく対応には批判的な分析もされている。第一に、個人の能力に重きをおく考え方では、個人はどこまでもリスクを受け入れることが求められ、難民の権利や保護へのアクセスを制限することになるという懸念である（Evans and Reid, 2013）。例えば、難民の自立の向上を目指す NGO 等による生計支援プログラムでは、個人の能力強化に力点を置きすぎるあまり、起業精神の高い模範的な難民が主な支援対象となり、能力が十分でなかったり、関心を示さないものが後回しになる傾向が生じる（村橋、2021: 241）。第二に、リスクを受け入れるという自己責任と起業家精神を助長することで、難民が変革の主体として行動する能力が否定され、難民の政治的抵抗力を弱め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もある（Oliver and Boyle, 2020: 1124）。そもそも「レジリエンス」が支援者の負担軽減の議論の中で導入されてきた経緯があるため、支援者の都合が優先されやすく、結果的に難民の力を奪うことにつながるリスクがある（村橋、2021: 241）。

ただ、本来の意味としては、レジリエンス・パラダイムは有望なアプローチとされている。上記の問題点に配慮し、国際社会、政府、NGO、難民が協力して、個人の能力に対応を依存しすぎず、難民の権利と保護を重視できる余地は存在するだろう。また、難民と地元住民が力を発揮し、地域に根ざした方法でボトムアップアプローチにより実践されることで、上からの支配に抵抗するための基盤を作ることも可能である（Oliver and Boyle, 2020: 1124）。これらの点を十分に考慮したレジリエンスに基づく政策が実行できるかどうかは、国際社会の人道支援システムの対応体制に左右される面がある。

#### 第4節 ウガンダにおける RLO の動向

本節では、ボトムアップアプローチからの現地の問題解決能力を促進する動きであるウガンダの RLO の動向と、「レジリエンス」促進にあたっての RLO の可能性を取

---

<sup>4</sup>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The Grand Bargain (About the Grand Bargain) のホームページ、<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node/40190> (2023年4月20日アクセス)

り上げる。国際的な政策の動向や人道支援システムに RLO がどう位置づけられるのか、また第 3 節であげられたレジリエンスの課題を乗り越えるためにどのような可能性を持っているのかを検討する。

ボトムアップアプローチを強調する人道支援の潮流としては、2016 年の「世界人道サミット」以来重点政策とされている「現地化 (Localization)」がある。「現地化」は、外部者中心の人道支援体制を是正し、対応を現地化することによって、人道支援の正当性と効率性、そして持続可能性を高めることが意図されている (Van Brabant & Patel, 2017)。これまで正式なステイクホルダーとして関与する機会が少なかった難民・国内避難民、被災者などの当事者や、当事者に近い現地のアクターの参加を促す方向性がある。

難民や国内避難民は法的に、支援者や庇護国政府に頼らざるをえないという脆弱な立場にあり、出身国、受け入れ国、支援者など外部の影響に翻弄され、自分自身の能力を押し込める環境に置かれがちである。難民や国内避難民への対応においては、難民がもともと持っている能力と、自律性や主体性を尊重することで、支援者と難民・国内避難民がより協調的な相乗効果を生み出す方針が模索されている (Pincock *et al.*, 2020a: 1)。RLO の動向は、「レジリエンス」や「現地化」の政策を体現するものと考えられる。

東アフリカの RLO は、コミュニティのニーズに応える上で重要な役割を果たし、教育、職業訓練、心理社会ケア、保健衛生、マイクロファイナンス、スポーツ、若者への支援、アドボカシーなどの分野で多くの成功事例を作ってきた。しかし、RLO は、人道支援システムでアクターとして認識されることが少なく、これまで RLO の影響については十分な研究がされていない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 (Getachew *et al.*, 2022: 7)。国際政策としての「現地化」推進の影響も RLO には限定的にしか現れていない。本節では、2023 年 3 月に実施したチャカ II (KyakaII) 難民居住地およびカンパラでの関係者への半構造化インタビューによる質的分析と、カールトン大学の Local Engagement Refugee Response Network (LERRN) および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の Refugee-led Research Hub (RLRH) が行った RLO に関する研究 (Getachew *et al.*, 2022/ Gitahi, 2023)<sup>5</sup>を参照しながら、RLO の動向をまとめ、RLO が「レジリエンス」に関わる課題を乗り越える可能性について考察する。

#### 4-1 チャカ II 難民居住地における RLO

チャカ II 難民居住地は、ウガンダ西部のチェゲグワ県に位置する。ルワンダ難民が居住していたチャカ I の難民の帰還を受けて、チャカ I の残りの難民を受け入れ

---

<sup>5</sup> 両研究では、フィールド調査にチャカ II 難民居住地は含まれていない。

る居住地として、2005年に設立された。2017年12月中旬にコンゴ民主共和国で再び暴力が拡大したことで、チャカII難民居住地には、約17,000人の新しい難民が流入し、2018年3月初め時点での定住地の人口は、44,988人となった（UNHCR, 2018b: 1）。その後も、難民は増加し、2023年3月のデータでは、120,111人がチャカII難民居住地で生活をしている。約94%がコンゴ民主共和国からの難民であり、その他、ブルンジ、ルワンダ、南スーダンからの難民が暮らしている（Government of Uganda,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2023）。ウガンダでは、チャカIIは8番目に大きい難民居住地である。40を超える国際機関やNGOがチャカII難民居住地の社会サービス提供を行っている<sup>6</sup>。

チャカII難民居住地には、2022年2月に設立されたRLOのネットワークであるKyaka II Refugee-led Organizations Network（KRLON）が存在する。2023年3月時点で、KRLONは、98の地域社会組織（Community-based Organization: CBO）と、政府には正式に登録されていない426グループの合計524団体が参加している（KRLON, 2023）。難民の増加に応じて、RLOは増加傾向にある。チャカII難民居住地でのRLOの活動には、教育、健康、スポーツと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収入向上、サービス、デジタルインクルージョン、農業、人道支援、エネルギー、環境保護、メディア、保護などが含まれ、人道支援の提供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KRLONは、地元組織の能力を高め、政策提言に向けて難民の声をまとめ、他の支援組織とRLOをつなぐ活動を行っている（KRLON, 2023）。

RLOの組織形態は多様であり、ウガンダでは政府に団体登録されていなくても運営は可能である。登録されていないRLOが活動しにくいエチオピアやタンザニアに比べるとウガンダはRLOが活動しやすい環境といえる。CBO等への登録があれば、他団体からの資金支援を受けやすくなる。しかし、読み書きができない難民が主導するRLOや地域の首長や難民支援機関とのネットワークがない場合、団体登録へのハードルが高くなる（Gitahi, 2023: 2）。チャカII難民居住地では、RLOが登録を行いたい場合、KRLONや、すでにCBOとして実績を重ねているRLOがそのサポートを行っている<sup>7</sup>。

RLOは、ウガンダ全般において、難民コミュニティ及びホスト社会の両方で、福祉や住民の自立促進にあたって良い影響を与えていると認識されている。特に、他のアクターに比べ、RLOは当事者として地元のニーズを把握し、住民の状況により適切なサポートを提供し、住民からも接触しやすいからである（Gitahi, 2023: 19-20）。例えば、チャカII難民居住地では、Youth Initiative for Development in Africa（YIDA）が、

---

<sup>6</sup> 2023年3月、チャカII難民居住地で実施したOPMチャカII難民居住地事務所へのインタビューによる。

<sup>7</sup> 2023年3月、チャカII難民居住地で実施したUNHCRスタッフへのインタビューによる。

政府や国際組織の支援が行き届いていない、コミュニティの発展に重要な領域である幼児教育や教員養成に力を入れている。また、Triple Tのように、若者のスキルとして今後重要性が高まっているデジタル技術の提供やデジタル製作を担うRLOが若者主導で設立されている例もある<sup>8</sup>。他の支援組織と同様、ウガンダのRLOは、ホスト社会に対してサービスの30%を提供する方針をとり、ホスト社会と良好な関係を維持していることが多い(Gitahi, 2023: 3)。チャカII 難民居住地のRLOへのインタビューでは、RLOにはホスト社会のメンバーも多く、協力的な関係を保って運営されていた事例が多かった。チャカII 難民居住地の学校は、難民とホスト社会の生徒両方が通っているため、学生時代を共に過ごした難民とホスト社会の住民が共同で意欲を持ってRLOを運営しているというケースもあった<sup>9</sup>。一方、ウガンダ北部の居住地では、必ずしもホスト社会との統合がうまく進んでない例も報告されている(Gitahi, 2023: 14)。

このような自発的意志と意欲を持つRLOは増加傾向にあるが、資金源を確保することが、RLOの一番の課題である。資金を得る主な手段としては、国際組織との連携がある。RLOは、地元社会のゲートキーパーとして難民居住地やホスト社会と国際支援組織との仲介役としての役割が期待され、資金提供を受けるケースがある。しかし、多くのRLOにとって、国際支援組織と接触し、認識されることが難しい。チャカII 難民居住地のRLOの中でも、国際支援組織からの支援を受けた事例があったが、1~2年間で終了し、その後の資金調達に苦労していた。また、近年UNHCRがRLOを実施契約パートナーとしている例は、2021年の短期間の事業以外はなかった<sup>10</sup>。そこで、RLOがさまざまな組織と連携しやすい環境を作るため、KRLONがUNHCRのサポートを得て、ウガンダ首相府(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PM)に積極的に働きかけ、2023年3月には居住地の調整会議で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実現させた<sup>11</sup>。

RLOとして持続的な資金調達に成功している例は、10年間教育支援を行ってきたYIDAのケースがある。ケニアのNGOであるCOHEREなどの国際NGOや、アメリカの民間企業の財団などから資金支援を受けている。これらのドナーとの関係性は、主要メンバーがUNHCRによるYouth Initiative Fund<sup>12</sup>に選出された際、難民居住地

---

<sup>8</sup> 2023年3月、チャカII 難民居住地で実施したYIDA及びTriple Tメンバーへのインタビューによる。

<sup>9</sup> 2023年3月、チャカII 難民居住地で実施したYIDA及びTriple Tメンバーへのインタビューによる。

<sup>10</sup> 2023年3月、チャカII 難民居住地で実施したUNHCRスタッフのインタビューによる

<sup>11</sup> 2023年3月、チャカII 難民居住地で実施したUNHCR及びKRLONメンバーへのインタビューによる。

<sup>12</sup> UNHCRのYouth Initiative Fundは、2017年から2019年に、若者のリーダーシップ育成及び、若者のパートナーシップやネットワークを促進することを目的とし、難民の青年に対し、

外、そしてウガンダ国外での交流を持てたという影響が大きいという。さらに、YIDA は、送金・両替を行う金融業や文房具店を経営したり、T シャツを販売する収益事業も行なっている。これらの資金によって、難民居住地やホスト社会に幼児教育と初等教育、及び起業家精神を持つ難民にスタートアップ資金を提供し、難民定住地とホスト社会で雇用を創出している<sup>13</sup>。一方で、普段は居住地外、あるいはカンパラの RLO と連携することの難しさが言及されていた。

ウガンダ全般の傾向でも、外部からの資金支援や能力強化の支援を受けているのは、ほんの一握りの RLO である (Kuntzelman and Hakiza, 2021: 12)。CRRF を通じて国際社会からの人道支援の額が増加し、地元のアクターの関与が推奨されていても、RLO がその恩恵を受ける機会は少ないままである。「グランドバーゲン」では、「現地化」の目標として、現地アクターへの直接拠出を人道支援全体の25%とすることが設定されているが、2020年時点ではその直接拠出は、1.2%にとどまっている (Development Initiatives, 2022: 17)。「現地化」の政策は、国際社会の政治的意志の欠如や、それに伴う管理手続きの障壁などにより、RLO がより直接的な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改革にはつながっていない。また、UNHCR 等の国際機関において、RLO が国際政策に関与するための枠組みが設定されていない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 (Pincock *et al.*, 2020b: 12)

一方、RLO の活動を推進する兆しも見られる。St Andrew's Refugee Service, Oxfam, フィンランド難民協議会などの国際 NGO は、現地の RLO と積極的に協力を拡大する動きがある (Pincock *et al.*, 2020b: 2)。また、チャカ II 難民居住地で活動する日本の NGO は、筆者とともに RLO の複数のリーダーと接触した際、これほど自発的に、高い意欲をもって、難民やホスト社会に根を張る団体が数多くあることを初めて認識したという。そして、今後のプロジェクトの実施時に、住民の参加促進の面で RLO と連携することを検討したいと述べていた<sup>14</sup>。UNHCR チャカ II 難民居住区事務所も、RLO の参加促進をきめ細かくサポートしている。Refugee-led Innovation Fund の応募を募る過程で、RLO との接触を深め、プロポーザルへの助言を行っている。また、この1年間は、RLO の難民居住地での調整会議の参加実現のため、週に1度は、KRLON 関係者と情報交換を続けてきた。こうした関係性ができることで、RLO と、UNHCR のパートナー団体や OPM との橋渡しを行う機会が増加しているという<sup>15</sup>。

---

プロジェクト実施のための予算のサポートを行なった (<https://www.unhcr.org/media/65029>) (2022年4月20日アクセス)。

<sup>13</sup> 2023年3月、チャカ II 難民居住地で実施した YIDA メンバーへのインタビューによる。

<sup>14</sup> 2023年3月、チャカ II 難民居住地で活動する日本の NGO スタッフへのインタビューによる。

<sup>15</sup> 2023年3月、チャカ II 難民居住地で実施した UNHCR スタッフのインタビューによる。

もう一つの課題は、ジェンダーに基づく暴力（Gender-based Violence: GBV）などのジェンダーに関わる社会課題が深刻な社会で、女性主導のグループが少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KRLON の理事や主要メンバーを見ても、女性の割合は低い。Gitahi (2023: 12) がウガンダの複数の難民居住地、都市で行なった調査によると、女性主導の RLO は、男性のものに比べて小規模で非公式なものが多いという。女性は高等教育へのアクセスが難しく、子育てや家事などの優先課題がある中で、女性リーダーが少ない傾向がある。そして、女性が RLO を主導できたとしても、活動を拡大するための資金調達が困難である場合が多い。

一方で、RLO という形態ではないが、女性難民が主体となる動きに、ポジティブな萌芽は見られた。チャカ II 難民居住地の女性センターでは、日本の NGO の支援による職業訓練（裁縫、美容、ICR 技術の習得）、起業支援が行われている。女性達が活動する姿は、意欲的で活気に満ちていた。卒業後も、卒業生が助け合いながら複数のグループを形成し、起業をして、生計を向上させていた。プロジェクトのメンバーの選出には、意欲のみならず、経済状況、家庭環境などの脆弱性も考慮されている<sup>16</sup>。また、同センターは職業訓練を行うのみならず、GBV も含めなかなか表に出にくい福祉相談に対する窓口を設け、適切なサービスにつなげられるよう保護を強化する体制を整えている。こうした組み合わせによって、収入向上や自立を求める女性たちだけでなく、それ以外の女性にもサービスが届けられるような工夫がされている。そして、女性同士、難民と近隣住民、難民居住地区と行政・NGO など、外との多様な関係性が作り出され、人々に安心、平和をもたらす土台が作られている<sup>17</sup>。これらのグループが、今後 RLO に発展していく可能性もある。このように、RLO という形でなくても、保護と能力強化、収入向上などの複数のアプローチから自立を探り、問題を解決しようとする動きも生まれている。

## 4-2 首都カンバラにおける RLO

首都カンバラの RLO は、4-1 で考察した難民居住地の RLO より、活動規模は大きい。都市部では、高等教育を受けたメンバーが関わることが多く、RLO リーダーが、調整会議の参加やネットワーク構築の機会を持って外部組織との接触が増えるため、資金調達が容易になるからである（Gitahi, 2023: 9）。本節では、カンバラと難民居住地の RLO の動向を比較するため、4-1 で検討した資金源、他団体との関わり、ネットワーク組織の役割についての動向をまとめる。

---

<sup>16</sup> 2023 年 3 月、チャカ II 難民居住地で活動する日本の NGO スタッフへのインタビューによる。

<sup>17</sup> 2023 年 3 月、チャカ II 難民居住地での女性センター訪問時に行なった、職業訓練を受けている女性メンバー及びその OB へのインタビューによる。

カンパラの多くの RLO は、政府に登録して、公式な活動を行っている (Gitahi, 2023: 10)。また、活動の種類は難民居住地と同様に多様であるが、カンパラ特有の支援としては、ウガンダにおける難民の 9% を占める都市難民 (Urban Refugee) の支援である。都市難民は難民居住区のように集住していないため、ニーズの把握や支援の提供が難しい。脆弱な難民に支援を提供するには、難民グループと強いつながりを持つ、RLO の情報やネットワークが不可欠である<sup>18</sup>。しかしながら、例えば UNHCR の実施パートナーがウガンダの NGO となる構造が続くなど、RLO が国際機関等から直接活動資金を得る機会は少ない。国際機関から資金を得ているウガンダの NGO が難民コミュニティとの連携を持つ場合も、管理とコントロールがしやすいパートナーを望み、RLO の存在を脅威と捉えているという分析もある (Pincock *et al.*, 2020b: 8)。

カンパラの RLO の資金源や他団体との関係については、インタビューを実施した African Youth Action Network (AYAN) の事例を取り上げる。AYAN はカンパラの主要な RLO の一つである。2015 年、20 代の 3 人の南スーダン難民によって設立された。部族で分断されている南スーダンの若者たちの絆や関係性を築くことを目指し、若者を対象に平和と和解、教育へのアクセス、リーダーシップスキルに関わる支援を提供している。若者が政策や意思決定に積極的に参加し、母国に帰った際に平和と和解に貢献できる人材育成に力を注いでいる。AYAN は、ウガンダでの活動のみならず、帰還後の南スーダンの平和構築も視野に入れ、南スーダンでのプロジェクトも実施している。AYAN の活動は、UNHCR 等による Global Refugee Youth Consultation (GRYC)<sup>19</sup> のメンバーに選出されたことや、前述の Youth Initiative Fund に採択されたことでさらに広がった。資金を得たことに加え、海外に行き他の地域の若者リーダーと交流したことによって、グローバルな幅広い人脈が作られたからである。また、メンバーが海外に移住したことによって、カナダなど移住先の国際 NGO や企業の財団などとのつながりが強化され、それが大きな資金源となっている。さらに、大学進学のための奨学金を受けた奨学生同士の人脈やネットワークが、RLO の活動を広げるにあたって大きな助けになったとのことだ<sup>20</sup>。教育や人材育成の支援を受けたことをきっかけに、地域を越えたインフォーマルなネットワークが構築され、それらが RLO の発展を支える基盤となっている。特に、ディアスポラ資金が RLO の主要な資金源となる

---

<sup>18</sup> 2023 年 3 月、カンパラで実施したウガンダ NGO, Care and Assistance for Forced Migration メンバーへのインタビューによる。

<sup>19</sup> Global Youth Refugee Consultation は、2015 年 7 月にジュネーブの UNHCR-NGO 協議で開始された。難民の若者が、国連、国際 NGO、国内 NGO、およびその国で若者と協力している他の組織の代表者たちと共に、様々な課題について話し合う場が提供されている。若者を意思決定のプロセスに置き、その潜在能力を高めることが目標とされている (UNHCR, Women's Refugee Commission and GRYC, 2016: 4)。

<sup>20</sup> 2023 年 3 月、カンパラで実施した YIDA メンバーへのインタビューによる。



傾向は、Gitahi (2023: 8) でも指摘されている。海外とのつながりによる資金を得ることで、RLO の認知も国際的に広げることができる。

カンパラには RLO のネットワーク組織として、Refugee-Led Organization Network (RELON) が存在する。RELON は、2016 年にコンゴ民主共和国の RLO のリーダーによってウガンダ全土の RLO を結びつけることを目的にウガンダで設立された。RELON は、RLO の活動の調整、団体登録の支援、RLO を代表した政策提言などを行っている。課題としては、資金不足で、カンパラ以外の RLO とのネットワーク構築やメンバーとの信頼構築が十分に達成できていないことがあげられる (Gitahi, 2023: 16)。

また、RLO のネットワークは、国を越えて、グローバルにも広がっている。Africa Refugee Network Summit の開催により、ウガンダを含むアフリカ 5 カ国に存在する RLO ネットワークとの意見交換や、世界の 6 地域の RLO ネットワークが集まる Global Refugee-Led Network (GRN) などでの政策提言活動が促進されている<sup>21</sup>。RLO が人道支援ガバナンスの中で、位置付けられていないという状況で、難民がガバナンスや意思決定の重要な分野で難民自身が参加できる環境づくりを目指して協働の働きかけを行っている。これらの対話を主導しているのは難民自身である。

## おわりに

ウガンダの RLO の現状から、当事者として自発的に社会課題に対応しようとする動きの高まりが明らかになった。「レジリエンス」を重視する国際政策の潮流の中で、現地社会の自律的な問題解決を志向する RLO は、「難民に関するグローバルコンパクト」や「グランドバーゲン」の「現地化」の動向を受けて、重要性が増している。しかし、RLO は、人道支援システムにおいて十分に認識されておらず、資金拠出、政策策定などの枠組みに位置付けられていない。

RLO の位置付けが曖昧である故に、RLO の活動はその組織が持つネットワークに大きく左右されている。大きく成長している団体は、国際 NGO など人道支援のネットワークと連携しつつ、地元社会との信頼関係を積み重ね、ディアスポラや海外の民間組織の資金、奨学金のネットワークなど、非公式なネットワークを生かして、既存の人道支援の仕組みを越えた対応を生み出している。そして、それらの新しい動きの核になっているのは、国際機関や奨学金などで、地域や国を超えて、教育の機会や研修の機会を得た若者であることが多い。ボトムアップアプローチから、社会にフォーマル及びインフォーマル、そしてコミュニティレベルから国、国際レベルまで社会に

---

<sup>21</sup> 2023 年 3 月、カンパラで実施した RELON へのインタビューによる。

つながりの網の目を張り巡らせる RLO の存在は、これまでの伝統的な構造を打ち破り、「レジリエンス」をもつ生態系に重要な「世界が変化する状況に合わせて変化しつつ、自らの機能を維持する能力」（ウォーカーとソルト、2020: 14）を生み出し、強化する役割を果たす潜在性を持っている。

また、自立や「レジリエンス」に基づく政策が、難民の権利や保護を制限し、政治的抵抗力を弱体化させることの懸念に対しては、RLO が関わることによって、当事者として住民の権利や保護のニーズを汲み取り、脆弱性に配慮しながら、当事者参加型のアプローチをとることで弊害を軽減している。従来の保護体制は、逆にトップダウンのアプローチによる依存を生み、「支配をする」という側面が伴う（Pincok *et al.*, 2020a: 120）。また、社会に問題意識を持ち自発的に立ち上がる RLO は、自らが規範づくりや政策策定プロセス関与への働きかけを行っており、難民の抵抗力の強化を促す役割を果たしている。

しかし、これらの動きを持続的にし、さらに広げていくには、RLO を人道支援システムの中に位置付け、法的地位や資金獲得、能力の向上など、RLO の脆弱性を改善する必要がある。また、現在の RLO は、ネットワーク化が始まっているものの、難民居住地での動きと、カンパラ、そして国際レベルのネットワークの間にはギャップが存在する。こうした課題を乗り越えるためには、国際社会は、RLO が持つ役割、潜在性に対する認識を高め、下支えをすることが必要だ。RLO を含めた社会全体でのアプローチで、包摂性のある対応体制を作ることは、難民問題への対応に貢献するだけではない。近年増加している複合的な危機にも対応できるレジリエントなグローバル社会を作ることにもつな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謝辞：ウガンダでの現地調査にご協力いただいた皆様に感謝申し上げます。

本稿は、科研費「災害や人道危機でのセクターを超えた協働が公共圏拡大に及ぼす影響」の助成を受けたものです。

### 参考文献

- Alberghini, D. (2020) *Refugee-led Organizations: The Time Is Now*, RLI Blog on Refugee Law and Forced Migration, Refugee Law Initiative, School of Advanced Study University of London, available at <https://rli.blogs.sas.ac.uk/2020/08/05/refugee-led-organizations-the-time-is-now/> (Accessed 20/4/2022)
- Chandler, D. (2015) 'Rethinking the Conflict-Poverty Nexus: From Securitized Intervention to Resilience, St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ecurity & Development*, Vol.4 (1)13, pp.

- 1-14.,
- Evans, B. and J. Reid (2013) *Dangerously Exposed: The Life and Death of the Resilient Subject, Resilience*, Vol.1(2), pp.83-98.
- Development Initiatives (2022)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Report 2022*.
- Getachew, A., Gitahi, M., Kara, A., Ramazani, U. (2022). 'Refugee-Led Organisations in East Africa: Community Perceptions in Kenya, Uganda, Ethiopia and Tanzania.' *Refugee-Led Research Series, Research Report (1)*, September 2022, Oxford University, Refugee-Led Research Hub, LERRN.
- Gitahi, M. (2023). 'Refugee-Led Organisations in East Africa: Community Perceptions in Uganda.' , *Refugee-Led Research Series, Research Report (5)*, February 2023. Oxford University, Refugee-Led Research Hub, LERRN.
- Government of Uganda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2023) *Uganda Refugees and Asylum Seekers as of 31 March, 2023*.
- Government of Uganda and UNHCR (2004) *Self-Reliance Strategy For Refugee Hosting Areas in Moyo, Arua and Adjumani Districts, Uganda, Report of the Mid-term Review*.
- Hilhorst, Dorothea (2018) 'Classical Humanitarianism and Resilience Humanitarianism: Making Sense of Two Brands of Humanitarian A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ction*. Vol.3, No.15, available at <https://jhumanitarianaction.springeropen.com/articles/10.1186/s41018-018-0043-6> (Accessed 20/4/2022)
- Iltan, S., M. Oliver and L. Connoy (2015)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politics of self-reliance: Uganda's Nakivale Refugee settlement*. Center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 Iltan, S. and K. Rygiel. (2015) "Resiliency Humanitarianism": Responsibilizing Refugees through Humanitarian Emergency Governance in the Camp.',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Vol.9. pp.333-351.
- Kuntzelman C. and R. Hakiza (2021) *Forging a New Path, RLOs as Partners: Lessons from the Africa Refugee Leaders' Summit*, Reference Paper for the 70<sup>th</sup> Anniversary of the 1951 Refugee Convention.
- KRLON (2023) *Kyaka II Refugee-led Organizations Network: Introduction*, available at <https://kyaka2.com/krlon/> (Accessed 20/4/2022)
- Oliver, M. and P. Boyle (2020) 'In and Beyond the Camp: The Rise of Resilience in Refugee Governance' *Onati Socio-Legal Series*. Vol.10. Issue 6. pp.1107–1132.
- Pincock, K., A. Betts, and E. Easton-Calabria (2020a) *The Global Governed? Refugees as Providers of Protection and Assist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ncock, K., A. Betts & Evan Easton-Calabria (2020b): 'The Rhetoric and Reality of Localisation: Refugee-Led Organisations in Humanitarian Governance',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57. No.5.
- UNHCR, Women's Refugee Commission, and GRYC (2016) *We Believe in Youth: Global Refugee Youth Consultations Final Report*.
- UNHCR (2018a) *Comprehensive Refugee Response Framework: Review of Practical Application in Uganda*, UNHCR.

- UNHCR (2018b) *Uganda Refugee Response Monitoring Settlement Fact Sheet: Kyaka II*, March 2018. UNHCR.
- UNHCR (2022) *Mid-Year Trends 2022*, UNHCR.
- UNHCR (2023a) *DEFINITION-Refugee-led Organization(RLO)*, UNHCR.
- UNHCR (2023b) *UGANDA: Participatory Assessment 2022*, Final Report, UNHCR.
- United Nations (2018) *Global Compact On Refugees*, UN, available at <https://www.unhcr.org/sites/default/files/legacy-pdf/5c658aed4.pdf> (Accessed 20/4/2023)
- United Nations (2020) *United Nations Common Guidance on Helping Build Resilient Societies*, UN. (Accessed 20/4/2022)
- Van Brabant, K., & Patel, S. (2017) *Understanding the Localisation Debate*. Global Mentoring Initiative.
- ウォーカー、B.、ソルト、D. (2020) 『レジリエンス思考：変わりゆく環境と生きる』みすず書房。
- ゾッリ、A.、ヒーラー、A. M. (2013) 『レジリエンス、回復力』、ダイヤモンド社。
- 村橋勲 (2021) 『南スーダンの独立・内戦・難民：希望と絶望のあいだに』昭和堂。

# 清代中後期學者的課子經驗與效果： 以錢儀吉、錢泰吉為中心

The Experience and Effectiveness of Elite Families' Education for Children  
in the Middle and Late Qing Dynasties: Focusing on Qian Yiji and Qian Taiji

瞿 艷 丹 (Yandan Qu)\*

ABSTRACT: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chievement and official positions could not be inherited, and as a result, family status was constantly at risk of downward mobility. For intellectual families whose ancestors had already obtained titles, the imperial examinations were undoubtedly the most regular path. Educating their descendants to study for the imperial examinations becam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aintain the family's social status. This paper focusses on the families of Qian Yiji (錢儀吉) and Qian Taiji (錢泰吉) as case studies to explore their respective experiences in teaching their children and the corresponding effects.

KEYWORDS: 錢儀吉, 錢泰吉, 課子, 科舉

## 一、引言

中國傳統社會的流動性問題素來吸引了許多學者從不同角度展開研究，特別是明清以降科舉起到的重要作用。何炳棣指出，明初科舉促進了寒素之士向上的社會流動，但清代中後期寒素之士成功向上社會流動的實質機率大幅降低，高地位家庭可能因未給子女適當教育、沒有新的科舉成功等因素導致長期向下流動<sup>1</sup>。艾爾曼 (Benjamin Elman) 則認為，科舉制度的影響不僅在於社會流動和社會結構，而是廣泛地影響了中國人的心態和精神狀況。伍躍著眼於明清時代的捐納制度，認為來自社會、尤其是來自社會下層的要求上升的動力，促使人們選擇和利用了捐納這種國家制度，在一定時期內維護了社會的相對穩定；但當這種選擇和利用超出制度的容納限度，國家政權又無力進行改革時，制度本身的作用便會趨於衰減，甚至導致國家政權

---

<sup>1</sup> 何炳棣著，徐泓譯注《明清社會史論》，聯經出版公司，2013年，頁203，頁324-326。

\* Part-time Lecturer of History of Modern Asia,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Email: quliuqing@gmail.com

的瓦解<sup>2</sup>。這些研究提出的觀點都深具魅力，引發了諸多新的探討。本文目的不在於修正以上結論，而是試圖從受科舉制度直接影響的當事者角度出發，提出這樣的問題：在功名和官職無法世襲的社會制度之下，家庭地位時刻面臨向下流動的危機，家長會有怎樣的行動與應對方式？對於祖上已有功名的知識家庭來說，科舉無疑是最正統的路徑，教育兒孫習舉業就成了希冀家族社會地位不墮的至為關鍵的事業。由於清代不同時期、地域的情況都有很大不同，很難就知識人如何教育兒孫科舉應試的整體情況作出清晰的結論；與之相對，個案研究就顯出特別的價值和魅力<sup>3</sup>。本文重點關注乾嘉至道咸時期的情況，即歷來被視為由盛轉衰的清代中後期，聚焦錢儀吉（1783-1850）、錢泰吉（1791-1863）這兩位出身嘉興望族的學者，討論他們教育子孫的經驗及子孫的科名情況，同時考慮婚姻關係與家族社會地位升降之關係。

錢儀吉、錢泰吉為從兄弟，同入《清史·文苑傳》，有「嘉興二石」之稱。曾祖父錢陳羣（1686-1774）曾三次遇康熙南巡獻詩，極得恩寵，是錢氏家族地位最崇高者。祖父錢汝恭（1727-1774）為陳羣次子，乾隆十二年（1747）舉順天鄉試，二十二年秋以大挑知縣分發江南，二十三年署高淳知縣，二十四年充江南鄉試同考官，後歷任江寧、新鄉知縣，官終安慶府同知<sup>4</sup>。錢儀吉父錢福胙（1763-1802）為汝恭第四子，乾隆庚戌（1790）進士，嘉慶七年三月卒於故鄉。錢泰吉父錢復（1754-1806）為汝恭第二子，出嗣錢陳羣第三子汝慤（1729-1746）。錢復乾隆四十一年（1776）援川運例得府經歷，分發福建，借候補官縣大湖丞，署建安、羅源、閩清、甌寧等縣知縣，五十七年（1792）改官直隸，補雄縣丞。嘉慶元年（1796）擢吳橋縣知縣，四年（1799）擢大興縣知縣，十年冬卒於京師。嘉慶六年，錢儀吉舉鄉試，考中浙江省第二十二名舉人。嘉慶十三年（1808）會試中式，殿試二甲第二十二名，選庶吉士，從此開始了十餘年京官生涯與後半生漂泊異鄉之旅。而泰吉雖在十八歲時以經義古學第一入縣學，後歲試又第一，卻屢困場屋，道光元年（1821）以訓導候選，道光七年選授杭州海寧州學訓導，此後在海昌縣學潛心學問。儀吉、泰吉雖身處不同環境，但都以維繫錢氏家族文脈延續為自己的重大職責，而其首要問題就是教育子孫讀書習舉業。那麼，他們進行了怎樣的實踐，教育結果又是如何？本文接下來將具體討論這些問題。

## 二、京官時期錢儀吉的課子經驗

錢儀吉出生時，曾祖、祖父俱已謝世。四歲時，父親錢福胙剛中舉，考充咸安宮

<sup>2</sup> 伍躍〈明清中國社會成員的制度選擇——以捐納制度為中心〉，《明代研究》第26期，2016年6月，頁1-41。

<sup>3</sup> 比如沈艾娣在《夢醒子——一位華北鄉居者的人生》（趙妍傑譯，北京大學出版社，2005年）中生動再現了19世紀後期至20世紀初，山西鄉村讀書人劉大鵬在變動時代中沉浮的一生，除了劉大鵬自己的應試經歷，第三章〈孝子〉也講到劉大鵬之子的求學過程。

<sup>4</sup> 天津圖書館藏《文端公年譜》卷之下，光緒二十年刊本，葉11b, 13b, 15b, 19b, 52a。

教習，辭家北行。此時錢家老屋質他姓，經濟極困，儀吉與同胞姊錢慶韶跟隨母親戚芷生投奔袁花鎮外祖父戚朝桂，居外家長達八年（1786-1793）。儘管錢儀吉的敘述中從未提過這點，但有資料顯示錢福胙是入贅戚家，也可見此時名臣之後境遇之窘<sup>5</sup>。戚朝桂自乾隆三十一年（1766）由楚北罷官歸里，「積書七千餘卷，稍藝花竹，春秋觴詠」，悠閒自適。錢儀吉深受外祖父喜愛，下學後常在外祖父跟前講書複習<sup>6</sup>。多年後錢儀吉回顧這段溫馨的時光，「扶床日索鵝油餅，七歲兒隨孺人寢。母行省墓兒遷枕，宵為卷衣朝結社」，「外孫下學揖而走，呼問授書今至某。業在檀弓曾子篇，細論何其久」，舅家的撫養對他而言是無以回報的厚恩<sup>7</sup>。

乾隆五十八年（1793），錢福胙中進士後第三年，錢儀吉奉母入京，雖年尚幼稚，但已有機會與京中一流學者接觸，也表現出詩文學問方面很高的天賦，「徧讀《十三經》，熟精《文選》，背誦不遺一字」<sup>8</sup>。嘉慶四年（1799）隨侍擔任福建學政的父親南行，入閩學署。六年（1801）年夏歸里，是年舉鄉試；十二月，與幼年時即已定姻的餘杭陳爾士成婚。爾士生於富紳之家，父陳紹翔捐納出身，家境優裕，來歸時母親蔡氏與之金二千多，專為儀吉買書之用<sup>9</sup>。學政是欽差，在省里地位僅在將軍、督撫之下，地位尊貴，任滿回京後很可能被重用，此時錢福胙很有希望為錢氏家族帶來更多資源。但不幸的是，次年三月末，錢福胙竟突然病故，錢家再度陷入困境，錢儀吉應試的壓力無疑更大。在經歷了一次會試報罷（1805）後，嘉慶十三年（1808）年春闈，二十六歲的錢儀吉順利考中進士，選庶吉士，次年散館，改主事戶部江南司兼陝西司。錢儀吉會試中式的年齡遠早於張仲禮推算的太平天國前進士及平均年齡（36歲）<sup>10</sup>，並進入日後容易升遷高位的翰林院，已充分具備維繫錢氏家族的文脈及社會地位的基本條件。

嘉慶十五年（1810）春，陳爾士與錢儀吉胞姊錢慶韶，姊婿李培厚同侍戚太夫人入都，錢儀吉的側室，長子阿英（約1803年生，成年後名寶惠）應同行。此時陳爾士一子一女已早殤，次女頤壽生年雖不可考，但後來生於北京的可能性較高。《錢氏家譜》（1826）記載錢儀吉側室共四名：程氏（1787年生），嘉善胡氏（1791-1807），長洲胡氏（1791年生），姚氏（1797年生）<sup>11</sup>。嘉善胡氏早亡，此番上京的側室只有三位。程氏是阿英生母，在諸妾中年最長，作為目前家庭中唯一存活的男孩的生母，想必地位也稍高。為了迎接北上的一家老幼，錢儀吉數度搬家，最終移居永光寺中

<sup>5</sup> 許嘉猷編《許順庵老人自述年譜》，中國國家圖書館藏道光間刻本，葉5a。

<sup>6</sup> 錢儀吉〈戚府君家狀〉，《衍石齋記事稿》卷八，光緒六年重刊本，葉33a-36a。

<sup>7</sup> 錢儀吉〈述舊三首上餘齋先生〉題記，《澄觀集》卷二，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葉19b。

<sup>8</sup> 蘇源生〈書先師錢星湖先生事〉，《碑傳集補》卷十，葉4b，沈雲龍主編《近代中國史料叢刊》第100輯，文海出版社，1973年，頁606。

<sup>9</sup> 錢儀吉〈妻陳恭人述略〉，《衍石齋記事續稿》卷八，葉四十二a。

<sup>10</sup> 張仲禮著、李榮昌譯《中國紳士：關於其在19世紀中國社會中作用的研究》，上海社會科學出版社，1991年，頁133-134。

<sup>11</sup> 錢臻等重輯《錢氏家譜》卷八，道光六年刊本，葉16ab。

街，與錢慶韶一家居住相距二里，兩家往來十分密切。其時錢儀吉從子錢寶甫（1771-1827）也隨儀吉一家共住，直到嘉慶十七年，寶甫妻沈氏入都才搬出。

要提高子孫中式的概率，首先要確保有足夠多的男性學齡兒童。但錢儀吉的幼生兒女夭折率極高，鄉居時已有兩子夭折，分別是爾士所生衍徽、程氏所生衍淳（1806年殤）。京居時期最先夭折的是長洲胡氏所生朋壽，自嘉慶十九年（1819）至道光十二年（1832）年間，又相繼夭折四子四女兩孫。順利成人的只有長子阿英（寶惠）、次子阿荷（後名尊煌）、三子阿苞（後名寶宣）、幼子萇兒（後名彝甫），以及次女頤壽（遠苓）、三女慈壽（仲愉）、四女叔琬。除卻陳爾士去世後出生的苞、萇二子，其餘二子三女均受到陳爾士的悉心撫育與教養。和清代多數知識家庭一樣，母教是兒童早期教育的重要一環。陳爾士育兒課子之盡心盡職，在她的著作《聽松樓遺稿》裡有詳細記錄，素受論者稱許。

嘉慶十六年（1811），錢儀吉同族三兄錢械（1780-1835）至京師<sup>12</sup>。其時錢儀吉親自課讀寶惠，有事外出，則從子寶甫代課；偶爾錢械過來，也會幫忙。「嘗一日中三人更迭督視，兒亦不知孰為本師也」<sup>13</sup>。錢儀吉也為寶惠正式聘過幾位老師，首先是嘉慶十九年（1814）四月十四日，「訂沈孝廉敦齋僕課讀英兒」<sup>14</sup>。沈樸，秀水人，嘉慶十八年癸酉科舉人，儀吉從父錢載（1708-1793）長子錢世錫（1733-1795）門人<sup>15</sup>。寶甫為錢世錫獨子，與錢儀吉極相友善，沈樸很可能是經他介紹而來。此外，錢儀吉還曾請過當時京中很有名的考據學家臨海金鶚（1771-1819），不過金鶚不久病卒。至少就錢儀吉的經驗來看，在北京請到一位合適且長期教學的老師並不容易。首先是口音問題，當時科舉合格比例佔絕對優勢的江浙人都傾向聘請方言相通的同鄉學者，日後錢儀吉到開封教書，也曾感慨過北方口音不對，背書之不易<sup>16</sup>；其次，坐館教書往往是困於科場的讀書人不得已而選擇的謀生手段，京居不易，京中江南出身的師資流動十分頻繁。在這樣的背景之下，家庭教育就顯得格外重要。

已有研究指出，自乾隆五十八年（1793）至 1898 年科舉改制方案頒行之前，鄉會試三場考試內容一直保持穩定，第一場考四書題三道，詩題一道，第二場考五經題五道，第三場考策五道。但清代科場風氣極重首場，第二、三場不受士子重視，導致首

<sup>12</sup> 錢械，錢綸光次子、錢陳羣弟錢峯曾孫，錢峯次子錢汝鼎孫，汝鼎次子錢淇次子，長兄錢希憲出嗣錢儀吉祖父錢汝恭長子錢豫章，故與儀吉、泰吉關係親厚甚於一般從兄弟。號雲壽，嘉慶三年（1798）浙江鄉試第二十三名舉人，嘉慶十六年（1811）西巡，召試欽賞緞疋。次年大挑二等，寧波府鎮海縣訓導。《錢氏家譜》卷八，葉 29a。

<sup>13</sup> 錢儀吉〈子壽同居記〉，《衍石齋記事續稿》卷一，光緒六年重刊本，葉 18b-19a。

<sup>14</sup> 任群整理《錢儀吉日記書札輯存》（外二種），鳳凰出版社，2022 年，頁 8。

<sup>15</sup> 錢載七世祖錢與映第三子錢周為載曾高祖，與映第四子陞為錢陳羣曾祖，錢載與錢陳羣同屬錢與映支。

<sup>16</sup> 「翟、杜二師，北方口音，背書亦不免費力。然未嘗不背也。但所背未必靠得住耳。」此間本地人，既極劣陋，且口音不對，即無以為啟發之地。」1839 年十月初二日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場所考八股文章試帖詩成為士子備考的重中之重，由此簡化了士子群體的閱讀世界和知識世界<sup>17</sup>。但對於錢儀吉這樣出身文學世家、早已通過科舉選拔的知識精英來說，對自己兒孫的教育顯然不可能僅止於應試，必然會從最正統的經史之學入手。

嘉慶二十二年（1817）秋至次年夏，錢儀吉護送亡母靈柩南歸，陳爾士率兒女妾輩留守京寓，據錢儀吉定下的課程單嚴格教育寶惠，兼為其餘小兒女開蒙。其間錢儀吉從孫錢聚仁、同年摯友潘恭常都曾協助教授寶惠讀書作文。

那麼，錢儀吉制定了怎樣的課程單？由於沒有直接資料，只能依據陳爾士《聽松樓遺稿》卷三〈家書〉加以推定，在寶惠 15、6 歲時，每日功課主要集中在熟讀經書和學習作文兩方面。此時寶惠對《易》《書》《詩》《周官》《儀禮》《禮記》上半部、《爾雅》《四書》已有一定程度的熟悉，對《左傳》則尚生疏，於是每日重點在於熟讀《左傳》，同時複習其他較為熟稔的經書，兼背誦《周禮》。並藉由熟讀、背誦《國策》建立古文根柢。陳爾士在給錢儀吉的家書中事無巨細地匯報寶惠的功課情況，但《左傳》的閱讀進度卻不太理想，因此中途不得不回頭重讀。

由此可見，錢儀吉的課子方案與同時代文字學家安丘王筠（1784-1854）制定的《教童子法》旨趣相近：

蒙養之時，識字為先，不必遽讀書。……八九歲時，神智漸開，則四聲、虛實、韻部、雙聲疊韻，事事都須教，兼當教之屬對，且每日教一典故。才高者，全經及《國語》《國策》《文選》盡讀之。即才鈍，亦《五經》《周禮》《左傳》全讀之，《儀禮》《公》《穀》摘鈔讀之。才高者十六歲可以學文，鈍者二十歲不晚<sup>18</sup>。

乾嘉間經學家凌廷堪（1757-1809）乾隆六十年任寧國府學教授，為學生開列〈杞菊軒功課單〉，亦可反映清中葉的主流學術風氣，其中日課部分是：

每日早起讀生經文一百字，隨意溫熟文數篇。須用心探索，讀經不可間斷。

早飯後，溫熟經文二百字，隨意或臨帖，或鈔詩、古文，或札記、典故，或讀史數頁。

午飯後，隨意溫《四書》數頁。有暇，即參稽經史，討論詩文。

燈下，隨意溫熟文數篇，或抄舊讀詩文，或查考日間所讀詩文中故事。

五更醒後，默記新知，醞釀舊得，此最要緊，功效進益，多在此時。

對於尚未閱讀的經文，「皆陸續補讀，讀必精熟，務須手鈔。如不能百字，即數十字亦可」<sup>19</sup>。而寶惠讀《左傳》時也被要求鈔書。儘管比起錢儀吉十二歲時「徧讀《十三經》、熟精《文選》」的程度，寶惠顯然落後許多，天賦亦不見佳，但他所接受

<sup>17</sup> 曹南屏〈清代科舉的知識規劃、考試實踐與士子群體的知識養成〉，《學術月刊》第 49 卷第 9 期，2017 年，頁 150-153。

<sup>18</sup> 王筠《教童子法》，收入繆荃孫輯《雲自在龕叢書》第二集，天津圖書館藏光緒間刻本，葉 1ab。

<sup>19</sup> 張其錦《凌次仲先生年譜》卷三，哈佛大學藏道光六年刻本，葉 3ab。

的顯然屬於乾嘉時期最正統的精英教育。由於錢儀吉次子尊煌比寶惠小十多歲，很長一段時間內，寶惠都受到了家中最多的關注和期待。送母靈柩南歸途中，錢儀吉寄給妻子的詩就很能說明這點，首句即抒發對長子的期望；至於還是嬰孩階段的次子，未來尚且遙遠，「阿英肯念此、保家望其賢。阿荷強葆中、孰測成敗端」<sup>20</sup>。

為了讓寶惠有更好的讀書環境，錢儀吉將自己的書房借槐軒讓給他作書室<sup>21</sup>。嘉慶二十四年（1819）十一月，寶惠在錢儀吉陪同下南歸，至崑山與姑姑錢慶韶的女兒李介祉成婚，陳爾士在給寶惠的信中諄諄叮囑「所學不可荒廢」。此時次子尊煌始學認字，正讀《爾雅》釋言部分<sup>22</sup>。道光元年（1821），寶惠、介祉長子枏孫出生。至道光四年，枏孫已初學作詩，與二叔尊煌、三叔寶宣一起讀書，錢儀吉對其讚許有加，期待他聰明超過寶惠<sup>23</sup>。

道光六年（1826）元日，寶惠、介祉次子出生，錢儀吉大喜，取《左傳》「絳人年」的典故，祝福幼兒長壽，乳名曰絳、元絳（初名糖，後名瑤，字元之）<sup>24</sup>。道光十年，錢儀吉幼子彝甫七歲，儀吉請從子錢濟授讀。錢濟（1795-?）譜名蘭孫，字洵芳，號循陔，海鹽縣學生員，錢爾復五世孫<sup>25</sup>。錢爾復為明太常寺卿錢薇四世孫，錢陳羣從叔，著《半完圃詩稿》。錢濟雖無功名，但守護祖先錢爾復遺書甚勤，因此很得錢儀吉欣賞<sup>26</sup>。自嘉慶二十四年（1819），錢儀吉伯父錢臻創議修輯家乘、以纂輯事專屬錢泰吉以來，泰吉即與儀吉在往來書信中詳述家族資料的搜集與考訂情形。錢儀吉素有整理家族文獻之願，對此傾注心力極多。他請血緣關係已很遠的同宗姪輩為幼子授課，背後自然有他對維繫廬江錢氏內部聯結、延續家族文脈的希冀。正如錢泰吉整理家族文獻之際，也屢屢感慨「吾儕不能支持門戶，惟是時思先人如何忠厚勤儉，如何力貧讀書，如何持躬式訓，以為久遠之計，思之述之，以傳示後之人，則我先人遺澤，尚可支持數百年乎」<sup>27</sup>。

不過就在這一年十月中，錢儀吉因當時震動官場的戶部失察假照案降一級調用<sup>28</sup>。同年十一月初，道光皇帝又諭令降調各員於補官後停其升轉<sup>29</sup>，錢儀吉遂因之

<sup>20</sup> 錢儀吉《澄觀集》卷八，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葉 2a。

<sup>21</sup> 錢儀吉〈立夏借槐軒，予舊齋，今為英兒書室〉（1820），《定廬集》卷一，葉二 b。

<sup>22</sup> 陳爾士〈家書〉第二十八通，《聽松樓遺稿》卷三，道光元年序刊本。

<sup>23</sup> 「雛孫四歲周三歲，目宇疎青頰映紅。見客愛將詩作問，入祠自詡拜能工。眼看程課隨諸叔，心冀聰明跨若翁。下學未妨仍劇戲，替攔竹馬鬧春風。」錢儀吉〈雛孫〉（1821），《定廬集》卷四，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葉 13b。

<sup>24</sup> 錢儀吉〈元日丑時得孫名之曰絳，四詩志喜〉，《定廬集》卷五，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葉 11b-12a。

<sup>25</sup> 《錢氏家譜》卷七，葉 23b。

<sup>26</sup> 「半完圃尚有遺書，賴子勤渠掃蠹魚，詩句吾宗傳筆舊，梅花山雪釀春初。弟無夏楚將逃學，翁返秦涼欲餽廬。生計日輸文日勝，天心自古一乘除。」錢儀吉〈六疊韻示從子循陔濟〉，《刻楮集》卷一，光緒六年重刊本，葉 6a。

<sup>27</sup> 錢泰吉《甘泉鄉人稿》卷二，同治十一年錢應溥重刊本，葉 12ab。

<sup>28</sup> 《清宣宗成皇帝實錄》卷一七九，道光十年十一月十四日。

罷官，生計益貧。道光十二年秋，錢儀吉攜家人歸里，寶惠一家留京師，李介祉鬻釵佐路費<sup>30</sup>，尊煌仍依兄長未南還。此時寶惠三十歲，即將接近道光年間舉人中舉的平均年齡（31歲）<sup>31</sup>。他暫留京師，一是為料理餘事，更重要的還是為就近參加順天府鄉試。故鄉並無可以安頓錢儀吉一家老小的住房，加之經濟困窘，從小生活在京、正處應試年齡的寶惠還是留京備考最為穩妥。據當時制度，「順天鄉試，現任京外官胞兄弟子姪，隨任讀書者，准其取具本官隨任印文，無論正途、俊秀，一體收錄」<sup>32</sup>。錢儀吉雖已去職，但族中尚有不少親屬居官在任，寶惠、尊煌留京應試在制度上並無問題。但自茲而始，京官時期錢儀吉為兒孫們提供的種種教育條件已不復存在，其餘幾位隨之南歸的兒輩也將踏上未知的漂泊之旅。

### 三、大梁時期錢儀吉的家庭教育實踐與效果

道光十二年冬，錢儀吉回到故鄉，借居大伯母金孝維家，暫作休整。錢泰吉自海昌歸，兄弟二人連日共讀，述先世遺聞軼事，向往日後同居耕讀的生活。此時錢儀吉已受兩廣總督盧坤之聘，將往廣州學海堂任教，並於次年四月下旬抵達。錢儀吉次女已嫁桐鄉沈寶禾，三女嫁德清戚士彥，同往嶺南的兒女應該只有四女、三子及幼子。

學海堂在粵秀山中，錢儀吉「與諸友商略經史，顧而樂之。課諸生為專經之業，定季課章程，頒日程，分句讀，評校著述，鈔錄四式，每課數十鉅冊，一一丹黃評覽，粵人之學益彬彬矣」<sup>33</sup>。剛到粵不久，他便「課兒講《左傳》，蕭然自得」<sup>34</sup>。他對故鄉姪輩的課業也益發關注，致泰吉信中必會關切姪輩讀書是否精進，自陳「老矣，所愛者養生家言，所望者子姪繼起」<sup>35</sup>。

在粵期間，體弱多病的錢儀吉不習慣嶺南風土，遂於道光十五年（1835）夏與當初聘他來粵的盧坤告辭，計劃七月離開。許諾為他籌謀旅費的盧坤不久卻病亡，幸有廣東巡撫祁頊為他籌得千金，終於在九月二十日啟行。當時錢儀吉尚未確定接下來的去向，一度計劃去離家較近的江淮一帶書院謀職養家。同年老友周之琦（1782-1862）邀其往故鄉大梁書院執教，錢儀吉起先雖不願過去，但人才淵藪的江南一帶似乎很難求得教席，他終於在道光十五年冬定下去開封教書一事。

跟隨長兄在京的次子尊煌是年參加了順天鄉試，但並沒有成功，隨後回故鄉完婚。尊煌元配柞溪程韻，字均仲，是錢儀吉京官時代的舊交程同文之女，她的母親吳玖是程同文繼室，畫家，也是陳爾士的舊識。程同文、吳玖此時俱已謝世。儀吉三子

<sup>29</sup> 《清宣宗成皇帝實錄》卷一七九，道光十年十一月三日。

<sup>30</sup> 《庚子生春詩》卷下，道光二十年序刊本，葉 4b。

<sup>31</sup> 《中國紳士》，頁 138。

<sup>32</sup> 長秀等奉敕撰《欽定禮部則例》（道光二十四年）卷八十五「生監科舉鄉試」，葉 5a。

<sup>33</sup> 蘇源生《書先師錢星湖先生事》。

<sup>34</sup> 1833 年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sup>35</sup> 1834 年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寶宣將在次年赴京迎娶朱鴻之女柁曾，朱鴻是秀水人，翰林院編修，精於算學，也是儀吉京中摯友。這兩段婚姻應該在儀吉京官時代即已訂下，是合乎彼時儀吉身份地位的聯姻。

然而錢儀吉已無精力與盤費回鄉操辦次子婚事，便命寶惠在京措大錢三百千文，寄到泰吉處，拜託泰吉夫婦料理。恰好這年泰吉長子炳森也剛娶婦蒯氏，蒯氏祖母錢與齡是錢汝恭幼女，儀吉、泰吉姑母。比起婚事，錢儀吉更關注尊煌的功課，命尊煌婚禮之前都住在叔父處，請泰吉「務督其三、六、九按期作文，一期勿曠。因其渾身本事，只有幾篇爛墨卷，再一生疏，無可為也。至改文費心，吾弟斷不可用心，但令常做，則筆熟而有氣，可以望售。近來本無所謂題理題神也」<sup>36</sup>。

道光十六年（1836），尊煌夫婦來到大梁。這一年，錢儀吉四女叔琬嫁史善載次子致昌為繼室，暫居北京<sup>37</sup>。十八年，史致昌長兄致蕃出守福建福寧府知府，致昌全家亦相隨赴閩。致昌次年主講開封彝山書院，年末攜眷來到開封。這是離開北京後錢儀吉全家最為團聚之時，除了十九年病逝的次女，其餘諸子女都在身邊。二十年春，享受著久違的團圓的儀吉喜作《生春詩》三十首，子女媳孀孫輩齊奉和，刊成《庚子生春詩》上下兩卷。他在信中與泰吉傾訴此間心境：

兄率兒輩讀書，矻矻有年矣，自來大梁，家人散而重聚，妾婦輩亦相敬愛。大兒年長，於道理稍有所見。近年同讀遺書，講求先世文字事跡，亦間經史大義，我父子間實有安貧之樂，目中諸公袞袞，或未有此耳。五倫在門內者三事，父子有親，夫婦有別，長幼有序。必有親而後有此父子，否則父不欲有是子，子且心非其父，何以為父子。必有別而後有此夫婦，否則夫不欲有其婦，婦則詬誶於其夫。必有序而後有此兄弟，否則不友不敬，於是兄弟夫婦之道失，而父子之道亦苦矣。治家之法，所當兢兢業業，朝夕不忘者惟此，所以讀書者亦為此。

儘管錢儀吉始終想要回故鄉，從未將開封視為終老之地，但大梁書院時期，他的生活相對安定平穩，讀書著述益勤，學術與思想亦趨於新境。他對書院學生的水平一向不太滿意，學生中能作詩者不過三數人，博覽詞藻自不及粵人，只有「士風整肅」還算難得。他也一針見血地指出，河南人才北宋以前極盛，如今漸衰，主要是因為士子不知何為讀書，而以時文弋獲科名為讀書，所以陷入讀書人益少、人才益不出的惡性循環<sup>38</sup>。對此，他悉心傳授讀書之法：

教士各就所志而導之，或問性理，或談詩文，因材施教，不拘一格。頒日程，課讀經及語錄文字，旬日考定甲乙，隨課升降。又屬河道張公捐置經史諸籍，勵諸

<sup>36</sup> 1835年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sup>37</sup> 史致昌道光八年順天鄉試中舉，因道光九年、十二年兩科姊婿陸建瀛分校禮闈，依制迴避史致昌（王辰閏重九寄和莫毅農同年），《修筠閣詩草》卷一，哈佛燕京圖書館藏同治癸亥刊本，葉12a。

<sup>38</sup> 1840年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生學。輯《賦選評註》，刊劉念臺《人譜》，又屬方伯張公刊《近思錄集註》，頒發書院。諸生遊其門者，如固始蔣湘南，商邱陳凝遠，密縣翟允之，洛陽曹肅孫，祥符徐錢齡，皆彬彬有以自見<sup>39</sup>。

錢儀吉服膺朱子，在學海堂時就對留心詞章的學生，多特令讀《朱子大全集》，以培其本來，到大梁後也屢屢以此教導學生。在教授作文時，「不敢以揣摩時墨誤之，講文字只是命意有線索，遣詞須經典，而局勢句法，皆凡學文者不廢，不僅時墨也，而一切皆原本於命意，意必生於義理，則亦講義理而已，何他求焉」<sup>40</sup>。

漢宋並重是錢儀吉一貫的學問之道，也是其教育實踐的準繩。他很早就對泰吉說過：

窮經以小學為本，漢人之小學，文字故訓也；宋人之小學，灑掃、應對、進退也。二者正宜兼習，不可偏廢。此即君子尊德性、道問學之大端。欲尊德性，則容貌詞氣必宜慎之又慎。觀曾子「所貴乎道者三」一節可見。若欲致力問學，則必先熟《爾雅》，而他經之詁訓，悉參其異同。佐以《說文》《廣韻》，則文字訓詁可以粗了。至治經，看一家之書，且守一家之說，不可以自己有意見。……讀史以制度典章為重。史家本有二派，治亂興衰一也，制度典章一也。顧興亡之跡，其理即具於經，考史以證經耳。至一朝因革損益，利弊之由，非講求有素，則徒善不足以為政<sup>41</sup>。

官場失意、南北飄零的經歷使他更願意向所謂先人遺澤、五百年家風中尋找寄託。他曾向泰吉詳論當世各家註疏長短，並提示治禮學之門徑：

竹村《儀禮》是家學，賈疏恠略增訂，不難也。詩疏最精，碩甫所以敢為之者，小學功夫深於《說文》，以之訂《毛詩》之訓，故差可耳，不必震乎其名也。《禮書》《通考詳節》皆可看者，然陳用之說經，不是從源頭上來，但取其一事見諸經者，薈萃一處耳。然又不如看《五禮通考》矣。凡講一事，甚費心力，至極繁瑣，而終至明白，則此工夫不為徒用。若東西綴輯新語，似乎無所不有，而實則一無所有。即《通考》所編各事，已不若本史中之源頭清澈。蓋皆有一時之風氣，一時之時勢，看了全局，雖難而易記。若更節之，則只可為策料而已。今說此，似乎大言，其實明一事，了一事。古來事勢大旨，亦非甚難明者。而經中之大疑義亦並不多，得一本以貫之，搃可通。如《說文》者，雖甚繁而至捷。

他對胡培翬的《儀禮正義》評價一般，認為陳奐《詩毛氏傳疏》之所以精緻，是因陳奐精通《說文》。這些評價並非對外公開，因此無所顧忌。但錢儀吉也承認這樣的治學法不太適應試，忙於考試的兒孫還是要先應付墨卷為要。他時常向泰吉分享大梁書院的講授經驗，比如教導蘇源生作文須考究每個字詞的意義、掌握識字校勘之

<sup>39</sup> 蘇源生《書先師錢星湖先生事》，《碑傳集補》卷十，葉 8b。

<sup>40</sup> 1840 年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sup>41</sup> 《（錢泰吉）年譜》道光十三年條，葉 18b-19b。

法：

若我輩作文，用一字必求其來歷，即常言俗語，如字義可通，即俗亦雅。若字義不可通，即今人常用，亦不必學之。弟校書自自然常檢字書，亦可以得益也。孟子之辨事未能學，姑師韓子識字，何如。姪輩讀經，尤以識字為急<sup>42</sup>。

道光二十年，寶惠、尊煌、寶宣同往北京參加順天鄉試，寶惠、寶宣中舉，回開封準備次年的會試，尤其是書法醜劣的寶宣須著重練字；落榜的尊煌則被錢儀吉安排回故鄉掃墓。但次年恩科，寶惠、寶宣俱報罷，暫回開封，「惟有努力讀書，勉求心得，庶幾他日有以自立」<sup>43</sup>，之後俱往河北坐館謀生。當時大梁書院共有五十六名學生，錢儀吉為他們新添寫經功課，鈔寫《易》《書》《詩》《左傳》《周官》《儀禮》正文，並命之讀親自摘錄的《二程全書》《近思錄》《道一錄》《強學錄》等性理書。他將課程單和鈔經格式寄給泰吉，建議姪輩不妨也嘗試鈔經<sup>44</sup>。這一年，他致泰吉信中頻繁論及與英軍交戰等時局，一方面是憂心國事，另一方面也因故鄉距海岸不遠，憂慮尤甚。更糟糕的是，這年夏天黃河決堤，大水圍開封城，大梁書院遭水，諸生逃散，錢儀吉一家也流離失所，不得不暫居朋友家，好在老幼平安。曾經以闔家團聚開封為喜，遭此則計劃回鄉安頓兒女為上，「不至如目前全局在此之可危」<sup>45</sup>。他在信中請泰吉等故鄉親友尋覓可居住的房屋，但由於經濟困難和祖屋被佔等問題，始終難以落實。

道光二十二年四月，英軍進攻乍浦，不久乍浦淪陷，死傷慘重。遠在開封的錢儀吉獲聞故鄉兵氛，不知詳情，十分焦急，在給泰吉信中對姪輩讀書有一番痛切的叮囑：

今則甚望諸姪治經之暇常看史鑒，漸能通達時勢，並窮達處世之方。此為至要。數十年來，非鈺釘之字書，即空疏之墨卷，人才汨沒，追恨無涯。而朱子之書，如《語類》《大全集》等一字不觀，尤為陷溺。其心之甚者，相與警前勉後者惟此。幸弟切諭之，並廣布之族戚間也。

面對家園失陷、內憂外患，錢儀吉認為背後的原因有數十年來讀書人沉迷考據或時藝，以致人才泯滅，希望姪輩研習正統經學之外也應熟知史事，並強調理學書對人才培養的意義。姑且不論他給出的解決方案是否可靠，但他已清楚意識到世變之重大，家族中年輕一輩必須有所應對。與此同時，新上任的河南巡撫鄂順安卻要求錢儀吉教大梁書院諸生試帖詩，令其選改刊刻，這正是儀吉一向厭惡的「空疏墨卷」，只好感慨「此亦無用之學，而在我則為職業，不可辭也」<sup>46</sup>。

<sup>42</sup> 1840年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sup>43</sup> 1841年四月十二日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sup>44</sup> 1841年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sup>45</sup> 1841年七月廿六日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sup>46</sup> 1842年七月十二日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然而動蕩的局勢很快給錢儀吉帶來更直接的打擊。自道光二十二年《南京條約》簽訂後，清廷須償付巨額賠款，自然要清查戶部庫銀，隨後二十三年三月二十六日，清查結果是戶部庫銀虧短竟有 925 萬 2000 餘兩之多，「殊堪駭異」。道光皇帝下令，「自嘉慶五年至道光二十三年歷任庫官查庫御史各按在任年月，每月罰賠銀一千二百兩。已故者照數減半」<sup>47</sup>。因十餘年前錢儀吉曾辦理稽查戶部銀庫事，此番也被追責，「罰金累鉅萬」。錢儀吉在嘉興既無房產，全家上下無一人在原籍，因此官府追查時首先要訊問儀吉姪孫，即儀吉大伯母年幼的嗣曾孫。遭此巨變，真如「以蚤負山，其勢必至齏粉，而且未有已也」<sup>48</sup>。窮窘絕望中，錢儀吉四處求借，又遣寶惠遠赴桂林，向時任廣西巡撫的同年老友周之琦求助，此外只有依靠閱讀《近思錄集解》一書穩定心神<sup>49</sup>。

一片慘淡中，赴試應舉仍是兒孫們不可耽誤的大事。道光二十四年，尊煌、柶孫二人北上應試，同年九月，捷報傳來，時年二十四歲的柶孫舉順天鄉試。錢儀吉幾乎不敢相信這樣的喜事，「傳觀名紙尚狐疑」，慶幸錢家「科名十二世於今」<sup>50</sup>。轉年春，寶惠、柶孫（後更名錢柶）父子北上參加會試，俱報罷，仍回開封。此時錢儀吉似已下定了回故鄉的決心，遣寶惠夫婦先回嘉興，一面侍奉年逾九旬的大伯母，一面尋找全家居住的房屋。有人建議寶惠捐官，或有速選知縣之法。或許此時家中很難湊出一筆捐資，此事據錢儀吉稱並未實現<sup>51</sup>。但在錢應溥之子駿祥的硃卷中卻記錄寶惠是「國史館議敘候選知縣」，這應該是利用舉人資格報捐而來的候選資格<sup>52</sup>。道光二十六年夏，錢儀吉四女叔琬病卒。僅五十四日之後，寶惠又病死故鄉。錢儀吉所受打擊可想而知，歸鄉卜居的理想從此再難實現。

錢柶服闕後，參加了道光三十年的會試，中式第一百八十二名。但未揭曉時的四月初七日，錢儀吉病卒開封，錢柶作為長孫，須丁承重憂，無法參加殿試<sup>53</sup>。按清代制度，殿試前接到家報，需要丁憂守制者，不得應殿試，謂之「告殿」，凡告殿者准於下一、二科補殿試<sup>54</sup>。直到咸豐六年，錢柶才參加殿試，列二甲第七十四名，交吏部以知縣簽分山西候補<sup>55</sup>。清代中後期，除翰林院書常散館以知縣用者可以迅速得

<sup>47</sup> 《宣宗成皇帝實錄》卷三九一，道光二十三年四月六日。

<sup>48</sup> 1843 年五月廿一日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sup>49</sup> 1843 年四月初十日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sup>50</sup> 錢儀吉〈柶孫舉京兆試志喜四律述懷中警並以示昆，甲辰秋九月〉，《衍石齋晚年詩稿》卷五，1932 年刊本，葉 5b-6a。

<sup>51</sup> 錢儀吉〈哭大兒寶惠五百三十字〉句「有友為汝謀，勸汝速謁選。卓哉老成言，求仕勿為縣」，注「或為兒謀捐輸資，冀可速選。兒商于郡學教授未齋周君而止，周舊為天津令，有循良之譽」，《衍石齋晚年詩稿》卷五，葉 12a。

<sup>52</sup> 《光緒乙酉科順天會試錢駿祥硃卷》，天津圖書館藏光緒間刻本，葉 3b。

<sup>53</sup> 錢儀吉編、錢駿祥續編《廬江錢氏年譜續編》卷五，遼寧省圖書館藏排印本，葉 58a。

<sup>54</sup> 張希清、毛佩琦、李世愉主編，李世愉、胡平著《中國科舉制度通史·清代卷》，上海人民出版社，2015 年，頁 236。

<sup>55</sup> 《廬江錢氏年譜續編》卷五，葉 64b。《嘉興府志》卷四十七選舉四，葉 66a。

缺，一般進士可能等候較久。咸豐八年，錢枬充山西鄉試同考官。又四年，錢枬弟錢瑋奉母李介祉間關數千里至晉，就錢枬夏縣官舍。未幾，錢枬卒，沒有功名的錢瑋留在山西坐館，直到母親去世後才南歸。錢泰吉次子應溥為他謀館，穀於潤州道署<sup>56</sup>。

此際錢家子孫離散各地，尊煌後來捐得候選刑部司務的官職，久客於汴，同治七年歿。元配程韻早已亡故，繼配沈氏與兒女回到吳門，受堂姪錢應溥贍養。僅知尊煌有一女嫁周之琦子汝策，此外均無從考察。而寶宣道光二十七年（1847）參加會試，得薦卷，揀發甘肅，補用知縣。天平天國亂後輾轉入蜀，同治八年入成都官書局，彝甫也投奔至成都，後為廣東試用通判，應該也是利用捐納獲得的資格<sup>57</sup>。光緒元年，寶宣被聘為成都尊經書院主講，弟子中有學者廖平，此亦可視為清後期浙江學風遷移蜀中之一例。光緒五年，錢瑋卒於潤州。六年，彝甫重刊《衍石齋記事稿》《衍石齋記事續稿》各十卷，並《刻楮集》《旅逸小稿》。光緒十八年，錢儀吉三女仲愉卒。儀吉子孫輩數十年來「各以衣食奔走」，或早逝，或無功名顯赫者。光緒二十六年四月初七，跟隨伍廷芳出使外洋，剛從秘魯嘉里約正領事卸任的寶惠孫錢樹滋病歿於歸國輪船中<sup>58</sup>。此後，錢儀吉遺稿逐漸星散市中，他生前傾盡心血搜羅整理的家族資料也未能順利刊版。

錢儀吉子孫中，錢枬應該是天份最高的一位，三十歲即通過會試，本有希望稍稍改善錢家景況，卻因丁憂守制錯過兩屆殿試。等到三十六歲獲允參加殿試，雖同榜有翁同龢等在晚清政壇極具影響力的學者，錢枬卻未能入選翰林院等清貴機構，而是遠赴山西「衝繁中缺」之地任知縣，從此與政治中樞絕緣，最終湮沒無聞。

#### 四、錢泰吉的課子經驗與效果

作為對照，本章將視線轉向錢泰吉一家。由於父親錢復曾輾轉多地擔任中下級文官，錢泰吉四歲時就跟隨母親沈太恭人北上，來到保定，入私塾開蒙。當時泰吉長兄友泗尚在世，已就學北京。六歲時，泰吉隨專任升遷的父親來到吳橋縣，跟隨沈鳳輝讀書。十歲又隨父北上大興，先後從沈澍、徐景淳、吳蔭暄、沈方錢讀書。十五歲父親病卒，十六歲侍母扶父柩南歸，其時錢儀吉會試報罷，居於鄉里，泰吉每日就兄長論詩古文詞，郡人交稱曰「錢氏二石」。

嘉慶十三年，十八歲的泰吉服完父喪，參加縣學童試，以經義古學置第一入嘉興縣學。此後跟隨族孫錢爾琳（1766-1844）學習，屢次參加鄉試。從備考到赴省城應試，都需要莫大的開支，母親沈太恭人「食貧茹苦，節縮餐錢」，為泰吉準備舟船旅

<sup>56</sup> 《廬江錢氏年譜續編》卷六，葉 26ab。

<sup>57</sup> 《光緒乙酉科順天會試錢駿祥硃卷》，葉 4a。

<sup>58</sup> 「錢樹滋，浙江嘉興縣人，由難蔭知縣，捐分省補用同知，隨臣出洋，派充秘魯嘉里約正領事官，保衛商民甚為得力。旋以三年期滿，稟請銷差回華。竟因積勞觸瘴，歿於舟次。」〈伍廷芳片〉，《申報》1901年9月9日第12版「奏疏彙錄」。



費。每番發榜落第，總是安慰勉勵他，令其擴充學養，不要焦躁。嘉慶二十年，沈太恭人病故，泰吉守喪，服闕後繼續參加鄉試，仍報罷。接下來的道光元年秋試又繳羽，遂援例以訓導候選，即利用捐納制度以廩貢生身份獲得候選資格<sup>59</sup>。由於等待銓選的時期無法確定，捐納只是獲得了一定的身份保障，若能在此期間順利中舉，自然是更好的結果，因此泰吉仍未放棄科舉，尤用力於舉業。錢儀吉曾在信中這樣安慰和建議：

弟秋試竟不入闈，毅力可佩。四百年著述，責在吾弟，勉之慎之。弟姪輩試作，略已評論，具大兄稟中。然科名正不必急急，所憂者，質墮於習，變化為難。失意可弔，得意亦可弔耳。言之喟然。兒輩近課荒廢，講書正苦無人，每日生書理書外，並無日程可錄者。聞銘恕姪文理漸通，宜因其質之所近，專守一書，日為講貫數百字，講法詳略淺深，亦須視其所到之地位，總以學生心開目明，乃為有益<sup>60</sup>。

但道光五年，泰吉仍落第，時年三十五歲的他決定從此不再應試，專心治學。應付長期考試需要足夠的經濟能力，多次落選對人的心理也是巨大折磨，及時抽身未嘗不是一種理智的選擇，況且還有捐納的候選資格作為最低保障。清代不少知名學者的科舉之路都不太順利，比如名滿天下的戴震四十歲才中舉，六次參加會試均報罷；焦循三十九歲中舉，此後也沒有通過會試，遂絕意於科舉。道光七年，泰吉選授杭州府海寧州學訓導，開啟了清貧但相對穩定的生活。這類教職「向稱冷官」，因為「位卑祿薄」，好處是「事簡責輕」，遠離宦海風波<sup>61</sup>。泰吉偶讀仇遠「官冷身閒可讀書」之句，深有同感，遂以「可讀書齋」作為書齋名<sup>62</sup>。此後，應試的寄託和壓力也全部轉移到兒輩身上。錢泰吉十九歲時娶同鄉監生胡斌之女，胡氏很長壽，育有兩子四女，泰吉晚年與側室還育有兩女。泰吉精通版本目錄之學，課子時尤其重視版本的選擇：

《周禮讀本》以德清袁氏櫪校刊本為善，正文句讀、音切頗清晰，便於童蒙。若欲觀鄭氏注、陸氏音義，則嘉善周氏福禮堂本為善<sup>63</sup>。

不過泰吉對女兒的教育似不如儀吉重視，他提及女兒，只是感歎她們的純孝，如長女在他病後「叩頭祈禱，頭為之腫」<sup>64</sup>；四女只是讀過《小學》《孟子》，「頗知禮法」而已，不見有詩名<sup>65</sup>，不似儀吉諸女均擅長詩文書法。當然，儀吉諸女的基礎教育應歸功於陳爾士及儀吉側室姚靚的付出。與錢儀吉一樣，泰吉也為長子和次子定過課程單，他關於《劉巖山家塾規》的一則雜記可以略窺其課子宗旨，以及自己當

<sup>59</sup> 《甘泉鄉人稿》卷末附錢應溥撰《（錢泰吉）年譜》，同治十一年刊本，葉 8a-11b。

<sup>60</sup> 錢儀吉〈與四弟泰吉書第四首〉《衍石齋記事稿》卷二，葉 35b-36a。

<sup>61</sup> 陸以湑《冷廬雜識》卷七「學官聯」，中華書局，1984年，頁 370。

<sup>62</sup> 《（錢泰吉）年譜》，葉 15a。

<sup>63</sup> 錢泰吉〈周禮讀本〉，《曝書雜記》卷上，收入《甘泉鄉人稿》，同治十一年刊本，葉 10b。

<sup>64</sup> 錢泰吉〈自臨法帖及雜書跋〉，《甘泉鄉人稿》卷十一，葉 18a。

<sup>65</sup> 錢泰吉〈校陳后山集跋二則〉附錄，《甘泉鄉人稿》卷五，葉 16a。

年的應試之法：

十五志學之後，仿《讀書分年日程》治經之法而稍變通之，當鈔讀御纂、欽定諸經，而輔以古註疏。日課則以《叢山家塾規則》（附刻《人譜》後），蓋子弟不能不以舉業為正課。《叢山家塾規》以三六九為會課之期，午膳後搜講書所及之時藝數篇，擇其佳者閱之，蚤膳後溫書，申刻治古書一冊，燈下看《通鑒》五葉，朔望考一月課程之勤惰，以行賞罰。考畢學詩歌，歌畢閒評古今道理，互相質難。乃假若能如此用功，何患精力值不充，日力之不足，而過亦自此寡矣。以此應舉，庶幾無愧<sup>66</sup>。

自康熙後期至乾隆年間，官方一直有意識地向各地書院及各級學校頒發御纂、欽定書籍，鼓勵民間書坊翻印銷售，以廣流傳<sup>67</sup>。道光十五年夏，長子炳森（初名炳森，字子方，號景山，1816-1854）補嘉興縣學生，遠在廣州學海堂的錢儀吉獲知此訊，極感欣悅，在致泰吉信中說：

警石吾弟大喜。子方采芹，聞之大快。我安慶公支下文字之祥，二十年來久郁不發，得此風氣一開，若曹兄弟輩科名鵲起，而我兩人可以著書以老矣。大兄信中，知子方文筆甚好，非偶爾弋獲者。秋期在即，佇望鵬搏<sup>68</sup>。

所謂「二十年來久郁不發」，是說錢汝恭子孫中，很長一段時間內無人中式。儀吉、泰吉兄弟的自我期許無外乎傳統讀書人的著書終老，但這一切都以兒輩順利通過科舉考試為前提。於是錢儀吉又在信中殷殷指點讀書之法：

《禮書綱目》似繁重，易窒文思。開卷《士冠禮》，即須看《儀禮註疏》，不若熟理《小戴記》，就陳氏《集說》，略講大意。有不可通者，翻翻註疏。然治經不如治史有益於文字，看《史記》不如《漢書》，看司馬公《通鑒》不如《記事本末》。此就現在讀書欲兼舉業者言之也。若果欲通經，非看註疏、看《說文》《爾雅》諸書不可，弟試酌之。

又稱寶惠「從前早看註疏、講《說文》，未免文心因茲窒滯。然是筆路本窒，否則博觀正可精取耳」，而寶惠困於場屋，主要因為運氣沒到<sup>69</sup>。次年炳森參加鄉試，錢儀吉期待他「能即僥倖一中，豈非大快」，但事實並沒有這般理想。此後泰吉常將孩子們的文章寄給儀吉請教，儀吉曾在信中批評炳森「襲墨調」，「鄙意不以為然，宜令讀書，讀古文，讀天、崇、國初文為是」。然而炳森之所以會揣摩時文，也是因為久試不第。學問文章的出色並不意味著應試順利，炳森雖從小接受精英教育，勤於功課，擅長詩文，入縣學後先後受知於浙江學政李國杞、羅文俊，在學校考試中也獲高等，但鄉試仍屢屢受挫。錢儀吉一向擔心姪輩鑽研墨卷，敦促泰吉將他們「引入

<sup>66</sup> 《曝書雜記》卷中，葉 23b-24a。

<sup>67</sup> 曹南屏〈清代科舉的知識規劃、考試實踐與士子群體的知識養成〉，頁 147。

<sup>68</sup> 1835 年六月十七日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sup>69</sup> 1835 年九月九日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讀書正路」，「書理必須講求，世事必須通曉」<sup>70</sup>。

道光十九年，泰吉次子、比炳森小八歲的應溥（1824-1902）順利進入縣學，錢儀吉甚為喜悅，認為這是泰吉「苦心教習，漸有大效」。聽說應溥尚未聯姻，也給出意見：

幸勿聯姻富室，搃以慈善人家閨秀耐勤苦而有卷軸氣者，乃為上耳。論人才曰賢曰能，往往不得兼也。如子以賢為貴，亦無取能耳耳。

並認為自己為兒子們聘婦都是「無意中所定，差免大謬」<sup>71</sup>。錢儀吉的四位兒婦中，長媳與四媳來自親眷聯姻，次媳、三媳是他京官時代好友之女，都是書卷氣濃郁的閨秀。數年後，應溥娶海寧許嘉猷孫女。許嘉猷官沛縣知縣，受教於錢豫章，與錢復、錢福胙為摯友，曾被錢開仕聘為館師，與儀吉亦有舊交，解任後借寓嘉興城內。泰吉初至海昌，就曾請謁，贈送家族文集多部<sup>72</sup>。許氏雖出身詩禮之家，幼時卻未接受教育，婚後才跟隨丈夫認字，漸知文義。不過她敦厚純孝，這一點很合乎錢儀吉的標準<sup>73</sup>。泰吉此際向儀吉為應溥求字，儀吉認為「溥之意為廣大，字之自應收斂向里，乃合古義」，遂取朱熹詩「舊學商量加邃密，新知培養轉深沉」，取字「子密」。應溥在學校成績優異，很受學政羅文俊賞識<sup>74</sup>。

對於兒輩屢試不第的困境，錢儀吉對泰吉多有寬慰，也是自明心志：

吾與弟皆不幸早歲失怙，承訓之日無幾，今亦惟賴讀先世遺書，想見萬一，勉力盡心，教子姪以讀書循理。心地中有一片藹然仁厚意思生出，即可為自家一生立命處，保家室，有子孫，亦必原本於此。科第仕官，未得思之徒勞，既得副之亦不易，非敢薄之也，而實不足為輕重。秀才背考籃，但素位而行可耳。不必以此擾擾胸次，妨我讀書之樂也。後生小子，亦何能及此。然不可不存此意，徐俟有得，則至樂存焉。

困頓窮窘之中，先人遺著是重要的心理支撐，可以強化錢氏子孫的身份認同，抵達理想的讀書境界。當時正值儀吉諸子參加順天鄉試之時，結果未知，前途難卜，只有自我慰解說不應以科舉成敗擾亂內心，妨礙真正的讀書之樂。應試與讀書之間的矛盾深刻困擾著他們，錢儀吉也只有反覆以先人嘉言善行勸之導之，並令泰吉告之兒輩謹記心中，勿為流俗所擾；又敦促子姪輩「倍尊敦實庸行，講求義理之學。《中庸》一編，必須徹上徹下，用力一番」<sup>75</sup>。

泰吉將儀吉這番教導細細與兒輩講說，並鈔一通寄給同族姪輩，令其傳誦講解，

<sup>70</sup> 1844年錢儀吉致錢泰吉信，《錢儀吉日記書札輯存》（外二種），頁161。

<sup>71</sup> 1839年錢儀吉致錢泰吉信，中國國家圖書館藏鈔本。

<sup>72</sup> 錢泰吉〈讀許同先生遺稿雜識三則〉，《甘泉鄉人稿》卷十三，葉5a。許嘉猷編《許順庵老人自述年譜》，中國國家圖書館藏道光間刻本，葉34a。

<sup>73</sup> 《廬江錢氏年譜續編》卷五，葉65a-66b。

<sup>74</sup> 《廬江錢氏年譜續編》卷五，葉44b。

<sup>75</sup> 1844年1月17日錢儀吉致錢泰吉信，《錢儀吉日記書信輯存》（外二種），頁160。

但也坦言對於忙著應試的兒輩來說，講求義理、追求真正的學問實在太難：

弟已無科舉之累，亦尚未能潛心義理，總由文字之障未除也。舉業代聖賢立言，果能實力奉行，較他文字尤易近道。兒輩究是根本未立，所以理路不清，專咎墨卷，墨卷豈任咎哉。現且令理經，能熟讀正文後，各就性之所近，稍立牆壁，不失為讀書種子，足矣。科舉得失，弟已淡焉。置之不敢奢望。喫有菜飯，著可補衣，為童子師，先人餘澤，或未歇絕也<sup>76</sup>。

道光二十四年秋，炳森考中浙江省鄉試第五十四名。錢枬亦中這一屆鄉試，錢儀吉在開封晝夜探問故鄉姪輩有無上榜的消息，但一無所知。待看到浙江鄉試題名錄，只見錢氏僅炳森一人，卻不知就是泰吉之子——此前炳森一直用舊名「銘恕」，因而十分煩悶，以致於齒痛大作<sup>77</sup>。又過兩日，接到大伯母金孝維寄自故鄉的書信，才知道炳森就是銘恕，此名是請人新改，頓時狂喜不禁，「叔姪同科，固為佳話，尤妙在我兩人之子孫」<sup>78</sup>。科舉時代的人們有很多迷信，比如久試不第者有時會請人排八字、重新起名或字。儀吉難免受此影響，想到久試不第的長子，感慨過大姪炳森字「子方」比寶惠字「子萬（萬）」更出一頭，而尊煌、寶宣也都改過名字。炳森轉年參加會試報罷，泰吉寬慰兒輩「仕宦科第不足為榮」，最重要的還是「守遺澤，讀舊書」，「無負先人之訓」<sup>79</sup>。他在給儀吉的信中也談到這種心境：

吾家文字，又值發祥之時，此後仕學，各立本根，各成局面，則在諸子弟之善讀先世遺書，善守先人家法矣。吾兄及弟，廩廩數十年，幸見子孫次第掇取科名，兄之所成就者，可以息肩矣。弟則尚茫然不自知其何以為子弟法也。如何如何。二十年來，父子燈下講論誦讀之日，卻亦不少。兒曹功名若遂，則此樂渺不可得矣<sup>80</sup>。

在沒有得到功名之前，徹底放棄並不容易，畢竟也有人終身應考，比如錢儀吉從子繼善「篤志舉業，暮年猶赴省試不輟」<sup>81</sup>；在激烈的競爭與反復的失敗之下，又只能以謙退自守加以開解。不過泰吉對兒輩的教導很快將有矚目的成效，道光二十九年，二十六歲的應溥充選拔貢生，次年與錢枬同中式會試，並順利參加覆試、殿試、朝考，覆試一等第一名，朝考二等第二十五名，欽點七品小京官，分吏部文選司學習<sup>82</sup>。比應溥大三歲的錢枬因服喪錯過了這次殿試選官的機會，從此踏上與應溥差距懸殊的人生之旅。同年，一直沒有考中進士的炳森在又一次的會試失敗後充國史館膳錄，後考取景山官學教習。景山官學是專為旗人子弟設立的學校，原本以新進士老成者充漢教習；雍正後，漢教習以舉人、貢生考取，三年期滿，咨部敘用，是收容會

<sup>76</sup> 錢泰吉《甘泉鄉人稿》卷二，葉20ab。

<sup>77</sup> 1844年11月25日錢儀吉致錢泰吉信，《錢儀吉日記書信輯存》（外二種），頁167。

<sup>78</sup> 1845年1月3日錢儀吉致錢泰吉信，《錢儀吉日記書札輯存》（外二種），頁171。

<sup>79</sup> 錢應溥〈先兄子方行略〉，葉3a。

<sup>80</sup> 1845年九月初錢泰吉致錢儀吉信，《甘泉鄉人稿》卷二，葉22ab。

<sup>81</sup> 《廬江錢氏年譜續編》卷六，葉16b。

<sup>82</sup> 《道光三十年庚戌科拔貢朝考同年齒錄》第二冊，中國國家圖書館藏道光間韞寶齋刊本。

試落第舉人的過渡身份，錢福昨曾考取的咸安宮教習也屬於同樣性質<sup>83</sup>。但炳森在咸豐四年病卒，留有六子二女，均由應溥照拂成人。

此後應溥入軍機處，錢泰吉也因此得誥封。咸豐十年，太平軍陷浙江，泰吉避至深鄉，轉年應溥歸鄉，又與父親乘船經海路逃亡至上海，換小船抵九江。已入暮年的錢泰吉流離失所，「晚年遭寇亂，扁舟落江淮」<sup>84</sup>，固極慘淡；但僥倖生存，又算萬幸，因為錢家親眷中有不少死於戰亂的無辜老幼。同治元年，錢應溥受曾國藩之招，奉父母至安慶，次年錢泰吉病卒，曾國藩撰墓表，尤其稱賞錢儀吉、泰吉兄弟「宗主義理，不薄考據」的調和漢宋之旨<sup>85</sup>。

應溥後來回到中樞，官至工部尚書，任方略館總裁，子姪均有成就。錢泰吉摯友沈濂曾回憶泰吉親自主鈔《詩經》課兒的風景，說他注重選擇善本，而應溥在科舉和官場的成就則成為這段往事最有說服力的註腳：

世人課學僮，不求善本儲。麻沙謬相授，往往淆魯魚。錢子昔閉關，課兒就塾初。手寫三百篇，大字光琳珎。音聲及點畫，辨析窮錙銖。冠以子夏序，義兼毛鄭朱。驥子兩丸髻，摳衣趨座隅。琅琅聲續續，翻瓶瀉水如。余時常在旁，靜聽神為愉。倏忽三十載，邦國交令譽。觥觥國子師，上舍經苗畬。父書謹藏弄，出入必與俱。通神化首卷，惆悵心盤紆。疾書補其闕，不敢煩鈔胥。惟選續談史，惟固成彪書。專門守舊德，事異心不殊。雕版古未有，點漆以書觚。想見宣尼筆，授經于庭趨。術業箕裘行，規模堂構扶。孰云遺子孫，贏金欲有餘<sup>86</sup>。

## 五、結語

以上透過錢儀吉、泰吉兩家課子實踐的個案分析，探討了家庭教育和科舉成就的關聯。

錢儀吉、泰吉自幼跟隨在外任官的父親輾轉南北，也都經歷了父親的早逝。他們繼承家學，從小受到良好的教育，顯露出過人的才華，但二人的科舉結果卻全然不同。很早考中進士的錢儀吉在教育兒輩時傾向學者式的精英教育，注重經史小學，對時文墨卷頗為厭惡，但他自己應試的成功經驗卻很難在兒輩身上複製。他在歷史地理方面的專長與興趣使他可以勝任會典館總纂的任務，但他任官戶部時卻在覈查假照、稽查銀庫等實務性工作上屢出紕漏，也導致他日後遭罷官乃至離職十數年仍被追繳庫銀的命運。這當然不是錢儀吉一人的問題，這些清貴的高級文官基本不具備實務能力，具體工作都交給胥吏處理，自己則專注交遊著述；對龐大官僚機構的漏洞與積弊渾然不

<sup>83</sup> 《清史稿》卷一百六，志八十一，選舉一，學校一，中華書局，1977年，頁3113。

<sup>84</sup> 翁同龢〈題錢警石先生《冷齋勘書圖》〉，謝俊美編《翁同龢集》，中華書局，2021年，頁1093。

<sup>85</sup> 曾國藩〈海寧州訓導錢君墓表〉，《甘泉鄉人稿》卷首。

<sup>86</sup> 沈濂〈題警石手鈔詩經〉，《蓮溪吟稿》卷八，中國國家圖書館藏咸豐四年刊本，葉九ab。

察，或即便有所覺察也無所措置，直到系統出現更嚴重的問題而勉強彌縫。很難假設，如果錢儀吉沒有被罷官，兒孫們的科舉之路是否會稍稍順利；但可以推測，倘若如此，錢儀吉的經濟狀況可能稍有改善，久試不第的兒孫應該會在更早的時候有機會利用捐納等方式尋出路。

錢泰吉在科舉之路上連鄉試環節都沒有突破，但幸有教席棲身，近與故鄉親族及在地學者交流，遠與兄長時時書問請教，事實上擁有很好的研究環境，因而精於校勘，著述豐富。這種相對安定的環境和他深厚的學養乃至應考方面的失敗經驗，都是兒輩應對考試的重要資源。應當注意的是，雖然日後應溥仕途順暢，但當中有很大的運氣因素，個人資質和家庭教育都不能保證這一結果。錢儀吉去世前後，兒孫中有二人中舉，一人通過會試，比泰吉兒輩情況稍好。但中舉的寶惠早亡，通過會試的錢侶因丁承重憂等待六年方允殿試，可見通過考試只是科舉之路上種種考驗的一環而已。

再看錢儀吉、泰吉兩家的聯姻情況。錢儀吉有一位家庭富裕且受過教育的妻子，為兒女選擇婚姻時，長子、幼子和三女與親族聯姻，次子、三子、次女、幼女與官員子女聯姻，他們都是浙江人，或祖籍浙江。錢泰吉的妻子是監生之女，由於他社會地位不顯，兒女們也多與親眷或沒有正途功名的人結親。而待應溥進入中央，續娶的就是安徽巡撫程霖采之女。但聯姻對維繫家庭地位的幫助並不明顯，同樣進士出身的兩個家庭為兒女聯姻，若兒輩無法用正途或異途獲得功名，仍難免困境；而考試的壓力將傳遞到下一代身上，重複漫長的備考、等待與失敗，以及可能突然降臨的、概率很低的成功。

何炳棣揭示，明清中國，人口的倍增與技術的停滯，使社會長期的向下流動趨勢無法避免。本文所舉的兩個個案中，從位極人臣的錢陳群而下，眾多子孫所經歷的無疑是「向下流動」，到錢儀吉、泰吉這一輩已祖產無多，經濟窘迫。錢儀吉的身份地位因科舉成功而有所上升，但至兒輩又繼續向下。錢儀吉雖已清楚認識到盲目應試對涵養學問、培養人才沒有什麼用處，讀書人應對時事有更清楚的認識，但他的思維很難脫離傳統社會知識精英的框架與立場，對兒輩的期望仍是積極參與考試。錢泰吉次子應溥科舉順利、在太平天國之亂中受兩江總督曾國藩之召出任幕僚，積累了日後回歸中樞的重要政治資源；錢泰吉也因次子獲得誥封，昔日身在縣學時情人所作〈冷官勘書圖〉，在他身後經應溥之手又得諸多名流題跋，甚至不乏「君家聞望兩浙高，尚書風采傾群僚」之類的諛詞<sup>87</sup>。錢儀吉當初從京中短暫歸鄉，與泰吉相約「願買田一雙，耦耕傍先隴」的夢想，在兒輩身上也沒有實現。被科舉選拔制度捆綁的人生固已不自由，清代後期迭起的內外戰亂更使傳統知識精英的耕讀之夢無從實現。錢應溥晚年遇庚子事變，寓所鄰近使館，槍彈橫飛，大受驚擾。他在衰病中南歸，在憂憤歎息

<sup>87</sup> 趙烈文《能靜居日記》同治六年五月初七日，樊昕整理《趙烈文日記》，中華書局，2020年，頁1458。

中死去<sup>88</sup>。這已是科舉廢除的前夜，此後精英學者家庭教育的模式及讀書傳統也將發生深刻的變化。

---

<sup>88</sup> 朱福詵〈誥授光祿大夫賞戴花翎頭品頂戴軍機大臣工部尚書方略館總裁嘉興錢公墓志銘〉，閔爾昌錄《碑傳集補》卷四，葉 6b，沈雲龍主編《近代中國史料叢刊》第 100 輯，文海出版社，1973 年，頁 285。





# 元代における海運運営体制の展開

## Development of the Shipping Management System in the Yuan Dynasty

矢澤 知行 (Tomoyuki Yazaw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development of the shipping management systems in the Yuan Dynasty in China. I analyze the changes in shipping management systems by dividing them into five periods, and I point out that each period has its own trends. In addition, I discuss the world-historical significance of shipping at that time.

KEYWORDS: モンゴル元代, 海運, 江南, 官僚, 船戸

### 1. はじめに

13世紀の前半、中国の華北を支配下に置いたモンゴルは、世祖クビライ期の1276（至元13）年に南宋の都臨安を開城させ、江南一帯の統治に着手した。南北中国の一体的運営を目指すなか、大運河の復旧整備による内陸水運の充実に努めるとともに、海運という新たな選択肢を加えた。その結果、当時の中国大陸において圧倒的な生産量を誇った江南の糧食が、長江下流域から海上輸送で北方の大都首都圏にもたら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この海運事業は江南地域社会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そこに見られる構図は、“征服王朝モンゴルによる江南収奪”という単純な側面ばかりではない。モンゴルと江南の間には漢人その他さまざまな立場の人びとが介在したし、江南在地の人びとの海運への関与のしかたも一様ではなかった。海運をとりまく状況は時代を通して複雑なまま推移したといえる。

本稿では、元代における海運の運営体制の展開過程をたどるために、海運に関わった人びとを具体的に上げながら論じる。元朝から派遣された監督官、その下で実務に携わった幕僚官、現場で海運を担った船戸などが、各時期において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それがどのように変化していったのか。また、そこにどのような意味があるのかといった課題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めざしたい。

\* Professor of Chinese history at the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E-mail: tyazawa@intl.kindai.ac.jp

## 2. 先行研究と問題の所在

元代の海運に関する先行研究を概観するところから始める。まず、海運草創期の担い手であった朱清や張瑄の事績を明らかにした藤野彪らの研究<sup>1</sup>や、内陸水運との関係まで視野に入れた星斌夫、高栄盛、松田孝一らの総括的な研究<sup>2</sup>が挙げられる。それらをふまえつつ海運を江南政治社会史の中に位置づけ、緻密な論を展開したのが植松正である<sup>3</sup>。また、最近では、陳波や陳彩雲らが研究を進展させており<sup>4</sup>、分析の対象や考察の視点も、海運官の人事構成や運営組織とその機能、海運と塩政の関係など多岐にわたっている。このほか、海運に携わった船戸など個別の人物に焦点を当てた陳高華、張琰玲、段海蓉らの研究<sup>5</sup>や、元末の海運に焦点を絞った壇上寛らの研究<sup>6</sup>、元代の海運をユーラシア規模の貿易の中に位置づける四日市康博の研究<sup>7</sup>もある。

つづいて、元代における海運の展開過程を簡潔に示す。まず、世祖クビライ期の1283（至元 20）年に最初の海運を成功させたのが、海賊・塩徒出身でモンゴル元朝に帰附した朱清と張瑄らであった。彼らは成宗テムル期にかけて海運の実績を重ねるとともに、そこから上がる利益をもとに大土地所有を行うまでになった。しかし1303（大徳 7）年、朱清・張瑄とその一族は誣告によって失脚し、莫大な財産は没収されてしまう。

朱・張一族の失脚以降も、元代の海運事業はその規模を着実に増大させ、仁宗アユルバルワダ末期の1319（延祐 6）年には、ついに年間の運到糧数が300万石を超えた。その間の海運をめぐる事情や数値データなどは、官撰の『経世大典』に由来する史料『大元海運記』に具体的に記載されている。しかし、同史料のデータは1329（天曆 2）年で記録が終了しているため、それ以降の事情の解明は断片的な史料に頼らざるをえない。

元末の時期にさしかかると海運事業は滞りがちになった。これは主として方国珍や張士誠らの諸勢力が江南各地に割拠し、海運の主要拠点港が攻撃されたり、糧食の主要な供給源だった官田が占領されたりしたためである。モンゴル元朝による江南支配はそうした状況の中で終末を迎えていくことになる。

<sup>1</sup> 藤野彪 1954, 植松正 1968.

<sup>2</sup> 星斌夫 1959; 1982, 高栄盛 1983, 松田孝一 2000, 矢澤知行 2006.

<sup>3</sup> 植松正 2003; 2004; 2007.

<sup>4</sup> 陳波 2010; 2011; 2013, 趙彦風・李晶晶 2017, 陳彩雲 2018a; 2018b; 2020, 陳彩雲・鄭凱倫 2021.

<sup>5</sup> 陳高華 1995, 段海蓉 2013, 翁沈君 2017, 張琰玲 2017.

<sup>6</sup> 壇上寛 2001; 2003, 陳波 2010; 2011, 陳彩雲 2018a.

<sup>7</sup> 四日市康博 2006; 2021.

元代の海運をめぐる以上のような概要はすでに明らかにされているものの、なお検討の余地も少なからずある。問題の所在を以下三点に分けて示す。

一点目は、海運事業に携わった人びとの役割やその特徴に関する問題である。植松、陳波、陳彩雲は、それらの人びとをいくつかのカテゴリに分類して論じている。三者が提示する分類にはそれぞれ特色があり、各々が論証しようとする要点に沿って情報が整理されている。後述するように、植松は海運への関与のしかたをふまえて4つに分類した。これに対し、陳波や陳彩雲は海運官の官職名をもとに人びとの役割を分析する手法をとっている。本稿では、三者の研究を参考にしつつ、特徴の異なるいくつかの人物群の存在を想定しながら考察を進めていく。

次に、海運の運営体制の変遷についても検討すべき課題が残されている。星が朱・張失脚以降の海運について“直接経営的性格があらわれてきた<sup>8</sup>”と述べたのに対し、植松は官民協調<sup>9</sup>の体制だったと結論づける。また、後述するように、植松と陳波はそれぞれ独自の時期区分を示して海運の変遷過程を説明したが、このうち陳波は、忠実な専門官僚を任命することによって海運管理の強化を図った時期<sup>10</sup>があることを指摘した。これは星の所説の補強とも言える。本稿では、海運事業に関与した人びとの動向をさらに仔細に検討し、上述の人物群についての考察をふまえながら、海運運営体制の展開を5つの時期に分けて論じる。

最後にもう一点、モンゴル元代の海運をめぐる評価についての課題も挙げておく。海運は「征服王朝」である元朝にとって中国江南の富を収奪するための重要な手段だった、というのが通説的な理解であろう。しかし植松は、江南の人びとを単なる収奪の対象として見るのではなく、海運事業に参画した複数の「海運世家」に着目し、彼らが“みずからの利益を追求してやまないとくましい<sup>11</sup>”存在だったと論じた。これに対し陳波は、海運万戸などの要職に就き、そこから利益を得ることができたのは、元朝の中枢とつながりを持つごく一握りの富民・豪民であり、海運体制も基本的にその江南地主階級の既得権益を維持・強化する構造のもとで形成されたと述べる<sup>12</sup>。同様に陳彩雲も、北方出身の海運官と南方の海運官との間に待遇などの面で大きな隔たりがあったことや、江南の人民が重税などの面で不当な扱いを受けたこと、私塩の管理や沿海地域の治安維持に綻びが生じたことなど、海運のもたらした社会矛盾が元朝没落の一因となったと論じる<sup>13</sup>。一方で、趙彦風・李晶晶は、

---

<sup>8</sup> 星斌夫 1959, p.55.

<sup>9</sup> 植松正 2004, p.155, 植松正 2007, p.18.

<sup>10</sup> 陳波 2013, p.89.

<sup>11</sup> 植松正 2007, p.18.

<sup>12</sup> 陳波 2013, pp.92-93.

<sup>13</sup> 陳彩雲 2018b; 201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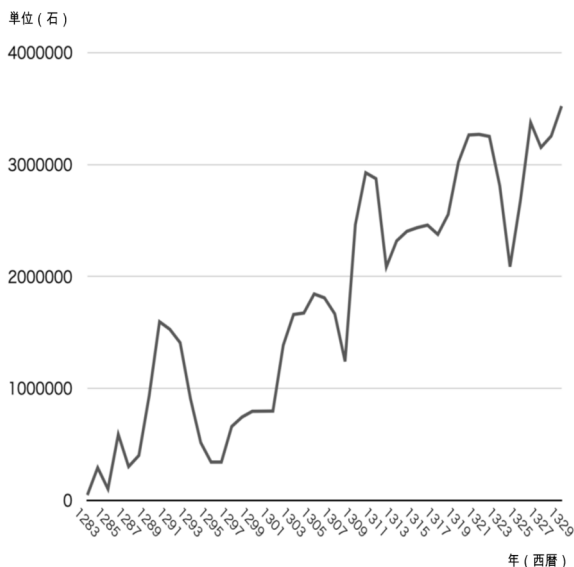
元代の海運が比較的長期間持続し、一定の成果を挙げた理由として、中央と地方の連携や、糧食の集荷から到着までの一連のプロセス、それらを管理する職掌と問題改善スキームなどが整備されていたと評価する<sup>14</sup>。このように、元代の海運にはさまざまな側面があり、いずれの評価にも重要な指摘が含まれている。そのうえで、本稿の最後では、モンゴル元代の海運が歴史上どのような意義を持っていたのかという点にも論及してみたい。

### 3. 元代における海運運営体制の概要

#### (1) 海運をとりまく状況の推移

モンゴル元朝の南征軍が南宋の首都臨安に入城したのは1276（至元13）年、海運が開始されたのはその7年後、1283（至元20）年のことである。その後の展開について、まずはその外面的な状況を確認するところから始める。

元代海運の基本史料『大元海運記』には、海運の沿革や組織体制の変遷などのほか、年ごとの運到糧数の数値データが記載されている。その推移を示したものがグラフ1である。年次を追うごとに数値が増加していることが見て取れるが、大きな伸びを示した期間や、数値の落ち込んでいる年も幾度かあったことがわかる。運到糧数が増減した直接の要因として、糧食供給地であった江南の作況や大都首都圏の穀物需要、海運時季の天候状況、海運船の稼働



グラフ1 海運運到糧数の推移（出典：『大元海運記』巻下）

<sup>14</sup> 趙彦風・李晶晶 2017.

数の増減などが考えられる。それらの複雑に絡み合った結果がこのグラフに表れていると理解できよう。

その一方で、中央政局の推移というマクロ的な要因も視野に収める必要がある。モンゴル元朝は、世祖クビライの跡を継いだ成宗テムルの死没（1307（大徳11）年）以降、後継者争いが頻発するなかで、徐々に衰退への道を歩んだと理解されることが多い。とりわけ仁宗アユルバルワダの死没（1320（延祐7）年）から恵宗トゴン・テムルの即位（1333（後至元年）年）までの十余年間は、7人の皇帝が短期間で交代するなど不安定な政局が続いた。ところが、この期間の運到糧数を見ると、泰定帝イエスン・テムル期の1324（泰定2）年こそ大きく減少したものの、天暦の内乱が起こった1328～29年には完全に持ち直すなど、総じて順調な伸びを示している。この点だけ見ると海運は中央の政局と無関係に実施されていたかに映るが、海運に従事した官僚などのミクロ的な動向を併せて考えると、後述するように別の側面が浮び上がってくる。

## （2）海運に関わる諸要素

ここからは、海運の内実の部分構成する諸要素にも目を向けつつ、前章で挙げた研究上の課題について、行論の方向性を示していきたい。まずは海運事業に関与したさまざまな人びとの役割やその特徴について考える。植松は、海運にかかわった人びととして、①官僚的海運監督官、②地方の実務的官人、③「船もち」としての海運業者、④海運業者に雇われる梢工や水手などの労働者を挙げ<sup>15</sup>、このうち③の具体像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主眼として研究を進めた。一方、陳波は、海運万戸府の人事変遷に着目し、その正官すなわち海運万戸と副万戸の任命状況を一覧表にして示し<sup>16</sup>、朱・張失脚後の海運実施体制を人員構成の面から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そして陳彩雲は、海運に携わった官員たちを、①監督官としてのダルガ（ダルガチ、達魯花赤）、②海運機構の正官としての万戸・副万戸、③海運府に属する千戸・副千戸、④海運機構の幕僚官に細かく分類して論じた<sup>17</sup>。これらの研究にはそれぞれ注目すべき点があるものの、なお検討の余地も残されている。例えば、植松が挙げた①官僚的海運監督官と③海運業者は、時として重なり合う場合があるし、③海運業者もその事業規模や活動範囲、権能などの面で上から下までさまざまなランクがあった。また、陳波や陳彩雲の分類も、官職名をもとに人びとの役割を整理しようするものだが、同一官職でも時期の移り変わりとともにその役割が変化するこ

---

<sup>15</sup> 植松正 2004, p.113.

<sup>16</sup> 陳波 2013, pp.85-88.

<sup>17</sup> 陳彩雲 2020, pp.136-139.

ともあったと考えられる。

次に、海運運営体制の変遷に着目する。植松は、元代の海事問題・海運体制からみた時期区分として、①桑哥専権期まで、②それ以後、③順帝（恵宗トゴンテムル）から元末までの3期に分けたうえで<sup>18</sup>、海運開始から盛時に至るまでを次の6期に区分して論じた<sup>19</sup>。

- 1 朱清・張瑄を頼って海運体制に着手した極初期（1283-86年）
- 2 桑哥専権期に色目人勢力を背景に行泉府司のもとに四万戸府が編成された時期
- 3 桑哥失脚にともない朱清・張瑄を中心とした二万戸府（途中から三万戸府）が編成された時期（1291-1303年）
- 4 朱清・張瑄失脚後の再編期
- 5 武宗の即位とともに色目人勢力がまき返して万戸の増員が行われた時期（1307-10年）
- 6 仁宗以後の海運体制の確立期

一方、陳波は、海運万戸府の正官の人事変遷を手がかりにして、朱・張失脚後に対象を絞って、次の4つの時期区分を示した<sup>20</sup>。

- I 朱清・張瑄の失脚後の人事が混乱した時期（1303-11年）
- II 海運の充実期に向けて体制の整備が進んだ時期（1312-28年）
- III 人事任命に変化が見られ、体制が綻び始めた時期（1330-39年）
- IV 社会の危機に面して南人を重用せざるをえなくなった時期（1341-68年）

両者を比較しつつ、いくつかの課題を指摘する。まず、植松は、世祖クビライに仕えた財務官僚桑哥と江南在地の船戸であった朱清・張瑄との間の確執が、海運万戸府の組織変遷に反映されたと述べる<sup>21</sup>。それに加え、朱・張失脚以降についても、色目人とりわけ財務行政を司る尚書省所属の西方系官僚の動向をふまえて時期区分を行った。このことは、前節で触れた中央政局とも関連する。つまり、成宗テムル死没以降の不安定な政局の背景には、モンゴルの皇族間の対立、すなわち西方系財務官僚を重用しようとするグループと、これに批判的で中書省派の官僚を従えるグループとの対立があった。海運の組織体制のあり方が、その時々皇帝や皇族、権臣たちによって左右されたのである。例えば、武宗カイシャンは尚書省を復活させたことで知られているから、上記の植松の時期区分5の説明は理にかなっていない

---

<sup>18</sup> 植松正 2003, p.77.

<sup>19</sup> 植松正 2004, p.124.

<sup>20</sup> 陳波 2013, pp.89-90.

<sup>21</sup> 植松正 2004, pp.113-119.

る。一方、陳波は、植松の時期区分 6、すなわち仁宗アユルバルワダの即位（1311（至大 4）年）以後について、より細かな分析を行った。時期区分Ⅱ～Ⅳがそれにあたる。陳波の時期区分の根拠は、海運万戸府の正官に選任された人物それぞれの本貫や出身地、前職等の情報とその分析である。その分析結果には一定の説得性があるものの、後述するように、筆者の見解と異なる点も多々見受けられる。

ところで、筆者はこれまで、元代中後期における塩政の展開と、実際に塩政に携わった官僚の動向について、複数の論稿で考察してきた<sup>22</sup>。そして今回、さまざまな海運官を取り上げて分析作業を進めるなかで、かつて筆者が論じた官僚たちが海運行政の場面にもたびたび登場することに気づいた。海運と塩政、この両者に携わった人びとの相関関係を整理することによって、元代海運の展開過程について再考する余地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着想したのである。

#### 4. 元代における海運運営体制の展開

##### (1) 海運官をめぐる動向の整理

前章では、海運をとりまく状況の推移について概述したうえで、海運事業に関与した人びとの役割や海運体制の変遷といった諸要素について再検討を行った。ここからは、海運に関係した人物を取り上げながら具体的に論じていく。その第一歩として、次頁に図表 1 を提示する。縦軸には活動年代を、横軸には筆者の考える時期区分（後述）と海運において果たした役割をそれぞれ配し、各人物をおよその位置にプロットしている<sup>23</sup>。また、類似した特徴を持つ人物群を破線枠で囲み、また、親族関係にあるものを点線で結んでいる。一方、特徴が不明確な人物や、活動年代が不明確な人物も数名おり、そうした人物には記号？を付している。なお、各人物に関する典拠史料は次々頁以降にまとめて註記している<sup>24</sup>。

---

<sup>22</sup> 矢澤知行 2007; 2009, 2013; 2014.

<sup>23</sup> 各人物の活動期間や昇任状況などのすべての情報を正確に図示することは難しい。図表上の人物名の位置はあくまでもおよそのものである。

<sup>24</sup> 図表 1 には計 91 名の人物を載せている。この他にも、史料から得られる情報が断片的で活動年代などが不明なため、掲載できなかった海運官や船戸が約 40 名いる。





図表 1 典拠史料一覧

- \*1 『大元海運記』卷上下
- \*2 『元史』卷 93 食貨志・海運
- \*3 『元史』卷 166 羅璧伝
- \*4 『元史』卷 14・15 世祖本紀
- \*5 『元史』卷 23 武宗本紀
- \*6 『至正崑山郡志』卷 5 人物
- \*7 『正統崇明縣重修志』卷 7 武勳・名宦
- \*8 屠寄『蒙兀児史記』卷 113 朱清・張瑄伝
- \*9 『崇禎太倉州志』卷 9 海運
- \*10 『宣統太倉州志』卷 6 名宦・卷 7 義行
- \*11 朱珪『名蹟録』卷 3 朱旭壙志
- \*12 『正德姑蘇志』卷 40 宦蹟
- \*13 『元典章』工部卷 2 海道運糧船戸免除雜泛差役
- \*14 張養浩『歸田類稿』卷 13 故中議大夫平江海道都運万戸趙公墓誌銘
- \*15 袁桷『清容居士集』卷 29 浦經歷墓誌銘（浦椿）
- \*16 黃潛『金華黃先生文集』卷 30 費氏先墓石表
- \*17 黃潛『金華黃先生文集』卷 35 武略將軍海道漕運副万戸曹公墓誌銘
- \*18 顧清『東江家藏集』卷 31 封工部主事暨西趙翁墓誌銘
- \*19 黃潛『金華黃先生文集』卷 35 松江嘉定等処海運千戸楊君墓誌銘
- \*20 黃潛『金華黃先生文集』卷 33 楊仲弘墓誌銘
- \*21 黃潛『金華黃先生文集』卷 34 青陽縣尹徐君墓誌銘
- \*22 戴表元『剡源戴先生文集』卷 19 題沂州先賢考
- \*23 虞集『道園學古録』卷 41 昭毅大將軍平江路總管府達魯花赤兼管内勸農事黃頭公墓碑
- \*24 袁桷『清容居士集』卷 31 廬母王夫人墓誌銘
- \*25 鄧文原『巴西集』卷下 贈奉訓大夫婺源州知州飛騎尉祁門縣男陳君墓表
- \*26 虞集『道園學古録』卷 13 兩浙運使智公神道碑
- \*27 黃潛『金華黃先生文集』卷 23 元故中奉大夫湖南道宣慰使于公行狀
- \*28 『元史』卷 184 王克敬伝
- \*29 柳貫『柳待制文集』卷 9 元故海道都漕運副万戸咬童公遺愛頌并序
- \*30 柳貫『柳待制文集』卷 11 元故太中大夫海道都漕運万戸周公墓誌銘并序
- \*31 鄭元祐『僑吳集』卷 11 前海道都漕運万戸大名辺公遺愛碑
- \*32 黃潛『金華黃先生文集』卷 30 辺氏崇孝阡表
- \*33 王禕『王忠文公集』卷 23 故松江府判官致仕王公墓誌銘
- \*34 黃潛『金華黃先生文集』卷 34 中憲大夫淮東道宣慰副使致仕王公墓誌銘
- \*35 陳旅『安雅堂集』卷 9 王経歴惠政記
- \*36 吳寛『匏翁家藏集』卷 58 徐南溪伝
- \*37 程端学『積齋集』卷 4 靈濟廟事蹟記
- \*38 『元史』卷 194 褚不華伝
- \*39 黃潛『金華黃先生文集』卷 29 吳府君碑
- \*40 蘇天爵『滋溪文稿』卷 17 元故正義大夫僉宣徽院事周候神道碑銘
- \*41 鄭元祐『僑吳集』卷 11 海道都漕運万戸府達魯花赤和尚公政績碑
- \*42 朱德潤『存復齋文集』卷 1 江浙行省右丞岳石木公提調海漕政績碑銘
- \*43 朱德潤『存復齋文集』卷 1 資善大夫中政院使買公世德之碑銘
- \*44 朱德潤『存復齋統集』資善大夫海道都漕運万戸府達魯花赤買公惠政之碑并銘
- \*45 楊維禎『東維子文集』卷 23 重建海道都漕運万戸府碑
- \*46 楊維禎『東維子文集』卷 12 海漕府経歴司記
- \*47 鄭元祐『僑吳集』卷 11 亞中大夫海道副萬戸燕只哥公政績碑
- \*48 『民国衢縣志』卷 12 爵秩志
- \*49 朱德潤『存復齋文集』卷 4 送傅文博之京師序

- \*50 謝純『漕運通志』卷 10 直沽接運王公董古魯公去思碑
- \*51 朱德潤『存復齋文集』卷 3 海道都漕運万戸張侯去思碑
- \*52 『乾隆天津県志』卷 20 河東大直沽天妃宮碑記
- \*53 程端礼『畏齋集』卷 5 慶元紹興等処海運千戸朱奉直去思碑
- \*54 朱珪『名蹟録』卷 3 元故海道千戸曹君壙志
- \*55 黃潛『金華黃先生文集』卷 35 壘中大夫同知湖州路總管府事張公墓誌銘
- \*56 『道光重修膠州志』卷 24 列伝四 人物
- \*57 陳基『夷白齋稿』卷 12 海道都漕運万戸府達魯花赤脱因公紀績頌
- \*58 『元史』卷 42 順帝本紀
- \*59 貢師泰『玩齋集』卷 10 故中奉大夫江南諸道行御史台治書侍御史劉公壙誌銘
- \*60 『乾隆鄆県志』卷 7 壇廟・靈應廟
- \*61 『兩浙金石志』卷 18 皇元加封忠佑廟神之碑
- \*62 戴良『九靈山房集』卷 23 元贈壘中大夫台州路總管追封延陵郡侯吳君墓誌銘
- \*63 鄭真『滎陽外史集』卷 45 元故贈中憲大夫海道都漕運運糧万戸上騎都尉追封高陽郡伯韓公墓碑
- \*64 『元史』卷 187 貢師泰伝
- \*65 鄭文康『平橋藁』卷 14 潘紹宗小君墓誌銘

## (2) 海運運営体制の展開

ここからは、図表 1 をもとに元代における海運の運営体制の変遷について具体的な考察を進めていく。ここに示したすべての人物について詳細に論じる紙幅はないので、とくに注目すべき人物群をいくつか取り上げ、それらの特徴について論じながら海運運営体制の展開過程をたどっていきたい。まずは筆者が考える時期区分とそれぞれの年代を次の通り示す。

- A 海運の開始から朱清・張瑄の失脚まで (1283-1303 年)
- B 新興船戸の登場と海運運営体制の再構築 (1304-19 年頃)
- C 海運運営体制の完成・強化および財政部門化の進行 (1319-35 年頃)
- D 海運運営体制の動揺と改革 (1335-51 年頃)
- E 海運運営体制および江南支配の崩壊 (1352-68 年)

### A 海運の開始から朱清・張瑄の失脚まで (1283-1303 年)

時期 A における海運万戸府の制度については、すでに述べたように植松が詳細な検討を行っている<sup>25</sup>。朱清・張瑄ら有力船戸と桑哥ら西方系財務官僚との間の対立が海運万戸府の組織編成に影響したというのがその概要である。この時期に中心的な位置を占めたのは、朱清と張瑄と彼らの一党であり、これを一つの大きなグループ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朱清や張瑄の子孫や養子らがこぞって要職に就いたこと

<sup>25</sup> 植松正 2004, pp.113-124.

は史料上でも明白であり、その詳細はすでに指摘されている通りである<sup>26</sup>。朱清・張瑄の配下には、同郷の崇明出身者を中心とする殷明略・虞応文らとその子弟がいた。彼らは海運の実働部隊ともいえる中小規模の船戸であり、それぞれが海運千戸以下の官職に就いた<sup>27</sup>。中央からの選任ではなく、地元密着の形で配下の者を属官に選任することが常態化していた点は植松が指摘した通りである<sup>28</sup>。海運から得られる利益も、この朱・張の一党がほぼ独占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

次に、漢文史料上には明確に表れないものの、その存在を推定できるグループがある。モンゴル元朝による各地への海外遠征や、東南アジア・インド・イラン方面に範囲が及ぶ南海貿易、さらには内陸水運にまで活動の領域を広げていた、ムスリムを中心とする海商たちである。彼らを代表して海運万戸ダルガとなったのが西方系財務官僚の沙不丁<sup>シハーブッディン ウマル</sup>や烏馬兒<sup>ウマル</sup>であり、全体を束ねていたのが世祖クビライ期の権臣桑哥<sup>サンガ</sup>であった。つまり、植松が論じた上述の対立は、西方系の財務官僚が朱清・張瑄らの利益独占状態に風穴を開けようとしたために起こったと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両者の対立は、1291（至元 28）年、桑哥がクビライの信任を失い処刑されたために一旦は解消された。

ところで、ここで論及しておきたいのは、海運がそれじたい単独で成立してい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点である。例えば、海運の開始は当時の海外遠征と密接につながっていた。第 2 次日本遠征（1281（至元 18）年）の失敗後、第 3 次遠征も計画されたが中止になり、そこで用いる予定だった船舶の一部を「近海の有力な人戸」に払い下げて海運船として転用したことは植松が論じている通りである<sup>29</sup>。また、人員の面でも、朱清と張瑄は、海賊・塩徒から投降して元朝に帰附した後に、日本・占城・交趾への遠征に相次いで従軍した経歴を持っていた。同様の経歴を持つ初期の船戸は少なくない<sup>30</sup>。海運「万戸府」という元代の軍事組織の名称を冠しているのも、海運が少なくとも発足当初、軍事的な性格を持つ事業として認識されていたからにほかならない。

海運とのつながりが見いだせるのは、海外遠征だけでなく、海外貿易を含む海事全般に押し広げて考える余地もある。漢文史料上では明確な姿形が見えにくいムスリム商人たちが南海貿易に従事していた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通りだが、江南在地の船戸たちも、海運任務の遂行後に北方からの帰路を空船で帰ったとは考えにく

<sup>26</sup> 藤野彪 1954, 植松正 2004, pp.129-135 など。

<sup>27</sup> 翁沈君 2017。

<sup>28</sup> 植松正 2006, pp.124-126。

<sup>29</sup> 植松正 2003, pp.120-123。

<sup>30</sup> 図表 1 に見える范応礼もかつて高麗や交趾へ軍糧を輸送した功績ゆえに運糧百戸に任じられたし、後述する費拱辰も交趾遠征後に平江等処運糧万戸となった。

いし、実際に彼らは広範囲の海域に乗り出し始めていた<sup>31</sup>。つまり、両者が対立・競合していたのは海運事業をめぐるのことでないし、また、後述するように、時には両者の間に協力的な関係を見出すこともできる。

さらに、塩の流通との関わりについても指摘しておく。植松が述べるように、海運に携わった船戸は、本来の積み荷である江南の糧食に加え、専売品の塩などを積むことを黙認されるケースがあった<sup>32</sup>。いわゆる「私貨夾帯」である。海運に際して、船戸には水脚銭が十分に支給され、それを運用して利益を膨らませた者もいたようだが<sup>33</sup>、それでも飽き足らない一部の船戸にとって、塩の横流しという非合法的な活動から得られる利益は魅力的なものに映ったに違いない。

以上のように、時期 A の海運は、朱清・張瑄一党による独占体制のもとで行われた。しかし、海運の周辺領域をめぐる諸事情も考え合わせることによって広汎かつ複雑な背景が浮かび上がる。ともあれ 1303（大徳 7）年、朱清・張瑄の一族が失脚し、その多くが誅殺された。この事件を経て、元代の海運は新たな局面を迎えることになる。なお、朱清・張瑄の配下にあった船戸のうち、黄真、劉必頭、殷明略、徐興祖らは、誅殺の影響をそれほど受けなかったとされる。後述するように、彼らの子孫などが後継の船戸として、その後もたびたび史料に登場するからである。

## B 新興船戸の登場と海運運営体制の再構築（1304-19 年頃）

朱清・張瑄の失脚後、その抜けた穴を誰がどのようにして埋めるのかという点が問題となった。しかし前掲グラフ 1 の運到糧数の推移を見ると、1303（大徳 7）年以降の数年間、その数値はむしろ微増している。つまり、少なくとも外面的には大きな混乱が見られなかったといえる。先述のように、陳波は、朱清・張瑄失脚後の海運万戸府の人事体制を分析し、1303（大徳 7）年から 1311（至大 4）年までを時期 I として、漕府の人事が混乱状態に陥った時期ととらえた<sup>34</sup>。漕府の人員不足が起こり、元朝政府が海道万戸などの正官を直接任命しようとしたが、勃羅帖穆爾ボロテムルや阿散忽都魯アサンクトル、趙璧らが海運の実務に疎かったことなどをその理由とする。たしかに、そうした側面もあったと思われるが、運到糧数を見るかぎり、李可孫ボルクスンをダルガとし、忽都魯擦刺兒クトルサラルにこれを補佐させて新体制は発足し、それが一定の成果を見せたともいえる。陳彩雲は、この人事を評して、モンゴル政権にとって最も忠誠度の高

<sup>31</sup> 後述する時期 E の事例と思われるが、海運万戸の殷九宰が海運任務完了後に朝鮮に向かい、交易で大富を得たという事例が植松に紹介されている。植松正 2004, pp.157-158.

<sup>32</sup> 植松正 2007, pp.15-17.

<sup>33</sup> 植松正 2007, pp.10-14. なお、前掲の註 31 の殷九宰の事例も、水脚銭を元手にして貿易を行ったものと推定される。

<sup>34</sup> 陳波 2013, p.89.

いといえる人材を配置したと評価する<sup>35</sup>。実際、前者はチンギス・カン譜代の五投下の一つジャライルの出身であり、後者は建康路ダルガを務めていた阿里伯の子で、両者とも成宗テムル期の中央政府と緊密な関係にあった。

これに加えて筆者が指摘したいのは、新たな有力船戸が江南各地から勃興してきた点である。湖州・長興の費氏、平江・常熟の曹氏、澈浦の楊氏などがそれにあたる。これらの有力な船戸に共通していえるのは、時期 A の頃からすでに海運船戸としての活動の痕跡が認められるものの、朱清・張瑄の一派との関係が積極的に見出だせないという点である。それぞれ江南の浙西地方のなかでも主要な海運港や水運拠点を基盤として、にわかには成長を遂げた富民たちといってよいだろう<sup>36</sup>。彼らの勃興こそ B の時期の特徴と筆者は考える。

まず、湖州・長興の費氏については、植松が詳しく論じており<sup>37</sup>、図表 1 には費拱辰と費雄の父子を載せている。費拱辰は、1280 年代の交趾遠征の後に平江等处運糧万戸の地位を得、その次子にあたる費雄が跡を継いだ。費雄の活動年代を具体的に示す史料はないが、彼との姻戚関係をもとに活動年代を推測すると、費雄の妻が趙孟頫（1254-1322 年）の娘であったこと、費雄の娘元珍が陶宗儀（1329-1410 年）と結婚したこと、1356（至正 16）年の逸話として、同じく費雄の娘元琇（朱道存の妻）が登場することから、費雄が海鹽等处海運千戸、のち海道副万戸を務めたのは、少なくとも朱清・張瑄の失脚後、おそらくは 14 世紀前半の比較的早い時期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次に、平江・常熟の曹氏については、曹南金とその孫にあたる曹珪を図表 1 に載せている。このうち曹南金は、海運事業の最盛期にきわめ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と考えられ、やはり植松が詳細に論じている<sup>38</sup>。曹南金が最初に海道運糧千戸となったことが確認できるのは、1300（大徳 4）年である。これは朱清・張瑄の失脚以前だが、その後、1303（大徳 7）年に嘉定等处海運副千戸、1310（至大 3）年に海運副万戸へと出世する間、海運の実績を積み重ねていった。その後、引退して「優游自適」の生活に入ろうとしたものの、1322（至治 2）年に再び起用されて平江等处運香糶所千戸となった。以上が彼の主要な経歴である<sup>39</sup>。とりわけ、1311（至大 4）年の海運においては、同年の運到糧数の六割を超える約 175 万石を輸送

<sup>35</sup> 陳彩雲 2020, p.136.

<sup>36</sup> 筆者と同様に陳波は朱清・張瑄失脚後の費氏・曹氏・楊氏に着目し、「朱張伏誅と浙西・蘇南航海家族の隆替」として論じた。ただ、そこで氏が強調するのは、それぞれが宋代以来の系譜を持つという側面である。陳波 2011, pp.217-220.

<sup>37</sup> 植松正 2004, pp.140-152.

<sup>38</sup> 植松正 2004, pp.146-152.

<sup>39</sup> 陳彩雲は、曹南金が 1322 年に千戸となった理由を、南人ゆえ政治的基盤が弱く、抑圧されて降格されたと述べるが（陳彩雲 2020, p.138）、それは誤りであろう。

したとの記録があり、その点から見ても、まさに B の時期を代表する新興の有力船戸といえる。彼は 1324（泰定元）年に没したが、孫の曹珪が恩蔭して海道香糯所千戸の職を 20 年間務めたという。なお、曹氏は、当時の江南において豪商として知られた沈万三と並ぶ富民であったことが伝えられる。

つづいて、激浦の楊氏に目を転じる。楊氏については陳高華の専論があり<sup>40</sup>、図表 1 には楊梓と楊枢の父子を載せている。楊梓は、1292（至元 29）年からその翌年にかけてジャワ遠征に従軍した経験があり、その後、曹南金が海運副万戸に昇進したのと同年（1310）に海運万戸となったことが確認できる。しかしここは楊梓の次子にあたる楊枢も併せて考察すべきであろう。楊枢は、1301（大徳 5）年と 1304（大徳 8）年の 2 回にわたって西方のイラン方面へと航海し、うち 2 回目はガザン・ハンの派遣した使臣がフレグ・ウルスに戻る際に同行したという。このことじたい楊氏が、ムスリム商人や西方系財務官僚と深いつながりを持っ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その 5 年後にあたる武宗カイシャン期の 1309（至大 3）年、合八失が海運万戸府のダルガとなり、<sup>ムハマドタルド</sup>馬合謀但的、<sup>ハサンクトル</sup>哈散忽都魯がこれを補佐する体制が始まった。合八失は、朱清・張瑄時代に彼らと対立した先述の沙不丁の弟にあたり、<sup>シハーブッディン</sup>馬合謀但的は、陳高華の説に従えば、泉州を拠点とする大商として『元史』に名が見える馬合馬丹と同一人物である<sup>41</sup>。この体制が始まった翌年、激浦の楊梓が海運万戸に、福山の曹南金が副万戸にそれぞれ昇任したことから、楊氏らと西方系財務官僚との間に浅からぬつながり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つまり、南海貿易の経営に深く関与していた西方系財務官僚の勢力が、江南在地の新興船戸たちと協力あるいは補完しあうような形で、海運運営体制の再構築を行ったという構図が見て取れるのである<sup>42</sup>。

陳波は、朱・張失脚後の一連の人事変遷を経て、漕府の人員体制がようやく安定の時期に入り、海運の充実期に向けて体制の整備が進んでいったと理解する<sup>43</sup>。前掲の時期区分Ⅱ（1312-28 年）がそれにあたる。しかし、1312 年よりも前、遅くとも合八失がダルガに着任した 1309（至大 3）年には海運の運営体制が固ま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筆者は考える。というのも、同年の運到糧数が約 124 万石から約 246 万石へときわめて大きな伸びを見せているからである。すると、曹南金らの新興船戸が、朱清・張瑄らの抜けた穴を埋めるように海運の実績を積み、とりわけ

<sup>40</sup> 陳高華 1995.

<sup>41</sup> 陳高華 1995, p.247.

<sup>42</sup> 西方系官僚の影響下にあった海商たちが、本稿で論じている海運事業に協力的に参加したとは考えにくい。海運をめぐる協力関係というよりも、海外貿易なども含めて互いに棲み分けるような補完関係に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筆者は考えている。

<sup>43</sup> 陳波 2013, p.89.

1309（至大 3）年の貢献を評価されて、翌年の昇任が決まったという推測も成り立つ。

最後にもう一人、時期 B の後半期に海運に携わった人物として黄頭<sup>ホント</sup>の名も挙げておきたい<sup>44</sup>。唐世雄という別名をもつ彼は、江南在地の船戸ではなく、西域のタングートに出自を持つ。嘉興等处運糧千戸から温台等处運糧千戸を経て、1314（延祐元）年に海道副万戸となり、その後、万戸に昇進した。黄頭にかかる主要な史料として虞集が撰した墓碑があり<sup>45</sup>、そこから浮かび上がってくるのは、彼がいわば叩き上げの海運官だったという点である。海運万戸などの正官がみずから船に乗って運糧船隊を指揮するケースもあったことは趙彦風らが指摘する通りだが<sup>46</sup>、黄頭は在職中計 9 回にわたり海運を指揮し、あらゆることを熟知していたという。その経験をもとに「海運要務十カ条」を記したことからも、彼が海事の専門官僚としての性格を備えていたことが窺える。先述の曹南金も同様に自ら運糧船隊をたびたび指揮したとされるから、時期 B に活動した新興船戸の特徴として、このような現場主義的性格も挙げられるかもしれない。

以上のように、朱清・張瑄失脚後の海運運営体制の再構築の背景には、江南在地を中心とする新興船戸の登場と、彼らと結びついた西方系財務官僚の存在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

### C 海運運営体制の完成・強化および財政部門化の進行（1319-35 年頃）

B の時期を経て海運運営体制の再構築は進み、仁宗アユルバルワダ末期の 1319（延祐 6）年には、年間の運到糧数が 300 万石をついに超え、英宗シデバラ期の 1322（至治 2）年までその状況は続いた。このころには元代の海運運営体制はひとまずの完成を見たと考えてよいだろう。そして、仁宗アユルバルワダから英宗シデバラにかけては、科挙が再開されて漢人・南人官僚の登用が進むなど、一般に漢文化が保護された時代とされる。この時期に海運の運営体制に新たな変化が起こったと筆者は考える。

陳波が、時期区分 II として、海運の充実期に向けて体制の整備が進んだ時期（1312-28 年）を設定したことはすでに述べた通りである。氏は、元朝が海運輸送量を維持するために管理体制を強化する必要があり、王朝に忠実な専門的な官僚を任命したと述べ、具体的に「郝中議，唐世雄，智受益，于九思，王克敬，徐興祖」の 6 名を挙げた。このうち郝中議は本名を含め詳細不明の人物だが、1312（皇慶元）

<sup>44</sup> 段海蓉 2013。

<sup>45</sup> 虞集『道園学古録』巻 41 昭毅大将軍平江路総管府達魯花赤兼管内勸農事黄頭公墓碑。

<sup>46</sup> 趙彦風・李晶晶 2017, p.412。

年頃に海運万戸を務めたことがわかる。唐世雄は、先述の黄頭にあたる。これら 2 名の活動年代は前項の時期 B に該当する。そして、徐興祖は、朱清・張瑄の配下にあった船戸の一人であり、その子にあたる徐起賢が 1326（泰定 3）年に松江嘉定所海運千戸として襲職した。以上の 3 名は横に置き、その他の 3 名、すなわち智受益、于九思、王克敬について、以下、順に検討を加える。

まず、智受益（1254-1323 年）は河南南陽の出身で、虞集の撰した神道碑からその事績が判明する<sup>47</sup>。世祖クビライの 1284（至元 21）年に出仕して以降、湖広・江西・湖南など主として中国南半での政務を数多く経験し、1320（延祐 7）年あるいはその少し前に岳州路総管から海運万戸に転じた官僚である。若い頃には交趾遠征に従軍し、その時に漕運の分野で優れた実績を挙げ、昇進を重ねていったという。ただ、彼が海運万戸の職に就いた時はすでに老境に入っており、史料上では、建康での倉庫建設といった簡単な事績が確認できるのみである。そして三年後には、両浙塩運使として最後の任にあたったことがわかる。

次に、于九思（1268-1341 年）は北京薊丘の出身で、モンゴル語を習得してから、世祖クビライ末期以降、やはり中央や地方各地の職務を経験し、1322（至治 2）年に杭州路総管から海運万戸となった。年代から見て智受益の後任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于九思の海運万戸としての功績については、黄潛の撰した行状に詳しい記述があり<sup>48</sup>、海運船戸が糧食を集荷する際に、その地点までの輸送距離の遠近によって労力に差が生じていた問題や、春季の海運と夏季の海運とを比較して後者が気候の面で不利だという問題について、それぞれ均等化を図る法を立てたことなどが記されている。于九思の官歴を見ると、最初の頃こそ尚書省・中書省ビチクチなど中央官庁の職にあったが、1297（大徳 7）年に諸暨に赴任してからは、一貫して江南各地で任に当たっていたことがわかる。具体的には、1313（皇慶 2）年ごろから両浙塩運副使として私塩の取り締まりなどに携わり、海運万戸を務めた後は 1326（泰定 3）年に紹興路総管となり、最後は湖南に移って宣慰使として致仕の時を迎えた。

そして、王克敬（1275-1335 年）は、山西大寧の出身で、『元史』にも伝が見える主要な官僚の一人である<sup>49</sup>。江浙行省など江南各地の官と中央の監察御史などを歴任し、1328（天曆元）年に湖南道廉訪使から海運万戸となった。その官歴の中で気になるのは、1324（泰定元）年に紹興路総管となり、その後まもなく両浙都転塩使の任に当たったことである。紹興路総管としては于九思の前任であった可能性が高

<sup>47</sup> 虞集『道園学古録』卷 13 両浙運使智公神道碑。

<sup>48</sup> 黄潛『金華黄先生文集』卷 23 元故中奉大夫湖南道宣慰使于公行状。

<sup>49</sup> 『元史』卷 184 王克敬伝。



く、両浙塩運使としては智受益の後任もしくはその次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王克敬は、海運万戸を務めたのち、中書省参議や江浙行省参政に昇っている。

今ここに挙げた智受益、于九思、王克敬の3名は、官僚として明らかに共通した性格を持つ。いずれも中国北方出身のいわゆる漢人であったほか、江南を中心とする各地を転任し、両浙都転運塩司の正使や副使の任を務めた経験を持っている。両浙都転運塩司とは、旧稿でも論じた通り<sup>50</sup>、塩の専売を国家財政の中核に据えていたモンゴル元朝にあって、江南経済を制御するうえできわめて重要な位置づけの官署であった。つまり、上の3名は、北方出身の典型的な官僚であっただけでなく、塩政や漕運・海運など、財政関連の幅広い分野に対応できるスペシャリスト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江南内部で異動を重ねていた彼らにはおそらく相互の人的な結びつきがあり、官僚群としての集団意識を共有していたことも想像される。また、元統年間(1333-35)に海運万戸府経歴として海運の運営に携わった諸暨出身の王良に着目すると、彼は前職であった両浙都転運塩司経歴の時に、王克敬や于九思と密接な関わりを持っていた<sup>51</sup>。王良を含め、海運の運営体制のもとで幕僚官を務めたのは多くの場合、南人であった。彼らもたびたび財務に関わる見識を披露するなど、官僚組織の中でいわば自律的な動きを見せている。

さて、上述の3名の後、1330年代に海運万戸・副万戸を務めた官僚として、咬童<sup>トシツ</sup>、周仲、辺公らの名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彼らについてもそれぞれの事績を簡単に確認していこう。まず、咬童はモンゴルの阿魯威部出身で、1332(至順3)年の春に海運を主宰した際に海運副万戸を務めていた人物である。前職が江淮財賦都府同知であったことから財務畑の官僚だったと窺える。しかし、その後まもなく若くして亡くなった。次に、周仲は河南の衛輝汲県出身で、中央や地方の数多くの任を経験したのち、1333(元統元)年に揚州路総管から海運万戸に移った。任期中に死去しており、その功績は具体的には不明である。そしてもう一人の辺公は河北の大名出身で、本名は不明、周仲のおそらく後任として1333(元統元)年以降3~4年にわたり海運万戸を務めた。前職は吏部侍郎である。鄭元祐の撰による遺愛碑があり<sup>52</sup>、詳しい官歴の記載はないが、海運万戸としての事績は記されている<sup>53</sup>。その

<sup>50</sup> 矢澤知行 2013; 2014.

<sup>51</sup> 陳旅『安雅堂集』巻9 王経歴恵政記。

<sup>52</sup> 鄭元祐『僑異集』巻11 前海道都漕運万戸大名辺公遺愛碑。

<sup>53</sup> なお、辺公とは別人と見られる辺公佐という人物も史料上で確認できる。植松は両者を混同しているようだが(植松正 2007, pp.11-12)、それぞれの史料によると、辺公は大名出身で海運万戸、辺公佐は尉氏出身で海運副万戸(黄潛『金華黄先生文集』巻30 辺氏崇孝阡表)であった。辺公佐が海運副万戸として在職した年代は史料に明示されていないが、その祖父や伯父の没年などから、辺公と近い時期だったものと推測される。また、辺公佐の官歴を見ても、時期Cの官僚の特徴と符合する。

事績を見るに、船戸に支給される水脚銭の手配や天妃を祀る廟の建設などに奔走していることから、智受益らと同様の性格を持つ官僚だったとみてよいだろう。

以上のように、時期 C は、財政のスペシャリストが次々と海運万戸の職に充てられ、いわば管理官として海運の円滑な運営に従事するようになった時期と考えたい。その役割は、前述の時期 B の海運万戸すなわち現場を熟知していた曹南金や黄頭らとは性格を大きく異にする。同時に、従来の監督官すなわち海運万戸府のダルガのそれとも異なる。時期 A には沙不丁、時期 B には合八失などがダルガの任に当たっていたが、C の時期にはこれに該当する人物が見当たらない。その理由は不明だが、次のように考えられるのではないか。時期 B までは、モンゴル系や西方系の海運万戸ダルガが、江南在地の船戸たちからなる海運万戸以下を監督するという構図が見られた<sup>54</sup>。しかし、時期 C になると、王朝に忠実な北方系官僚が海運万戸として海運を「管理」するようになり、これを監督する立場のダルガは必ずしも必要でなくなった。江南からの利益獲得を重要視するモンゴル元朝は、海運万戸府を都転運塩司などと同様に江南における財政の一部門として布置し、その管理に適した官僚群を充てるようになった。こうして元代の海運運営体制は完成・強化されたのである。

では、時期 C において実際に海運に携わっていた現場の船戸に何らかの変化があったのだろうか。この期間に海運千戸などの職にあった人物として諸史料から導き出されるのは、先述の徐興祖の子にあたる徐起賢のほか、褚不華、呉漢傑、周貞らである。また、先述の楊枢も海運千戸として 1329 (天曆 2) 年前後まで任務に携わっていたことがわかる。彼らに関する史料は断片的なものばかりで、あまり詳しく論じることはできないが、いずれも B の時期に圧倒的な実績を誇っていた曹南金のような船戸と同列の存在には見受けられない。

また、1330 年代に入ると、『大元海運記』の運到糧数の記録も途絶えてしまい、海運をめぐる外形的な情報を得ることもかなわない。陳波は、1330 (至順元) 年から 1339 (後至元 5) 年までを時期 III として、人事任命の傾向に変化が見られ、体制が綻び始めた時期と解釈する。たしかに、氏が述べるように、海事と無縁だったモンゴル系の咬童が任じられたり、江南の運糧負担増大による弊害が深刻化したりしていることなど<sup>55</sup>、何らかの変化が生じていたかもしれない。江南地方出身ではない漢人官僚たちが、その在任期間中、「供給すべき穀物量」をいかに確保するかを最優先事項とし、江南現地の負担が重くなることをあまり意識していなかったと

<sup>54</sup> ただ、厳密には、時期 A には潜在的に西方系財務官僚と朱清・張瑄らの対立があったし、時期 B には前者と新興船戸に協力関係があったことが窺える。

<sup>55</sup> 陳波 2013, p.89.

したら<sup>56</sup>、海運に携わる現場の船戸や、糧食の生産労働を託される農民たちは大きなしわ寄せを受けたであろう。陳彩雲は、江南とりわけ江浙行省、さらにいえば平江路に税負担が集中し、その度合いが増していったと述べる<sup>57</sup>。そうした経済面の重荷だけでなく、漢人と南人の間の認識のギャップも増大して社会矛盾を生み、海運運営体制の破綻や、ひいては元朝による江南支配の崩壊につながったと強調する<sup>58</sup>。これらの見解の大筋を認めつつも、元代の海運に明らかな動揺が見られるのは、次に述べるDの時期ではないかと筆者は考える。

#### D 海運運営体制の動揺と改革（1335-51年頃）

先述の通り、1330年代以降は『大元海運記』の記録がないため、海運をめぐる概要のその後を知ることが難しい。しかし、時期CからDにかけて、モンゴル元朝が海運事業を重視し、これを制御可能な管理下に置き続けたいと考えていたことは間違いない。そうした状況のもと、1335（後至元元年）年から1341（至正元年）年まで海運万戸府ダルガを務めたのが和尚（華善）である。西域高昌出身の彼の事績については、鄭元祐が撰した政績碑に詳しく記されており<sup>59</sup>、1333（元統元年）年に即位した恵宗トゴン・テムルのもとで、彼が海運の運営体制の改革を委ねられたことがわかる。その後、1344（至正4年）年の春には、江浙行省右丞の地位にあった岳石木<sup>ジョセフ</sup>が、海運の梃入れに直接参与することになった。朱徳潤の撰による政績碑からその事情が読み取れるが<sup>60</sup>、興味深いのは、この史料に、同年の運到糧数が264万石余りだったと記されている点である。『大元海運記』記載の最終年にあたる1329（天曆2年）年の数値が352万石であり、1320年代の平均値が306万石だったのと比較しても、明らかに減少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264万石というこの数値は、岳石木による梃入れの成果を誇るために挙げられたものと推測されるから、1330年以降の約15年間の間に、海運体制は確実にその機能を低下させつつあったとみてよいだろう。なお、この間、1341（至正元年）年に海運副万戸の職に就いたモンゴル出身の燕只哥<sup>エンジゲ</sup>がおり、鄭元祐の撰による政績碑を通してその事績が確認でき<sup>61</sup>、私塩の横行や「賊」の制圧などに奔走していたことが窺える。

海運万戸府のダルガとして次に名前が確認できるのが、于闐出身の買述丁<sup>ホータン マイジュッディン</sup>であ

<sup>56</sup> 陳波 2013, p.89.

<sup>57</sup> 陳彩雲 2018b, pp.159-161.

<sup>58</sup> 陳彩雲 2018a; 2018b; 2020.

<sup>59</sup> 鄭元祐『僑吳集』卷11 海道都漕運万戸府達魯花赤和尚公政績碑.

<sup>60</sup> 朱徳潤『存復齋文集』卷1 江浙行省右丞岳石木公提調海漕政績碑銘.

<sup>61</sup> 鄭元祐『僑吳集』卷11 亜中大夫海道副萬戸燕只哥公政績碑.

る<sup>62</sup>。彼は 1347（至正 7）年に中政院使から海運万戸府ダルガとなり、海運体制が動揺を来しているなかで奮闘していた様子が、朱徳潤や楊維禎の撰による複数の史料から浮かび上がってくる<sup>63</sup>。そして買述丁がダルガとなった翌年、方国珍が浙東で蜂起し、その軍勢が 1352（至正 12）年、海運の最大の拠点である太倉の劉家港に襲来することとなった。

さて、ここに挙げた和尚、岳石木、買述丁の共通点として、いずれもモンゴル元朝の中枢に近い位置にいる高官だ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彼らが、先述の時期 C の海運万戸の中で最高位だった王克敬らよりもさらに格上であったことは、その品秩からも確認できる。運到糧数の減少に直面した元朝は、高官を送り込んで海運の運営体制の改革に本腰を入れようとしたと推量できるのである。

なお、陳波は、区分Ⅳ（1341-68年）の時期になると、海運万戸府に属する海運官として、江南在地の官員を多く登用する傾向が見られたと述べる<sup>64</sup>。例えば、1343（至正 3）年に海道漕運副万戸となった浙江衢州出身の鄭用和や、先述の劉必賢の子で、至正年間に慶紹所海運千戸となった劉居仁などがそれに該当すると思われる。しかし、詳細に見てみると、この頃海運万戸となった傅公（蕪州玉田）や張徳昭（滑州白馬）などは北方の出身である。陳波が述べる南人の登用は、そのほとんどが方国珍の蜂起後、これに対応するなかで行わ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それゆえ筆者としては、元代の海運が方国珍により直接的な打撃を被った 1352（至正 12）年を最後の転機と考えたい。

## E 海運運営体制および江南支配の崩壊（1352-68年）

最後の時期 E については簡潔に述べる。方国珍が浙江や福建などの海上勢力を束ねて蜂起したのは 1348（至元 18）年のことである。一方、河南でも 1351（至元 21）年に白蓮教徒の蜂起が起こり、それらが飛び火して、各地に諸勢力が勃興する形勢となった。1356（至元 26）年には、張士誠が江南経済の中心地といえる平江（現蘇州）を占領し、一方、朱元璋は集慶（現南京）を占領して互いに覇を競ったが、最終的には朱元璋が、江南を制圧したのち北進して大都を占領、恵宗トゴン・テムルを北走させて、新たに明朝を創始した。

元代の海運は、方国珍による太倉攻撃以降、確実に崩壊への道をたどったわけだが、その間やや複雑な経過をたどっている。方国珍と張士誠が、朱元璋に対抗する

<sup>62</sup> 張琰玲 2017.

<sup>63</sup> 朱徳潤『存復齋文集』巻 1 資善大夫中政院使買公世徳之碑銘、朱徳潤『存復齋統集』資善大夫海道漕運万戸府達魯花赤買公惠政之碑并銘、楊維禎『東維子文集』巻 23 重建海道都漕運万戸府碑。

<sup>64</sup> 陳波 2013, p.90.

などの理由から、元朝の懐柔に応じて従順な姿勢を一時的にとり、両者が共同して元朝のために海運を行うという一幕もあったのである<sup>65</sup>。

Eの時期における海運官についても一瞥しておくとして、1352（至正12）年に海運万戸ダルガに任じられた脱因<sup>トイン</sup>や、同年に海運万戸となった李世安、そして張士誠による平江陥落以降に海運万戸となった劉貞らが挙げられ、他にも多数の人物が諸史料上で確認できる。ただし、1360（至正20）年に福建から大都に糧食を臨時輸送した貢師泰の事例からも分かるように、元末の海運は時期Dまでのような組織的な体制をすでに失っていた。

以上、時期DからEにかけての海運をめぐる事情については、紙幅の関係で論証をかなり省いてきた。稿を改めて論じる予定である。

## 5. おわりに

本稿ではここまで、モンゴル元代における海運運営体制の展開について、海運事業に関与した海運官や船戸を具体的に取り上げ、その役割や特徴の変化をとらえながら論じてきた。その内容は次のようにまとめられよう。

まず、元代の海運運営体制の展開は、A～Eからなる次の5つの時期に区分することができる。海運開始当初にあたる時期Aには、朱清・張瑄らが海運事業の中心的役割を担っていたが、その独占体制に対抗し、海外遠征や南海貿易などの領域で活動するムスリム海商らも参入しようとした。しかし1303年、朱清・張瑄の一族が失脚すると、その抜けた穴を埋めるかのように新興の有力船戸が江南各地から続々と現れた。浙西地方の主要な海運港や水運拠点<sup>ハベシク</sup>を基盤に富民として成長してきた費氏・曹氏・楊氏らである。彼らと結びついた合八<sup>ハベシク</sup>失ら西方系財務官僚のもと、元代の海運体制は再構築された。これが時期Bである。その後、時期Cになると海運体制は完成段階に達した。1320年代、智受益ら海運万戸の職にある者がいわば管理官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海運万戸府は江南における財政の一部門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だが、やがて海運事業のピークは過ぎ、1335年以降、海運が低迷の時期Dに入ると、和尚、岳石木、買述丁らの高官が改革要員として投入された。しかし1352年、海運拠点港の太倉が方国珍の軍勢に襲われる事件が起こった。これ以降の時期Eになると、海運は滞りがちになり、諸勢力が割拠するなかで元朝の江南支配は終焉していった。

---

<sup>65</sup> 壇上寛 2001; 2003.

さて、以上のように展開してきたモンゴル元代の海運は、歴史的に見てどのように評価できるだろうか。本稿で論じてきたことに加え、先行研究も参照しながら、若干の考察を加えてみたい。植松は、朱清・張瑄や費氏・曹氏ら江南在地の富民船戸たちを自らの利益を追求するたくましい存在として評価した<sup>66</sup>。これに対し、陳波は、元朝とそれに飼いならされた一部の富民船戸とが利益を独占し、貧しい船戸が被害者となったと述べる<sup>67</sup>。また、陳彩雲は、元代中後期の江南人士たちが不満の感情を持つなど、南北の民族間の溝が深まっていったことを強調する<sup>68</sup>。海運運営体制のなかで監督的な立場にあった人びとの居所が、多くの場合、海運万戸府の置かれた平江の公邸だったのに対し、江南在地の海運万戸を含む船戸たちは、太倉や崑山などの海運港を拠点にして世襲的な地位を保つ傾向にあった<sup>69</sup>。このことに象徴されるように、監督・管理する側とされる側の間には懸隔があり、それが徐々に深まっていったという指摘には一定の説得力がある。だが、この懸隔あるいは断絶を民族間で起きたものと単純に理解するのはためらわれる。元代の海運運営体制を見ると、監督・管理する側は西方・北方系の官僚が多くを占める一方、海運を実際に担ったのが在地の南人船戸であったことはたしかである。しかし、これまで論じてきたように、海運万戸府の正官にあたる海運万戸や副万戸には、南人も含めさまざまな出自の人物が任じられ、時代とともにその役割も複雑に変化してきた。元代における官僚任用について、船田善之は、一つのセクションに複数の人間集団を入り交じるように配置する「参用」という特色が見られることを指摘したが<sup>70</sup>、海運万戸府の人事にもそれがおよそ当てはまる。この「参用」の意図が、民族的な差別ではなく、集団ごとのバランスの維持にあったことは船田が指摘する通りである。ただ、そのバランスも、海運万戸府に限っていえば元代を通して一様というわけではなく、海運官の役割の変化とともに重心が移動したと考えられる。

さて、ここでもう一つ言及しておきたいのが、植松正と四日市康博の所論である。植松は、朱・張失脚以降の海運において、有力な船戸たちが、海運だけでなく内陸水運や海外貿易をも視野に入れた広汎な物流ネットワークのなかで動いていたという見通しを立てた<sup>71</sup>。一方、四日市は、モンゴル元朝が、アフマドやサンガラのもとで海運・市舶・塩課を組み込む包括的な行政機構を構築し、国内輸送路と海外交通路を一体的に結びつけ、税糧の歳輸や南海貿易の利益まで江南から京師へと

<sup>66</sup> 植松正 2007, p.18.

<sup>67</sup> 陳波 2013, p.93.

<sup>68</sup> 陳彩雲 2018b, pp.161-164.

<sup>69</sup> 陳彩雲 2020, pp.141-142.

<sup>70</sup> 船田善之 2001, p.20; 2021, p.23.

<sup>71</sup> 植松正 2004, p.159.

直接もたらす体制を築き上げようとしたが、既存勢力や地域社会からの反発にあり、結局はそれぞれの地域社会の豪民に海運を依存する体制となったと述べる<sup>72</sup>。江南在地の船戸の視点に立つ植松と、西方系財務官僚の視点に立つ四日市の両論が、互いに重なり合っていることが見て取れよう。

これらの所論を、本稿で論じてきた内容と照らし合わせて考えてみる。まず、江南在地の船戸と西方系財務官僚の関係についていえば、時期 A には対立がみられたものの、時期 B になると協力あるいは補完関係に移ったことが窺える。次に、西方系財務官僚によって企図された海運・市舶・塩課を組み込む包括的行政機構の構築が、時期 C になって実現した点も指摘しておきたい。その構築の主体は西方系官僚というよりも、江南一帯を統治する官僚組織を完成させたモンゴル元朝そのものだったと考えられる。そして最後に、地域社会の豪民に海運を依存する体制になったという四日市の理解は概ね正しい。しかし、内情はやや複雑で、海運の実務そのものは時期 A 以降一貫して在地の船戸が担っていたが、海運の運営体制の面から見ると、時期 B こそ在地の新興船戸が主体的な役割を果たしていたものの、時期 C 以降、船戸は組織的な管理下に置かれるようになったと筆者は考える。ともあれ、植松・四日市両氏の指摘は、元代の海運を、それ単独でとらえるのではなく、海外貿易や内陸水運などを含む広い視座に立って理解しようとする点で優れており、今後はその細部を実証的に論じ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る。

以上、モンゴル元代の海運をめぐる歴史的評価について多方向から再検討してきた。どの立場から見るか、あるいはどのような枠組みを設定するかによって、さまざまな解釈が成り立つことがわかる。モンゴル元朝にとって海運は国家財政を維持していくための生命線であったが、江南の多くの人びとにとっては、富を吸い上げられるストロー的な装置であり、社会矛盾を引き起こす要因にほかならなかった。とはいえ、江南在地の新興有力船戸にとっては、海運港などを拠点に富民として成長する契機となる事業であった。また、中国史の枠組みのもとでは、南北中国を一体化させる新たな選択肢であると同時に、内陸水運や塩政ともリンクしつつ財政を支える物流ネットワークの主要幹線としての側面を持っていた。そして、視野をユーラシア規模に拡大してみると、モンゴルの海洋政策のもとで南海貿易と接続していた江南地域を、さらに北方の大都へと接続する役割を果たしたと評価できるのである。

#### 【附記】

本研究は JSPS 科研費 19K01045 および 22K00920 の助成を受けたものである。

---

<sup>72</sup> 四日市康博 2021, p.41.

## 参考文献一覧 (アルファベット順)

- 陳波 2010 「海運船戸与元末海寇の生成」『史林』2010-2, pp.105-111.
- 陳波 2011 「元代海運与濱海豪族」(姚大力・劉迎勝主編『清華元史』1, 商務印書館) pp.215-249.
- 陳波 2013 「元代海道都漕運万戸府の人事変遷」『元史及民俗与边疆研究週刊』26, pp.84-94.
- 陳彩雲 2018a 「元代私塩整治与帝国漕糧海運体制的終結」『清華大學學報 (哲学社会科学版)』33, pp.13-23.
- 陳彩雲 2018b 「民生災難与群藩籬：元代漕糧海運及其社会後果的再思考」『社会科学』2018-6, pp.155-164.
- 陳彩雲 2020 「政治歧視与文化互動：元代漕糧海運体制中的族際關係」『社会科学』2020-4, pp.135-146.
- 陳彩雲・鄭凱倫 2021 「元代漕糧海運与江南濱海地区的空間開發」『浙江師範大學學報 (社会科学版)』46, pp.53-61.
- 陳高華 1995 「元代的航海世家激浦楊氏—兼說元代其他航海家族」『海交史研究』1995-1, pp.4-18.
- 壇上寛 2001 「元末の海運と劉仁本—元朝滅亡前夜の江浙沿海事情—」『史窓』58, pp.119-130.
- 壇上寛 2003 「方国珍海上勢力と元末明初の江浙沿海地域社会」(京都女子大学東洋史研究室編『東アジア海洋域圏の史的研究』(京都女子大研究叢刊39), 京都女子大学), pp.143-212.
- 段海蓉 2013 「元代海道都漕運万戸西域唐人黃頭事蹟考」『新疆大學學報 (哲学・人文科学版)』41-1, pp.48-51.
- 藤野彪 1954 「朱清・張瑄について」『愛媛大学歴史学紀要』3, pp.1-23.
- 船田善之 2001 「「色目人」の実像—元の支配政策」『月刊しにか』12-11, pp.16-21.
- 船田善之 2021 「元代「四階級制」説のその後—「モンゴル人第一主義」と色目人をめぐって」(櫻井智美他編『元朝の歴史』勉誠出版), pp.19-30.
- 高栄盛 1983 「元代海運試析」『元史及北方民族史研究集刊』7, pp.40-64.
- 星斌夫 1959 「元代海運經營の実態」『歴史の研究』7, pp.52-171.
- 星斌夫 1982 『大運河発展史 長江から黄河へ』(東洋文庫410), 平凡社.
- 松田孝一 2000 「中国交通史—元時代の交通と南北物流—」(松田孝一編『東アジア経済史の諸問題』阿吽社), pp.135-157.
- 植松正 1968 「元代江南の豪民朱清・張瑄について：その誅殺と財産官没をめぐって」『東洋史研究』27-3, pp.292-317.
- 植松正 2003 「元初における海事問題と海運体制」(京都女子大学東洋史研究室編『東アジア海洋域圏の史的研究』), pp.75-142.
- 植松正 2004 「元代の海運万戸府と海運世家」『京都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研究紀要』3, pp.111-170.
- 植松正 2007 「元代海運の評価と実像」(山根幸夫教授追悼記念論叢編集委員会編『明代中国の歴史的地位(下)』), pp.5-22.
- 翁沈君 2017 「元代崇明海運家族変遷考論」『史林』2017-3, pp.41-49.
- 矢澤知行 2006 「元代の水運・海運をめぐる諸論点—河南江北行省との関わりを中心に」『愛媛大学教育学部紀要』53-1, pp.16-170.
- 矢澤知行 2007 「元代兩淮地方の水運と塩業」『愛媛大学教育学部紀要』54-1, pp.157-165.
- 矢澤知行 2009 「元代の漕運・塩業と兩浙社会」『大阪市立大学東洋史論叢別冊特集号 東アジア海域世界における交通・交易と国家の対外政策』, pp.37-48.
- 矢澤知行 2013 「元代の兩浙都轉運塩使司について」『愛媛大学教育学部紀要』60, pp.259-268.



- 矢澤知行 2014 「元代淮浙における塩政の展開」『愛媛大学教育学部紀要』61, pp.225-233.
- 四日市康博 2006 「元朝南海交易経営考：文書行政と錢貨の流れから」『九州大学東洋史論集』34, pp.133-156.
- 四日市康博 2021 「元代の海上交通」『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223, pp.31-49.
- 張琰玲 2017 「元代海道都漕運万戸府達魯花赤買述丁考」『西夏研究』2017-4, pp.74-77.
- 趙彥風・李晶晶 2017 「機構・群体・過程 元代海運管理研究」(姜錫東主編『宋史研究論叢』18, 河北大学出版社), pp.399-419.



# Translation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Using Audiovisual Translation to Deepen Language and Cultural Understanding

Lisa K. Honda \*

**ABSTRACT:** Until the 1980s,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was the principal method used in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This method was often criticized because the goal of text translation focusing on grammar, vocabulary or reading comprehension acquisition did not necessarily help students become better communicators. With the transition to a more communicative approach, educational institutions experience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ourses that promoted active learning, including practical translation courses. This paper focuses on the instruction of audiovisual translation and explores the inclusion of subtitling instruction in the classroom. This method of instruction encourages students to critically think about language and cultural problems that arise during translation, and methods to solve them. Through this process of translation, analysis, reflection and retranslation, students will deepen both their cultural and language proficiency to become better communicators.

**KEYWORDS:** foreign language education,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instruction

## 1. Introduction

While there has been significant research on how foreign languages are best learned and taught,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using translation in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has been limited. Until the 1980s,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widely focused on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the translation of foreign texts to master grammatical competence. Cook (2007) states that translation was thus used as an essential method i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but it was also regarded as being retrograde and useless, as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was often associated with being dull, laborious and not very practical in the sense that it focused more on the acquisition of writing than speaking. The situation in Japan was no different, with English language education being highly dependent on the translation of English texts into Japanese for the primary purpose of acquiring the mechanical aspects of language, vocabulary and grammar. Translation in the classroom thus took on a more literal approach, or according to Eugene Nida's (1964) approach to equivalence, one that focuses more

\* Lectur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E-mail: lisahonda@intl.kindai.ac.jp

on formal equivalence (translations that place an emphasis on form and structure) over dynamic equivalence (translations that adapt the text so that it can be clearly understood by the audience). This grammar centered approach in translating written texts for the study of languages resulted in “school translations” that were useful for preparing for high school and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that tested grammar, vocabulary and reading comprehension, but was recognized to be insufficient for learning how to communicate well using the foreign language. To compensate for this lack of communicative ability,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the following years gradually moved away from using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to focus more on a communica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languages, which in turn limited the use of the mother tongue in the classroom. However, although the use of the mother tongue was discouraged, translation itself is still an effective method to acquire fundamental reading comprehension and writing skills, in addition to deepening cultural competence. The problems with using translation as a method for English study can be said to be due to the manner in which it was conducted. With the renewed vision of using translation in the classroom for communicative purposes rather than grammar acquisition, a path was paved to include more practical translation courses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for the purpose of deepening communication competence.

Whil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instruction are closely related, this paper focuses particularly on translation, and the instruction of audiovisual subtitling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The aim of this type of instruction is the deepening of foreign language and cultural competence rather than just practicing the technical aspects of subtitling for vocational purposes. The reason for this direction is the result of many students being interested in taking practical translation courses not for the purpose of learning more about the profession or learning the technical skills to become professional translators in the future, but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in English. Students also mentioned that as they became more proficient in English through their studies, they became interested in subtitles due to the noticeable discrepancies between what was actually spoken and what was shown as subtitles on the screen. This paper thus aims to explain the benefits of teaching interlingual subtitling in addition to exploring the use of translation theory in teaching as a pedagogical tool to deepen both cultural and linguistic understanding, and to improve students’ communicative skills in both their mother and foreign languages.

## **2. Translation Instruction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 **2.1 The Communicative Approach and the Inclusion of Translation Courses**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up until the communicative approach was introduced, the dominant method of teaching foreign languages was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that utilized the translation of foreign texts. This method often involved repetitive tasks to acquire the fundamental skills essential for linguistic competence, such as vocabulary, grammar, and reading comprehension acquisition, and were more passive than active. The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 approach took a more active approach to language

learning, and was first proposed in the 1970s. CLT still has great influence on language teaching today and the approach aims to achieve communicative competence over linguistic competence through the actual practice of language with others (Richards, 2006). Richards summarizes communicative competence as (1) the ability to use language for a variety of purposes; (2) being able to adjust the language based on context and situation, such as considering the participants involved; (3) being able to comprehend and produce different styles of texts; and (4) being able to use various communication strategies to maintain communication despite facing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With the increasing influence of the communicative approach abroad and the need to improve Japanese student levels of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Japan was also eager to take a more communicative approach to teaching English. In the 1980s, the Japanese government initiated a nationwide program that would eventually bring thousands of native English speakers to Japan's public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as Assistant Language Teachers (ALTs). 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JET) Programme was established in 1987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more international exchange at the community level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quality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 Japanese public schools (CLAIR, 2015). However, the immersion of native English speakers into Japanese schools alone without proper teachers training or the creation of a curriculum did not necessarily solve the issues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being primarily grammar focused. In 2003, the Ministry of Culture,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XT) announced an action plan titled 「英語が使える日本人」の育成のための行動計画, which literally translates as “action plan to nurture Japanese people who can use English.” This plan clarifies the aims and methods of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be used in public elementary,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The plan states that English courses were to be instructed mostly in English, activities that will encourage active communication among students were to be included, classes should be conducted with smaller student numbers and be separated by student levels, teacher training should be improved, and study abroad opportunities and participating student numbers in those programs should be increased (MEXT, 2003). To further support the government's decision to place an importance on the communicative approach, an English listening test was included in the national center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s starting in 2006 as part of the MEXT plan. As a result,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saw changes with the addition of more communication centered English classes added to their curriculum.

It was within this context that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were once again reconsidered and became a focus of attention. Traditionally, Japanese universities viewed th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profession as being vocational rather than academic, thus rarely included practical training courses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Takeda, 2012a). However, with this renewed view of using the communicative approach in teaching English,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classes began to be included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as courses for students to actively practice both oral and written skills to improve English language fluency (Takeda, 2012b). This was not necessarily a revival of the grammar-translation

approach, but a renewed view of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as a method of improving communicative competence.

Translation courses are now being instructed at many universities across Japan and while the numbers are still limited in comparison to Western countries, there were 105 universities that had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in 2005 (Someya et al., 2005), and this number increased to 183 universities in just three years in 2008 (Mizuno & Naganuma, 2008). Additionally, there are also over 20 universities that offer graduate programs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Kondo, 2009). While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in Japan is unique in that it is still largely dependent on private schools and language service providers (LSPs) for practical training and advanced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Sato, 2004; Takeda, 2012b), an increasing number of university students now have the opportunity to take introductory courses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during their undergraduate education.

## **2.2 Integrating Theory in Translation I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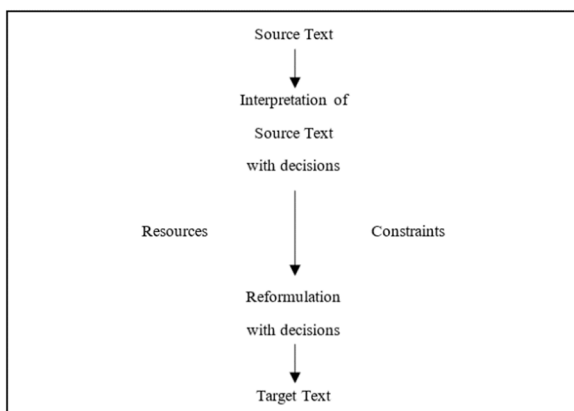
In a collaborative report on the pedagogical significance of teaching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in Japanese universities, Torikai explains that the significance of translation instruction at the university level is multifaceted in that the act of translating first requires students to comprehend a text, interpret the meaning, and to express the content in another language. This proces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not only focus on the linguistic elements of a text, but requires students to recognize cultural characteristics or differences that may affect meaning and interpretation, and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communicative expression (Torikai et al., 2014). While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English learning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a for several decades now, it is still the case that the study of fundamental skills 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still focus on preparing for high school o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Gile (2009) states that after many years of doing “school translation”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linguistic competence, students have generally learned how to find linguistic correspondences to words or parts of sentences, but have had little opportunity for analysis and communication-oriented writing. It can thus be said that translation instruction focusing on communicative expression can be an optimal framework to use in the classroom.

In order to encourage analysis and reflection to improve communicative expression, Gile suggests that more theory can be integrated into translator training. However, most students of translation are not particularly interested in historical, philosophical or literary theories that they find remote from their immediate concerns of becoming better translators. Therefore, he proposes the IDRC framework, which stands for “interpretation, decisions, resources and constraints” (Gile, 2009). This model introduces students to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is relatively close to most students’ immediate concerns of learning how to produce good translations, and is a sensible way to introduce theory into translation practice while still being able to accommodate different student interests and needs.

Gile (2009) describes translation as being a conscious act that moves in a direction towards a particular objective, and must be conducted using various

resources available to the translator under certain constraints. These resources include a wide range of information from linguistic knowledge such as language and grammar, cultural knowledge, visual signs and sounds, and specialized knowledge in the subject matter. Constraints also have a diverse range from the limitations in the translator's linguistic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subject matter, to restrictions such as lack of time or specific rules designated by clients. Cultural and linguistic norms in either the source or target languages may also become a constraint for the translator. The IDRC framework encourages students to interpret the information, make translation decisions based on resources and constraints, reformulate those decisions and produce the target text. Essentially, it denotes a process of translation, analysis, reflection and retranslation.

**Figure 1** The IDRC model: Interpretation-Decision-Resources-Constraints



Source: Gile, D. (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249.

While Gile proposed the IDRC model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ory to prospective translators, this model of actively engaging learners to consider all of the resources available to them and the constraints to which they are bound in their decision making can be used in the undergraduate classroom to encourage students to deepen both their linguistic and cultural understanding while they make translation decisions. The model also promotes reflection on and reformation of those translation decisions, which is an essential step in the learning process. In teaching AVT to university students, this interpretation of the source text involves the recognition and comprehension of film dialogs. The resources available to the students include linguistic and cultural knowledge that they already possess in addition to other signs that can be attained from the visuals. The constraints can be limitations to the student's linguistic ability and cultural knowledge, which they can try to compensate with additional study, and also constraints imposed on the translations due to the amount read and shown on a

screen at a given time. Throughout this process,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communicate with and receive feedback from the instructor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Details of how this model can be used in AVT instruction are further explained in section 3.4 of this paper. The following section first explains audiovisual translation and how it can be taught in the classroom.

### 3. Audiovisual Translation

Audiovisual translation (AVT) itself has typically been looked at as being different from translation proper due to its change in medium from spoken to written, and its highly adaptive nature that is largely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These factors are separate from the actual dialog being spoken. Henrik Gottlieb (2012), one of the pioneers of research on subtitling, explains that subtitles are a form of “diamesic translation in polysemiotic media” that are visually shown to the audience in synchronization with verbal speech. Diamesic refers to communication in differing mediums, such as from writing to speech, or in the case of subtitling, from speech to writing, and polysemiotic refers to the multiple semiotic channels present in audiovisual material. Gottlieb states that in the case of film and television, there may be up to four semiotic channels, two verbal and two non-verbal, that may exist simultaneously. The non-verbal channels include images and music, in addition to sound effects. The verbal channels include dialog, narration and song, and written elements visible on the screen (Gottlieb, 2012). Furthermore, restrictions particular to audiovisual material affect what content and how much of it can be included in the subtitles, which students who study AVT for the first time are often unaware of. These constraints include the time limit for how long a subtitle can remain on screen, character limits based on how fast the viewer can actually read a subtitle while still being able to enjoy the visuals, and semiotic influences such as sound and visual effects that may also affect understanding and impression. While audiovisual translation is considered to be a relatively new method for teaching translation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in Japan, it is an area of translation that has numerous possibilities for both language and cultural acquisition. New technologies are becoming available, students have better access to technological equipment, and there is an abundance of translatable material available in this digital age. Videos and films are also an attractive medium for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students, who are generally positive about being able to study language through visual materials.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AVT such as subtitling, dubbing and voiceover, and they are conducted both interlingually and intralingually depending on the purpose. Subtitling is visual, with the actual text superimposed on the screen at a given time, while dubbing replaces the voice of the speaker with another voice. The third type of AVT is voiceover, where the original voice of the speaker is heard with the translated speech overlapping the original voice (Takeda, 2013). Subtitles and dubbing are used for diverse types of audiovisual materials such as films, movies, documentaries, television dramas, etc., whereas voiceover tends to be used more for broadcasting such as the news, where there is a preference for the original voice of the speaker to be heard. As the restrictions and output medium differ for



subtitling and dubbing, this study focuses specifically on the creation of subtitles.

### **3.1 Student Interest in AVT**

The situation with translation instruction in the translation industry in Japan is that it is closely connected to market needs and the commission of translation work (Takeda, 2012b). Programs are more vocational, leading to opportunities to receive work after completing a program. However, the situation is different in the university setting, with AVT instruction included in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as an extension of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um rather than for the purpose of nurturing future audiovisual translators. Over the years in instructing translation to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it has been increasingly the case that more and more students are interested in AVT, particularly due to the increase in availability of foreign movies and television programs. Using audiovisual material in the classroom is considered to be a powerful instructional tool not only because it has a motivational impact on learners, but also because it is considered closer to real life in that the visual clues and context allow students to listen to and “view” the message simultaneously (Baltova, 1994). The current generation of university students have grown up with easy access to online video distribution services such as YouTube, Netflix, and Amazon Prime to name a few. They are thus accustomed to viewing videos with subtitles, whether it be premade subtitles for movies and television dramas, or automatically generated subtitles on internet videos. The noticeable discrepancies between what is spoken and what is subtitled seems to be the trigger for student interest in learning how to make subtitles on their own. An additional trigger is the entertainment factor of wanting to partake in something that seems more interesting than the traditional approach of studying translation through written texts.

### **3.2 Using AVT in the Classroom**

In recent years, there are many studies that show the positive effects of using both intralingual and interlingual subtitles, captions and dubbing to improve the acquisition of vocabulary, listen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Danan, 2004; Sokoli, 2006; Lertola, 2012 and 2015; Soler, 2020). Others such as Neves (2004) have addressed how the creations of subtitles assist in developing language awareness. Neves explains that using audiovisual material in the classroom gives students an opportunity to not only think about language in an enjoyable environment, but that it also offers a holistic approach to reflecting on diverse codes. These codes include not only spoken words, but cultural, contextual and situational information, and semiotic influences in the video that affect meaning and impression. Furthermore, by encouraging reflection and analysis of subtitles using translation strategies and comparison of cultural elements, it offers opportunities to deepen cultur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ve ability. Of course, the instruction of the technical aspects of subtitling are important to complete subtitling tasks and cannot be overlooked. However, just focusing on teaching the techniques limits the possibilities for language and cultural acquisition. It is thus important that clear directions for the tasks to meet those goals be explained in the classroom in order to ensure that the

educational results are fruitful.

### 3.3 The Rules of Subtitling

Many people who watch films with subtitles may notice that subtitles do not always correspond with what is actually spoken by the characters in the film. For those unfamiliar with subtitling rules and strategies, it may just seem like the translator did a mediocre job. In fact, this is one of the most common observations that students have mentioned when they give reasons for wanting to learn AVT. To do a subtitling project, not only is it important to select an appropriate piece that would challenge the students with a task made for a particular purpose,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sure that students understand the rules of subtitling and translation strategies before they partake in a subtitling project.

The rules of subtitling differ by language and the direction of interpreting. In the case of English to Japanese, there is an industry standard that designates the number of characters per second as four. This standard was established when the first foreign film was subtitled in 1931 (Shimizu, 1992; Toda, 1994), and remains as the industry standard to this day. For a one second phrase in English, the translator would thus have only four characters to express that phrase in Japanese. Minor adjustments have been made such as where the subtitles appear on the screen, how many characters are allowed per line, and how many lines are permitted on the screen at one time. However, the four character per second rule itself has surprisingly not changed despite the fact that it has been nearly a century since subtitles first appeared in Japan. In subtitling into English, the film industry standard is 12 characters per second and the number of lines per screen are generally limited to one to two lines (Shinohara, 2012), but studies such as Díaz-Cintas (2013) have questioned whether or not this rule remains valid for today's audiences who are relatively accustomed to reading text on the screen due to increasing exposure to online media. Díaz-Cintas reports that there are cases where 15-17 characters per second are being used. Likewise in Japan, Sasaki (2017) questions whether the four character per second rule is adequate for today and conducted an experiment to test whether the rule is outdated by showing several clips from films using subtitles with differing numbers of characters per second. The results showed that a greater number of participants preferred six characters per second over four and eight, strengthening the idea that perhaps in this digital age where viewers are more accustomed to reading subtitles, the four character per second rule is indeed outdated. However, it can also be seen from the comments of the participants and their eye-tracking data that the difficulty of the film and length of the subtitles also influence whether or not the number of characters per second is appropriate (Sasaki, 2017). While it is possible to read subtitles that are made according to six to eight characters per second, overly lengthy subtitles force viewers to focus too much on reading, giving them less time to focus on the visuals, thus impairing the comprehension of the overall content. It is thus important to remember that subtitles should be both easily readable and comprehensible for all viewers. While translators may have the option of using more characters per second, it is still beneficial in terms of the burden imposed on the audience, to limit the number of characters whenever possible to not detract from the experience of

enjoying the film.

### **3.4 AVT Instruction and Student Translation Projects**

Returning to the Interpreting Decisions Resources Constraints (IDRC) model proposed by Daniel Gile (2009), the author utilizes this method in supervising student capstone projects in AVT at the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Students with a relatively advanced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can effectively deepen their linguistic and cultural fluency through the creation and analysis of subtitles. An advanced level of English is suggested for this type of AVT project incorporating translation theory, as it is important that students can comfortably recognize and understand much of the content that they watch in a video or film. Additionally, they should first acquire the basic skills necessary to do subtitling translation, such as learning the rules and strategies of subtitling. Following this, they can create their own subtitles and analyze them according to various subtitling strategies or by comparing them to the subtitles written by professional translators. Naturally, the content and difficulty of the plot or language used in the film or video will affect comprehension, so appropriate materials should be chosen based on the goals to be achieved. For example, if the goal of the project is to consider cultural differences that affect understanding and how to relay the message in the most appropriate way to the audience, a film that is rich with cultural references can be selected. After an appropriate material is selected, the author suggests that AVT projects be conducted using Gile's IDRC model using the following actions and considerations.

Interpretation	-watching the film for comprehension by paying close attention to all verbal and non-verbal semiotic channels
Decisions	-making decisions based on interpretations of the source text and visuals, in consideration of the constraints and utilizing the resources available
Resources	-information from the film (speech, sounds, visuals) -linguistic proficiency -cultural knowledge -additional research tools
Constraints	-linguistic and cultural knowledge of the student -linguistic and cultural norms that may not transfer to the target culture -subtitling rules -time (deadlines, etc.)

Students are most likely very aware of the interpretation and decision-making actions. Interpretation involves the recognition and comprehension of film dialogs in addition to considering the other semiotic channels not present in the spoken dialog, such as sound, music, lighting and written text. Students should initially watch the film without captions or subtitles, then refer to them later if necessary. If one of the goals of the project is to improve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s, dictation of the dialog can be also assigned to have students focus on practicing their listening skills. Decision making should be done by utilizing the various resources available to the student. The main source of information will of course be from the film itself, such as both the verbal and non-verbal semiotic channels. Students will also rely on their own language and cultural understanding, background knowledge, and use additional research tools such as the internet, dictionaries, and so on to fill in any gaps. The constraints include the student's limitations in their own linguistic and cultural proficiency, limitations in background or subject specific knowledge, cultural and linguistic norms that may be difficult to translate, and the constraints imposed by subtitling rules. Throughout this process, it is important that the student communicate with the instructor for feedback and suggestions.

Steps in the conducting the translation project:

1. *Setting goals/aims for the project*  
Considering the goals/aims to be achieved and a method for analysis, students should choose an appropriate audiovisual piece to translate.
2. *Learning the technical aspects of subtitling*  
Students should learn about and actually try making subtitles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character limit per second, and the number of characters and lines allowed on the screen at one time. They should time the seconds of the dialog and calculate the number of characters that can be used.
3. *Learning the various subtitling strategies*  
Students should think about what type of analysis they want to conduct before undertaking a project. If they will be conducting analysis using subtitling strategies, they should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various strategies so that they can recognize them when they are used.
4. *Translating and creating subtitles*  
This step can be twofold or done in one step. Some students prefer to make a rough translation of the original script, and then edit the draft to make the subtitles by considering other semiotic content and time constraints. Others are better at considering all factors together to produce subtitles from the first draft.
5. *Analysis and reflection*  
Students should analyze and reflect on their subtitles based on subtitling strategies, cultural comparisons, additional research, comparison and contrast with official subtitles, etc. The findings can be presented in a paper, presentation or both.

The method of analysis can be conducted in several ways, but the author finds that applying the translation strategies proposed by Yuko Shinohara (2018) for

Japanese subtitles have been an easy to grasp method for students in analyzing their own subtitles or the subtitles of professional translators (the subtitling strategies were first proposed by Henrik Gottlieb in the early 1990s and refined by others such as Jan Pedersen, 2011).

**Figure 2** Jan Pedersen’s (2011) translation strategies as revised by Yuko Shinohara

Strategy	Description
① Retention (保持)	Maintaining ST elements in TT
② Transliteration (音訳)	Display of ST elements in katakana
③ Specification (詳述)	Description of ST item
④ Direct translation (直接訳)	Includes word borrowing and shifting
⑤ Generalization (一般化)	Paraphrasing to general terms
⑥ Substitution (置き換え)	Cultural replacement
⑦ Omission (省略)	Removal of cross-cultural elements

Source: Shinohara, Y. (2018). *Eiga jimaku no honyakugaku – nihon eiga to eigo jimaku*. Kyoto: Koyo Shobo, p.82.

The translation strategies proposed by Pedersen (2011) include the 7 strategies of *retention*, *specification*, *direct translation*, *generalization*, *substitution*, *omission*, and *official equivalent*. *Retention* means that the source text (ST) element has been unchanged or just slightly adapted to meet the target language (TL) requirements. *Specification* denotes that more information is added to the subtitle to make information more transparent, such as the spelling out of an acronym. In *direct translation*, the only change is the language used, meaning that there is no semantic alteration involved. *Generalization* makes the TT less specific than the ST by using a superordinate term or paraphrasing. *Omission* is when information from the ST has been removed and does not exist in the TT. Lastly, *official equivalent* refers to an already existing TL equivalent being used to replace the ST (Pedersen, 2011).

Shinohara has revised Pedersen’s strategies by removing *official equivalent* and adding *transliteration*. This revision was suggested due to the fact that the katakana phonetic spelling is often used in the creation of Japanese subtitles, so the inclusion of transliteration is more appropriate for Japanese subtitles. In addition, Pedersen’s *official equivalent* is not as relevant in Japan, as Pedersen

included this strategy for official equivalent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such as designating the use of the metric system instead of the yard system as a unit of measurement (Shinohara, 2018).

In conducting analysis using the subtitling strategies, students select sections of the film that they would like to analyze. What sections they select depend on the type of analysis they want to conduct. For example, if they are interested in analyzing omissions and how that affects comprehension, they can focus on sections where the omission strategy was used often and analyze why and whether or not they were appropriate decisions. They can also choose longer sections of dialog to analyze in order to determine which strategies were used most often and why.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an excerpt from a student’s analysis of the original subtitles for the song, “My Favorite Things” in the movie, *The Sound of Music* (Wise, 1965). The student decided to analyze the original subtitles produced for the movie by film translator, Misa Mori.

Maria: Cream-colored ponies and crisp apple strudels

ミルク色の小馬に りんご菓子  
 <直訳> + <置き換え>

Doorbells and sleigh bells and schnitzel with noodles

ソリの鈴 子牛のカツレツ  
 <省略> <置き換え> + <詳述> + <省略>

Source: Hori, M. (2020).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ource Language and Japanese Subtitles for the Movie “The Sound of Music.” p.20.

In conducting the analysis for these subtitles, the student first analyzed what was changed, missing or replaced by applying Shinohara’s translation strategies. The underlined sections in the lyrics represent sections where the student noticed differences in the subtitles in comparison to the original script. She then considered which strategies were used to make the subtitles for those lines. For this particular section, the student was unfamiliar with the dishes mentioned, such as “apple strudels” and “schnitzel with noodles,” and had to first become familiarized with those dishes before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replacement and omissions that were conducted were appropriate decisions. “Schnitzel” was substituted with “cutlet” in katakana, which is a commonly known westernized dish in Japan, and an extra explanation (specification), “koushi” meaning young cow, was added to explain to the audience that the dish is a beef cutlet. “Noodles” was completely omitted from the subtitle. The scene itself was set in the main character Maria’s room during a storm, where she sang a song to the children about her favorite things in order to cheer them up. The viewers do not visually see these dishes mentioned in the lyrics, hence the student observed that the removal of these cultural elements from the subtitles do have an effect on the cultural perception of the viewer. However, merely transliterating “schnitzel with noodles” into katakana

to preserve the foreignness of the dish would have proved to be confusing to Japanese audiences, who are likely to be unfamiliar with what a schnitzel is in the first place. It is thus important for the student to reflect on these observations and it is also the responsibility of the instructor to guide the students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about these linguistic and cultural factors that affect subtitling choices. The same process of analysis can be conducted with the student's own translations in order to reflect on the reasons why particular language was used or not used, and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the reasons of why cultural references were either included or omitted in the subtitles.

#### **4. Conclusion**

Gile's (2009) IDRC model is a simple model that can be implemented in the teaching of AVT to get students to not only utilize all the resources available to them when creating subtitles, but to also identify and consider the various constraints that may affect their subtitling decisions. It also calls for a process of analysis and reformulation, which is essential for not only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translation, but for improving communicative competence as well. Furthermore, by utilizing the subtitling strategies suggested by Shinohara (2018), students can analyze and understand the factors that affect their translation decisions, encouraging critical thinking that will deepen their cultural and linguistic understanding.

Through the process of translation, analysis, reflection, and retranslation, students will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both English and Japanese usage, and learn firsthand the difficulties of translating culture. Translators do not merely transfer the meaning of words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They transfer multifaceted messages from one culture to another, and the problems that students face in translation are essentially the problems that people of different cultures face when trying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Encouraging students to identify these difficulties and overcoming them by helping them discover solutions to these problems through engaging, hands-on activities are essential in helping students to become better communicators. AVT is therefore not only an enjoyable method to learning more about foreign cultures and languages, if instructed with clear guidelines, goals, and analysis and reflection methods, it can be an excellent tool to attaining deeper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both cultures and languages.

#### **References**

- Baltova, I. (1994). The impact of video on the comprehension skills of core French students.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0(3), 507-531.
- Cook, G. (2001). Use of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In M. Baker and K. Malmkjær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17-120.
- Cook, G. (2007). A Thing of the Future: Translation in Language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7(3), 396-401.

-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CLAIR) (2015).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History. Retrieved from <https://jetprogramme.org/en/history/>
- Danan, M. (2004). Captioning and Subtitling: Undervalue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Meta* 49(1), 67-77.
- Diaz-Cintas, J. (2013). Subtitling: Theory, practice and research. In C. Millian and F. Bartrina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273-287.
- Gile, D. (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 Gottlieb, H. (2012). Subtitles – Readable dialog? In E. Perego (ed). *Eye-tracking in Audiovisual Translation*. Apulia: Aracne Editrice, 37-81.
- Hori, M. (2020).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ource Language and Japanese Subtitles for the Movie “The Sound of Music.” Capstone Project for the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 Kondo, M. (2009). Genesis of the Japan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Studies (JAIS). Retrieved from <http://aiic.net/page/3263/>
- Lertola, J. (2012). The effect of subtitling task on vocabulary learning. In A. Pym and D. Orrego-Carmona (eds). *Translation Research Projects 4*. Tarragona: Intercultural Studies Group, 61-70.
- Lertola, J. (2015). Subtitling in Language Teaching: Suggestions for Language Teachers. In Y. Gambier, A. Caimi, and C. Mariotti (eds). *Subtitles and Language Learning*. Bern: Peter Lang, 245-267.
- Ministry of Culture,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XT). (2003). *Eigo ga tsukaeru nihonjin no ikusei no tame no kodo keikaku*. Tokyo: MEXT.
- Mizuno, A. & M. Naganuma. (2008). Waga kuni no daigaku/daigakuin ni okeru honyaku kyoiku no jissai chosa gaiyo. *Tsuyaku Kenkyu* 8, 280-283.
- Neves, J. (2004). Language Awareness through Training in Subtitling. In P. Orero (ed). *Topics in audiovisual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127-139.
- Nida, E. A. (1964). *Towards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 Pedersen, J. (2011). *Subtitling norms for television: an exploration focusing on extralinguistic cultural reference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Richards, J. C. (2006).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Toda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saki, R. (2017). Is the Four-character-per-second Word Limitation Outdated?: An Empirical Study of Japanese Film Subtitling.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No. 17. Japan Association for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49-165.
- Sato, A. (2004). *Nihon tsuyaku sangyo kenkyu: The directory*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from DSpace at Waseda University. <http://dspace.wul.waseda.ac.jp/dspace/handle/2065/488/>
- Shinohara, Y. (2018). *Eiga jimaku no honyakugaku – nihon eiga to eigo jimaku*. Kyoto: Koyo Shobo.
- Shimizu, S. (1992). *Eiga jimaku wa honyaku dewa nai*. Tokyo: Hayakawa Publishing.
- Sokoli, S. (2006). Learning via subtitling (LvS): a tool for the creation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activities based on film subtitling. In M. Carrol, H. Gerzymisch-Arbogast, and S. Nauert (eds). *Proceedings of the Marie Curie Euroconferences MuTra: Audiovisual Translation Scenarios*.
- Soler Pardo, B. (2020). Subtitling and dubbing as teaching resources for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using Clipflair software. *Lenguaje y Textos* 51, 41-56.
- Someya, Y., Saito, M., Tsuruta, C., Tanaka, M., & Yoshida-Ino, K. (2005). A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interpreting education at Japanese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Interpretation Studies* 5, 285-310.



- Takeda, K. (2012a). On interpreter training in Japa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2, 105-117.
- Takeda, K. (2012b). The emergence of translation studies as a discipline in Japan. In N. Sato-Rossberg & J. Wakabayashi (eds.).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in the Japanese context*.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11-32.
- Takeda, K. (2013). Shichokaku honyaku. In Kumiko Torikai (eds). *Yokuwakaru Honyakutsuyakugaku*. Kyoto: Minerva Publishing, 82-83.
- Toda, N. (1994). *Jimaku no nakani jinsei*. Tokyo: Hakusei Books.
- Torikai, K., Nishimura, T., Ino, K., Nakamura, S., Tanabe, K., Naganuma, M., & Nohara, K. (2014). Daigaku ni okeru tsuyaku/honyaku kyoiku no igi.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4, 219-236.
- Wise, R. (1965). *The Sound of Music*. Twentieth Century Fox.



## Author Guidelines

### Submission Eligibility

Faculty members (professors, associate professors and lecturers) of the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those who are authorised by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journal.

### Originality

A contribution will not be considered for publication if it is con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by another journal or publisher or if it has been accep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Any previous publication of the submitted manuscript in any other languages must be fully disclosed.

### Language

Contributions are accepted in Chinese, English, French, Japanese and Korean.

### Abstract

All manuscripts submitted to the journal must include an abstract in English.

### Format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in Microsoft Word.

### Word length

The length of manuscripts should not exceed 20,000 characters in Chinese, 12,000 words in English and French, and 30,000 characters in Japanese and Korean, including body, notes, references and appendices; unless permitted by the Editorial Committee. The length of the abstract is 100-150 words.

### Review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is not a peer-reviewed journal, although all submissions will be reviewed by the Editorial Committee and only those manuscripts that meet academic standards will be published.

### Disclaimer

All statements of facts and opinions in articles i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are those of the respective authors and contributors.

### Copyright

Authors retain the copyright of their papers. Upon acceptance, authors grant Kindai University and the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licence to publish and reproduce the article in the journal and to communicate it to the public in print or digital form.

The Editorial Committee of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3-4-1 Kowakae, Higashiosaka City, Osaka 577-8502, Japan  
E-mail: journal@intl.kindai.ac.jp

## Contents

---

A Contrastive Linguistic Study of Terms of Address in the Japanese Film  
*Let Me Eat Your Pancreas* and the Corresponding Korean Subtitles

**Yoonok Lee**

The Potential of Refugee-led Organizations in Promoting Resilience  
A Case Study from Uganda

**Megumi Kuwana**

The Experience and Effectiveness of Elite Families' Education for Children in  
the Middle and Late Qing Dynasties: Focusing on Qian Yiji and Qian Taiji

**Yandan Qu**

Development of the Shipping Management System in the Yuan Dynasty

**Tomoyuki Yazawa**

Translation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Using Audiovisual Translation to Deepen Language and Cultural Understanding

**Lisa K. Honda**

This journal is available online at:

<http://int-studies.kindai.ac.jp/curriculum/journal/>

ISSN 2432-292X (Print)

ISSN 2432-2938 (Online)

